

MAXIM

KOREA

MBC SPORTS+

김민아 아나운서
송지선 아나운서

GIRL'S SUPER BOWL

환율전쟁
중국

프로야구 매니저
ONLINE

패권시대

BASEBALL GODDESS



SMARTER THAN SMART PHONE

탈옥 & 루팅

미국 MAXIM 선정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인
KATY PERRY

FOR CAMPUS SEXLIFE
새내기용 동아리 가이드

SWEET VALENTINE
UNDERWEAR

MY NAME IS 요조

SPORTS

- ① 추신수, 박찬호, 이승엽
- ② 박지성, 박주영, 이창용, 손흥민

남자의 하체 단련
잭 블랙의 SEXY MUSIC
뮤지션 양방언
배우 김민서
MISS MAXIM 최혜연

색기를 꿰뚫어보는
관상술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MAXIM MAGAZINE

MAXIM

KOREA

MBC SPORTS+

송지선 아니운서
김민아 아니운서

GIRL'S SUPER BOWL

한글전쟁
중국
패권시대

프로야구 매니저
ONLINE

BASEBALL GODDESS



SMARTER THAN SMART PHONE

탈옥 & 루팅

FOR CAMPUS SEXLIFE
새내기용 동아리 가이드

남자의 하체 단련
잭 블랙의 SEXY MUSIC

MY NAME IS 요조

미국 MAXIM 선정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인
KATY PERRY

SWEET VALENTINE
UNDERWEAR

MISS MAXIM 최혜연
뮤지션 양방언
배우 김민서

색기를 꿰뚫어보는 관상술

SPORTS

- ① 추신수, 박찬호, 이승엽
- ② 박지성, 박주영, 이청용, 손흥민

BASEBALL.com 488



MAXIM Features

February
2011

83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

송지선, 김민아
야구의 여신들이 MAXIM에
강림했으니 프로 야구 팬이라면
무릎 꿇고 영접할지이다.



100

ICON 양방언

최고의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언이 MAXIM 화보를 위해 다리를 활짝 벌였다. 우린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41

LOVE

호색녀를 한눈에 알아보는 관상학. 이제 당신의 레이다에 날개가 달린다.

54

당신을 위한 밸런타인데이 선물

2010 걸 넥스트 도어 1위 최혜연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다. 탐스러운 그녀의 화보가 메인 요리요. 곁들인 밸런타인데이 선물 아이템 소개는 디지털 되시겠다. 당신 눈이 어디로 향할지는 볼 보듯 변하군!

75

MY NAME IS 오조

당신을 사랑해요, 원하는 걸 주세요!

80

용자 듀롱

나폴레옹 전쟁을 불사른 뜨거운 남자 용서처럼 전멸 직전의 부대를 혼자서 구해낼 정도는 되어야 용장(勇將)계의 끝판왕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

91

MONEY WAR

세계경제의 新 패권자 중국이 온다. 어디에 붙어야 살아남나?

102

KATY PERRY

지난 2010년, 미국 MAXIM은 가장 sexy한 100인상을 선정했고, 이 행킹은 세계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메건 포조조차 5위에 그친 별들의 전쟁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그녀는 지난 1월의 미국 MAXIM 표지도메이다.

112

당신이 좋아하는 애니 속 그녀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그녀들이다.

116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MAXIM 동아리 길라잡이

꽃뿔한 대학 생활이 시작됐다. MAXIM이 졸업할 때까지 그대의 캠퍼스 섹스라이프를 책임질 동아리 선택 가이드를 아심차게 준비했다. MAXIM 보면 자다가도 맥이 생긴다!

120

형님보다 잘난 아우 전투기

무기의 세계에선 글이 물을 건너면 땀은 탕자가 아니라 더 크고 맛있는 오렌지로 변한다.



FX채널 방문하고
특별한 이벤트
참여할 수 있다

일본 섹시스포츠 중계 3

JAPANESE SEXY BIKINI SPORTS

더 커친 그녀들이
더 세계 흔들린다!

COMING SOON



H
카와무라 안나

D
나츠메 리오

B
하라 야미

C
마츠모토 미야코

F
스기우라 미즈키

FX 남자의
모든 것

Departments

94 김인서

영화 <악마를 보았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녀가 MAXIM을 찾았다.

10 MAXIM INSIDE

본격 MAXIM 카툰 <보리의 마음> 제이앤 작가/ 굿시나스트 마강 때만 되면 좀비로 변신해 밤낮으로 기사를 만드는 MAXIM 디자인팀 전격 공개!

16 CIRCUS MAXIMUS

경건한 사람을 위한 포르노, 누구의 영영이일까. 모델 죽순이 감별법, 설날 새켓은 흑자 전략, 큰 고추가 나쁜 이유, 별런 타인데이 잔혹사, MAXIM 입사 시험 문제 1, 직업 멘트 던지는 법, 부끄러운 책꽂이 감추는 법, 그리고 영영이 될 마는 법

32 RATED

LFL: 린제리 쪽뺨걸의 풋볼 경기, 뺨죽 만한 케이블 티브이 시리즈, 공연장 에티켓 좋아하는 문화인으로 등극하기 장바비의 색사한 음악 이야기, 발매 임박한 난텐도 3DS 다해보기

44 FITNESS & SPORTS

화이트데이를 대비하여 격투기 파이터에게 하체 단련법을 배운다, 2011년에도 해외에서 용을 아구게 빅3와 축구계 빅4 소식, 덤으로 이달의 MAXIM 스포츠 타임 한 팬

52 STUFF

20개 태블릿 대격돌,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의 원리, 탈옥&루팅 알아보기, 파일럿 코스프레 아이템

62 MOTOR

4륜구동 시승기 BMW X5와 도요타 RAV4, 가격별 국내 시판 차량 리스트

108 IN DA CLUB

지난 해 크리스마스, MAXIM은 의 '짓' 한 누님들과 함께 하얏터!

124 STYLE

겨울 모자, 한 살 먹고 더 자란 당상을 위한 코트 스타일링 법, 얼굴색에 맞춘 슈트와 타이 코디법, 따뜻한 방한 신발, 벨런타 인데이 언더웨어, 쇼케팅에서 먹여주는 스타일, 겨울 아우터에 대한 해답, 안티 에이징 제품, 차아 미백



44



52



62



75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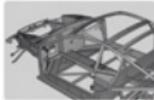


Drift Your Soul **SPIRRA**



이드림

스피라는 이드림을 위한 레퍼토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드림이란 인간과 연속기가 지평의 중간에 걸쳐져야 이루어지는 지평의 무게중심을 지능적으로 잡는다는 일관된 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일관된 목적을 이루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스포츠카에 이드림 레퍼토리를 구축한 결과물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

스피라는 일단 차량에 적용하는 모든 부품과 재료, 부품의 위치와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를 확고히 합니다. 스페이스 프레임은 생산 공정이 복잡한 단말이 있지만, 부품 용량 및 비결합 강성이 뛰어나, 정밀 스포츠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본 바디

스피라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카본 프레임입니다. 카본 프레임의 탄성률과 강도는 강철의 3배에 달하며, 우수한 강도를 확보해 시동하는 신소재입니다. 일단 강도에 비해 가볍고, 내열성도 내열성이 뛰어나서 부식도 염려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탄생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자신감!

전세계에는 유수의 명스포르츠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역사 50년의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스포츠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가대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라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AXIM

KOREA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 이혜성

권무이사 김광선 / 이사 양지웅 / 이사 원해진 / 이사 소상혁

EDITORIAL

수석에디터 차장 이영희
yo@mmaximkorea.net
에디터 차장 고경희
koko@mmaximkorea.net
과장 유승민
sm@mmaximkorea.net
대리 김상현
psycho@m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k@mmaximkorea.net
사원 김희성
alice@mmaximkorea.net
이시스턴트 박현빛누리
nu@mmaximkorea.net

DESIGN

디자이너 주임 정자민
doldoll@mmaximkorea.net
사원 김미연
barymee@mmaximkorea.net
사원 이은학
eastlocust@m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이사 소상혁
so@mmaximkorea.net
과장 진우민
woobin@mmaximkorea.net
과장 유승민
sm@mmaximkorea.net
주임 최인영
joy@m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대리 김종국
jk@m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k@mmaximkorea.net
대리 홍승희
soumate@mmaximkorea.net

WEB SERVICE

웹장 사장인
orisit@town.com

사진 ARC STUDIO

교철 신상영

인쇄 · 원색분해 (주)상화인쇄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7-10 인쇄원 유성근

유통 승주출판부동



발행처 (주)에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182 / FAX. 02-6465-0183
2011년 2월호 동권 제10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6 구독 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oy@m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 KOREA는 세계 20개국 편집부에서 발행하고 30개국에서 판매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엘미미디어 그룹은 2008년 1월 29일과
대한민국의 (주)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주)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할
라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판만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엘미미디어 그룹과 (주)에이미디어 외에 어떠한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제 3권과 사진은 MAXIM 본사인
엘미미디어 그룹과 (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1)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 (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ISK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M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 CZECH** Slovakia
-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 TURKEY** Cyprus
- ITALY**
- PORTUGAL**
- BULGARIA**
- GREECE**
- KOREA**
- ARGENTINA**
- BRAZIL**
- RUSSIA**
- UKRAINE**
- THAILAND**
- INDIA**
- INDONESIA**

국기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내 남자를 빼앗은 그녀의 얼굴...
축축했다!

자기 전 2알/ 먹는 수분 트리트먼트

innerb

“너, 뭐 발랐니?”
“나, 먹었어!”

바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나에게
그녀의 축축한 피부가 말했다.
피부 속부터 채우는
진짜 보습을 위해선 먹어야 한다고



서인영의 축축한 피부비결?
지금 QR코드를 찍어보세요
www.cjinnerb.com

전국 주요 백화점 CJ뉴트라 전문점(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주요 인터넷 몰(CJONmart, Cjmall, GSshop등), 전국 드럭스토어(메리부영, GS앗손스, W-store), CJ오쇼핑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 전화: 1577-0400

이너비

MAXIM INSIDE

"김수환부 거북이와 두루미 심천갑자 동방삭 치치기모 시리시리센다."

이 소리는 길라방에게 욕정을 느낀 주원이 구시렁대는 소리입니다. 욕정에서 벗어나려는 자기회 면인가죠. 생각해보니 다른 주문도 있었죠. 키 작은 지구인이 덩크슌할 때 아발라비하기가 아발라비하기가 살라들라 메치들라, 바비디 바비디 부, 수리수리 미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발정 난 여연체가 돌아와 달리고 아발라카디브라 이리다 미쳐 내가... 이런 주문은 뜻을 몰라도 일단 중얼대면 그만입니다. 언어적 모호함이 주는 신비가 주문의 매력인가가 말이지.

마음 속 염원의 개수만큼이나 많은 주문들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 그 와중에 수천 년을 사라지 지 않고 입에서 되뱉하며 살아남은 주문은 어떤 걸까요? 주술적 힘이 강력한 주문? 아닙니다. 바로 리듬이 살아있는, 리듬이 신명나는 주문이었습니다. 뜻 모르고 읽는 것조차 어색한 주문에 리듬이 없다면, 그 주문은 우리의 혀 끝에서 날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주문의 리듬 안에서 삼악 한 지구인은 모호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며 자기회면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MAXIM은 평대입니다. 고급스러운 포장보다 솔직한 속에 살아있는 비짱과 웃음, 해학을 더 깊 어지 있게 여기는 놀이꾼이죠. 탁월한 평대는 관객과 함께 높아지는 리듬을 자유자재로 구사 할 줄 압니다. 이 리듬 속에서 평대의 몸짓과 소리는 허니의 주문이 돼 관객을 몰입하게 만듭니 다. MAXIM은 그동안 어떤 리듬과 주문으로 관객을 매료해 왔을까요? 귀를 열어 보니 적잖이 관 객의 쓴소리로 들립니다. 평대가 제대로 놀지 못하고 있다는 꾸지람입니다. 지나치게 흥에 빠 지 오버메이상을 보일 때, 흥에 빠진 것처럼 거짓 연기할 때 독자의 꾸지람은 들리었습니다.

철묘한 리듬을 타이핑 때립니다. 글과 글 사이, 사진과 사진 사이,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가 따로 또 같이 뒤섞이며 내는 도발적이고 기차적인 리듬을 만들도록 다시 마음을 주של리 됩니다. 이 리듬을 얼마나 놀기 좋은 주문으로 만들지, 독자들은 신명나고 있는지, MAXIM은 돌아보고 반 성합니다. 2011년, 지금보다 흥겨운 리듬으로 만든 맥스만의 주문을 기대해주시고요. 그리고 함 께 높아야오.

Shall we dance?

2011년 2월, MAXIM 인심당자, 대리 김중국

웃으면
복이요



송지연&김민아
아구맨에게는 김태희와도 바꿀 수 없는 완전 소중한 그녀들!

요조
싱글함이 청춘 올라타는 내 이름은 요조

김인서
우리는 헌사를 보냈대

최혜연
길 텍스트 도어 콘테스트 1위의 위엄을 보여준 매력 만점의 그녀!

스타의 사진이 들어간 폴라로이드 사진이 갖고 싶나? 그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 1 MAXIM 2월호를 구매한다. ...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 3개를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이나홈페이지) 또는 트위터에 "MAXIM 2월호 기사 BEST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 4 (블로그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사진) 을 작은 메일함 reader@maximkorea.net 으로 보낸다. ...

당첨자는 MAXIM 3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의 행운이는 군대에서 MAXIM을 처음 접한 후 매달 책 내오는 낱만 손꼽아 기다리다는 박윤수 독자다. 이해인 사진은 MAXIM에서 우연으로 찍은 둘 테니 걱정 풀어들어 매 래 그 후, MAXIM이 보유한 폴라로이드 사진이 바 닷을 드러내고 있다는 맥박을 던지려하자 메일이 폭주 하고 있다. 이번 달 역시 단상을 화려하게 만들 매력 적인 그녀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대기 중이다. 사진을 갖고 싶다면 사들라라! 녹장부리! 단상만 손해다. 영 삼해라! 영삼해라! 구

OD Musical Company, CJ Entertainment and
Charlotte Theater Present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소중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예매권 판매 개시 -

VIP석 130,000원 · R석 110,000원 (1인기준 / 배송비 3,000원 별도)

*일정 기간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티켓, 예진회사 제외 *구입문의: 오픈리뷰 1588-5212

회장 오직 15인만이 누리는 프리미엄패키지

-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골드클래스 패키지! -

지킬앤하이드 R석 1매 + 샤프트세터 VIP룸 + 프로그램 1권 + 미니메드워진 + 콜라식콜럼버스워치 + 견과류

정가 195,000원 → 135,000원 (1인기준)

*구입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지킬앤하이드
티켓 이벤트

샤롯데씨어터 Now Playing

연출 · 인우 | 데이비드 스완 출연 | 조승우 류정환 홍광호 김준현 김선영 소나 선민 김수현 조정은 *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www.sbs.com | www.oddcompany.com | www.charlottetheater.com | 오픈리뷰 1588-5212 * 공연시간: 19:30 / 15:00 * 공연장: 샤롯데씨어터 1577-2245 * 예약문의: 1564-0113 * 오픈리뷰 1588-5212

Concepted by the stage by Steve Cuden & Frank Wildhorn / Book and Lyrics by Leslie Briceano / Music by Frank Wildhorn / Choreography by Kim Schierberg
Arrangement by Jason Howardland / Directed by David Swann

odm 지킬앤하이드



2011년 FPS가 잔혹해진다!!

슬저 오브 포춘 온라인!!



SOLDIER OF FORTUNE® PAYBACK

슬저 오브 포춘 온라인

<http://sof.fpscamp.com>



스퀘어 엑스
영상 보러가기

 DRAGONFLY
ACTIVISION

Certain components ©2010 DRAGONFLY GF CO., LTD. All rights reserved. ©2007 Activision Publishing, Inc. Activision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ctivision, Inc. All rights reserved. Soldier of Fortun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Copyright Licensing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Soldier of Fortune Payback uses Havok™. ©2007 Havok.com Inc. (or its licensors). All rights reserved. The DemonWare name and logo are copyright DemonWare Ltd 2006. All other trademarks and trade names are the properties of their respective owners. All rights reserved.

Letters

초콜릿 필요 없어. 푼돈이라도 좋으니 현금으로



독자신문 보내기

무서울 것 없는 고3

맥심 2011년 1월호를 탐독 중 (중략.) 나머지 두책
라는 친애하는 에디터님들께서 해주시리라 (중
략.)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략.) 특히 특히 (중
략.) 광고계 (중략.) 하얏 (중략.) 미치 미용실에
서 피아를 하는 듯한 (중략.) 화끈한 맥심 (중략.)
입을 딱 씹어버리는 (중략.) 우리 에디터님 (중
략.) 이 비천한 이해 (중략.) 그냥 무언가 물질적인
걸 원한다 (중략.) 혼자 집에서 (중략.) 앞으로 더
욱더 더더더더 (중략.) 이런 불쌍한 독자 (중
략.) 참고로 나는 7월호 최혜연 님이 좋다 (중략.)
깜깜한 방 안에서 (중략.) ps. 이런 맥심을 사랑하
는 참된 독자 의견은 꼭 다음호에 살아야 하지않겠
는가? 에디터님들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말이다. (중
략.) 기관총을 난사해버리겠다. 애 참고로 나는
올해 고3이다. (중략.) 좀 글이 섹팅바가지 없게 (중
략.) 미안하다. -윤성원
독자님의 소중한 의견은 고이 읽어 감사합니
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곧 기관총을 난사할 예
정인데 그 두책리는 미용실에서 피아하는 화끈한
MAXM 에디터에게 다 말긴 불쌍하고 이가짜이며
섹팅바가지 없는 고3 독자 윤성원 님. 독자님이 요청
하신대로 저희 에디터 마음대로 편집했습니다. 아
독자님이 좋아하신다는 최혜연 씨가 마침 이번 호
에 촬영을 위해 의상을 갈아입던 중 갑자기 들이닥
친 아편 (중략.) 그래서 우리 모두 하하호호 즐겁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기 그리
없는 2010 걸넥스트도이 콘테스트 우승자 최혜연 씨
를 모두 반갑게 맞이주세요



날개 없는 천사

이름 장민우
연락처이-8***-4**
받고 싶은 사단 비독기사 이슬아 사친
안녕하십니까. 항상 맥심 잡지를 즐겨보는 한 소년
입니다. 제가 이슬아 선수의 열혈 팬이라 맥심 1월
호를 바로 주문하여 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이슬아 선수 팬으로서 플라로이드 사친
은 꼭 가지고 싶네요. 맥심 코리아 직원분들 정말 예
쁘시고 질서기시고 왜 배우 안 하셨는지 정말 궁금
할 정도로 훌륭한 출연자들이 아름다운 행복한지 모르는데
셔서 저희 같은 독자들은 얼마나 행복하지 모르습니
다. 이번 이슬아 선수 사친을 저는 100만 원보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당첨된다면 매일 맥심 잡지 독
후강 써서 올리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맥심 직원들이시여 이런 잡지 만들
어주신 것도 고맙는데 사친까지 주신다면 아마 맥심
직원님들은 날개 없는 천사일 것같네요. -장민우
제길, 900만 동만 송겨운 우리 편집부 에디터의 정
체를 들쭉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오모들 가
진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안 장민우
씨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겠습니다. 위 이
미 고통할 길래는 있습니다. 저 위에 '무서울 것 없
는 고3' 보이시죠? 기관총 난사한답니다. 아, 장민우
씨가 혹시 전 우주에서 가장 무섭다는 눈에 보는 것
없는 중학생 일 경우엔 엄청난 반전이 있겠군요. 저
희가 보낼 자책이 자꾸와 함께 우우의 연자가 펼쳐
도 모를 일입니다. 헌히 도시 거번 연락주세요. 모든
그레퍼들이랑 품영성 촬영들이랑 같이 구경 가세요.
벨런타인데이 때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시끄럽고
공부나 해

BEAT THIS CAPTION

비싼 익혀 달걀집엔



댓글 달러가기

1

저 돼지 좀비 생쥐는 이 순간 무엇 때문에 그리 울부짖고 있을까?
여기에 어울리는 센스 있는 말풍선을 달아보자.

2

응모는 [우편 12-84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caption@maximkorea.net, 또는 [QR 코드]를 스캔한 후 댓글을 달아라. 마감은 2월 11일 중목 자원으로 가능하니 부지런히 움직일 것

3

담당 에디터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캡션을 달아주는 독자에게 휴대용 가족 케이스를 쏘겠다! 아메 통고기 응징해라?



하...하...하...
하...하...



AND LOSER...

→ 건담 젓만 젓이고 내 젓은
출어젓이나? -젓타임-
이건 뭐 젓으로 라임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젓타령이
야 젓은 다른 곳에서 찾아라.
고로 달랏

→ 신병 신병 신병 신병 신
병신병...
-아도들-
병신을 말하고 싶었나는데
MAXIM 독자는 신병으로 이해
했을 거다. 신병신병야 달랏

→ 난 가슴이 없는데...
-후후오빠-
뽀 그날 촬영을 담당한 모 에디
터의 말로는 김슬미양의 가슴은
그야말로 젓... 여겨지다.

→ 따라올 테면 따라와와
-이씨 등-
사버, 할 말을 잊었다. 두말할 것
없이 달랏

→ 뭣개지면 세 배 빨라지나?
-PierrotWB-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 남자가 사
아이즈나블릴린 없으므로 달랏

→ 어떻게 건담 보고 골라나
-치영현-
어떻게 이런 말풍선을 보내나?

?



LAST
MONTH'S
WINNER

“건담 말고
다른 걸 세워야!”
-Ain

이번 달은 상상속의 두드림을 늘어놓는 캡
션 응모자가 많았다. 건담이나는덕후는 당
신이 솔로인 것만큼이나 당연한 공식 아닌가?
그러나 가장 MAXIM다운 말풍선을 단 Ain에
게 등을 선사한다. 지금 남자가 세워야 하는
건 건담 따위가 아니라 오로지 그것뿐이란
사실을 그녀의 입장에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센스가 돋보였다. 제일 다음 달에는 일도 끝도
없이 쌓이해도 상관없으니 우리를 뺄 타지게
만드는 말풍선을 드려해달라. 중목 응모도 가
능한데 이 정도 수준은 너무러잖아

CIRCUS MAXIMUS BUBBLING

가릴 수록 아하다니까쁜 BY 이영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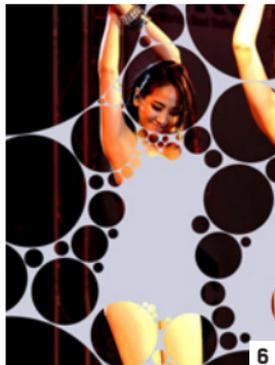
4



2



5



6



3

- ① 미스 영국은 수영복 심사할 아외에서 하나요? 우리도 어서 도입이 시급합니다!
- ②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의 위용 (왼쪽부터) 미란다 커, 켈디스 스와네포엘, 알렉산드라 엠브로시오, 역시 미란다가 제일 썩어 그래서 미란다 커
- ③ 나폴 세르징어 이모의 완벽한 커브!
- ④ 비키니계의 최강자 김준희 씨용
- ⑤ 어머, 미쳤-뵤, 앤 누구냐?
- ⑥ 예은이의 미국식 몸매에 노벨 평화상을 주세요.



Experience
the **Tank System**

eGo-T™



매장 및
가타 정보 보기

고객지원 대표전화번호 : 070-4131-1350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 <http://www.ovalekorea.com>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로라이드, 비스,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 H : 16mg, M : 11mg, L : 6mg



Ovale

NO BUBBLING

아아, 가리지 않아도 아름다운 우리의 천사들.



TEST YOURSELF

여신의 조각

당신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로 다가가 꽃이 될 거다.
아침 꽃도 꽃 나름인 건 알지?

QUIZ 1 | WHOSE BOOBS?

나는 누구의 것일까요?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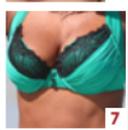
4



5



6



7



8

QUIZ 2 | WHOSE HIPS? 나는 누구의 엉덩이일까요?



1



2



3



4

QUIZ 3 | WHOSE LEGS? 나는 소시 멤버 중 누구의 다리일까요?



다 잊으면 소시원 물어주세요

[정답]

QUIZ 1. ① 이효리 ② 오윤아 ③ 태연 ④ 박근영 ⑤ 신민아 ⑥ 김사랑

⑦ 세레나 윌리엄스 ⑧ (OO)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QUIZ 2. ① 신민아 ② 티파니 ③ 제시카 알바 ④ 제니퍼 러브 휴잇

QUIZ 3. 왼쪽부터 태연, 효연, 수연, 제시카, 유리, 윤아, 서현, 싸니, 티파니

나도
아재같다!



603호 차관 대기
부탁해요.

MOTEL 죽순이 내송질 감별법

이 아가씨 우리 모텔에 데려오는 남자만 백 열한명밖에. BY 유승민

처음 으로 그녀와 함께 모텔에 들어섰다. 프런트에서 당신이 쉬었다 같게요 라고 말하고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는 사이 이 여자 당신 옆에 앉고 모텔 직원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저 멀리 가서 서 있다야 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거나, 관허 DVD 진열대 앞에 가서 영화를 고르는 척 했을 거대. 남자랑 모텔에 온 게 처음이라 민망하다는 그녀. 자기 얼굴을 알 아본 프런트 직원이 아는 체라도 할까봐 그런 건 아니냐? 혹시 그녀가 모텔 스킵을 줄줄이 꿰고 있을 정도의 단골은 아닌지 궁금한가? 여자가 모텔 줄 기다리 그해 흥이 되는 건 아니냐? 굳이 그렇게 궁금하다면 그녀의 행동을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면 답이 나온다. 역시 MAXIM을 읽는 남자 앞에서 되도 않는 내용은 안 통한다.

CHECK LIST

- 1 모텔에 들어오기 전 다른 모텔에 들어가려던 당신에게 여긴 웬지 가기 싫다 머 다른 데로 가자고 했다. (거긴 가봤는데 영 사실이 별로였던 거대)
- 2 프런트 근처에 있는 음료수, 간식을 스스럼 없이 꺼내 먹는다.
- 3 입실 후 프런트에 전화할 일이 생긴 그녀. 자연스레 야연을 누른다.
- 4 영화를 보려면 컴퓨터 화면이 벽걸이 TV로 나오도록 해준다. 그녀가 리모콘을 집어들어 거침없이 외부입력 버튼을 누른다.
- 5 각별한 짝짓기가 끝난 후 당신과 함께 샤워실에 들어가 그녀. 복직한 버튼과 레버가 달린 모텔 특유의 샤워 장치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한다.
- 6 심지어 중기 부스나 월동 휴목도 아주 능숙하게 작동시킨다.
- 7 샤워를 마치지 배가 고프던 그녀. 먹거리를 사기기 위해 자연스레 전화기 9번알림! 전화를 누른다.
- 8 퇴실 준비를 부탁한다는 전화가 걸려오다 그녀가 당신에게 묻는다. 우리 몇 시에 들어왔지? (숫자랑이 몇 시간이지 정확히 알고 있다)
- 9 나갈 준비를 거의 마쳤을 때쯤 그녀가 현관 쪽으로 가더니 차랑 대기 버튼을 누른다.

07개 ~ 17개: 이런 그녀는 정말 순진한 여자였다. 왜 의심하고 그랬어?
2개 ~ 3개: 모텔이 처음이란 건 거짓말이다. 그녀는 당신과 만나는 내내 마지막으로 모텔을 처음 데려갔던 그 남자를 떠올리고 있었다.
4개 ~ 5개: 이제 한참 모텔가는 데 재미가 붙은 단계다. 거기도 이미 외본 데다.
6개 ~ 7개: 당신보다도 경향이 많다. 그녀의 파트너 리스트에 신규 가입한 걸 축하한다.
8개 ~ 9개: 그녀는 이미 프런트 직원과도 오빠 동생 하는 사이다.

그녀가 모텔에 좀 익숙하다고 찌질하게 과거를 추궁 하진 말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딴거냐? 연애도 해 본 여자가 잘 하는 거다.

세뱃돈 흑자 전략



어릴 적엔 몰랐다. 실낱은 세뱃돈을 받아 그저 좋은 날이었지만 당신이 직장인이 된 후로 달라졌다. 세뱃돈은 사라졌고, 언제부턴가 웬 애새끼들이 절을 하고는 돈을 내놓으란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제일 돈독이 오를 조카들의 눈에 당신은 그저 만 원짜리로 보일 뿐이다. 자, 어떻게 대처할까? by 유은민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
응?



내년에
취직하면..



리먼지

조카 녀석의 세뱃로 지출이 발생했다? 당한 건 그대로 깊어야 한다. 그 녀석의 부모를 불러 앉힌 후 세뱃을 꺼내라. "나중에 꼭 출세해서 삼남매 용돈을 드려야 할 텐데" 하는 빈말을 꼭 첨부하라. 나중에 용돈을 드린다는 말은 지금은 세뱃돈을 내놓으라는 의미다.

요새 삼촌이
좀 힘들다.



실직 간성

삼남매가 되기 전 미리 당신의 실적 소식을 은은하게 뿌려두어라. 진짜 직장은 그만두려는 예기는 아니다. 좀 쪽팔린 것만 참으면 당신은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지 않아도 될뿐더러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숙부, 백부, 매형, 나이차가 많은 형한테까지 무자립 세배 폭격을 가하라. 절만하면 자식들에게 호도성 용돈을 받은 것만이지 출애굽이 삼뱃돈을 챙겨 주실 수도 있다.

다멘스

작년까지만 해도 반말을 꺼내지던 사촌중년 녀석이 당신이 취직하게니 결혼을 했다고 갑자기 경순한 태도를 취하며 세배를 올리겠다고 성의밖을 준다. 당황하지 말고 맞절로 응수하라. "어머구, 아무날도 세배 때 많이 받으시게."

이거
왜 이러시냐.



씩씩이

집안에 거동하기 힘든 고령의 노인이 있나? 일단 시끄러워 할라 버지 할애니들은 세뱃도 받고 세뱃도 받는다. 삼남 귀찮기에 고령의 노인을 무작정 끌고 가 세뱃돈을 씹을란다.

*경사 주의



수금

아무리 당신의 아이들이 세뱃돈을 벌여 왔어도 수금에 의해 되지 않으면 일망 허망이다. 당신의 출혈을 매워줄 돈으로 장난감 따위나 사게 내버려둘 수는 있는 일. 수금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번쯤 들어본 말인가.

"세뱃돈 아빠가 많이주세요. 애들이 크든 들고 다니는 거 아냐."
"네 이름으로 저쪽 들어줄게 돈 생기면 저축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고모가 너 학원비 하라고 세뱃돈 주시는 거야!"

이것 밖에
안돼?



다산

결혼을 했다면 아이가 많은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기껏해야 한두 명의 아이를 입세워 당신 시간에서 세뱃돈을 뜯어가는 사촌에게 죽구멍 세배로 용단폭격을 가하라.



FX
남자의 모든 것

UFC

매주 월-수 밤 10시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FX 진정한
UFC를 깨우다!



FX 채널 방문하고
과워호 받기

tcast

channel SCREEN FOXON CMB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BIG PENIS NOT WELCOME

큰 고추가 나쁜 이유 10가지

수확의 기쁨이 클지, 운송과 보관의 부담이 클지 재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by 이영미

1 동 쌀 때 묻는다

에그그, 지지!

2 발명이 뻔하다

말자자지! 말 조우, 왕자자지!



3 뒷문 출입은 언감생심

질식의 위험 무릅쓰고 오일카진 목숨 걸고 해주겠다던 그녀도 '애벌'이란 말을 꺼내면 바로 이만 간다. 알문 출입도 문제가 있다. 너무 긴 생기는 여성이 지랑근부에 닿아 통증 주고, 너무 굵은 놈은 질의 입구를 심하게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한다.

4 끝까지 넣을 수 없다

팔뚝으로 코를 파는 격이나, 코가 아프다고 난리치는데 억지로 우겨 넣을 수도 없고, 반면 팔뚝의 패감 발골 작업은 늘 시뻐할것지. 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개운하고 시원한 맛을 낸 영원히 느낄 수 없을 거야!

5 팔 아프다

떨떨이 칠 때.

6 비주류다

한국 남성의 평상시 생기 길이는 약 75cm, 발기하면 약 112cm다. 전체 남성의 약 7%가 평균이거나 그 이하다. 흡사 파파리카를 연상시키는 대형 고추는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그 어떤 것도 평균 이하 조선 고추들의 이름거리는 질투의 눈길을 피할 길이 없다.

7 발전이 없다

평균치들이 열심히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연마할 때, 대형 고추는 크기만 믿고 기술 습득 및 개발을 소홀히 하게 된다.



8 변태적 유혹이 빠진다

사냥능 기준으로 1백 명 중 7명 정도가 자기 핏고에 카를 꿀을 수 있다. 골리더 '뿅' 소리를 내며 빠지겠지? 천 명에 3명쯤은 셀프 오일 서비스 가능하다. 입에서 뿜어 나오는 변태다. 차차리 흥이 쏙이 닳아!

9 배우자를 고를 수 없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지증왕의 거시기 길이가 45cm라 왕비를 구할 수 없었고, 맞는 시이즈의 여잔란 처다 보니 일교도 안 되고 키 2.3m의 거인 박씨를 무인으로 맞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뭐, 맞는 지를 봐가 있어야 열쇠를 쓰지

10...



왜 지증왕 이야기가 뻔한 것 같아?

WORST VALENTINE'S DAY

너나 가져, 이만 가.



자신 속살이 덮고 촉촉하리

초콜릿 대신 총알을

벨런타인데이 대항남

연초년 2월 14일 아침, 시야의 한 거미에서 전설의 경 알 카모네의 부하들이 경찰 차림으로 생체 경관을 급습했다. 미치 말주 수색을 나온 경찰차림 경찰들을 차고 앞에 세운 알 카모네의 부하들은 기린총으로 그들을 강타했다. 당시에 모두 알 카모네를 무서워해 경찰을 포함한 누구도 이별 문제 삼지 못했다.

죽음의 삼각관계

2007년 벨런타인데이(호주 시골 마을)에서 한 남자는 4명씩 죽음을 해운 남자에게 초콜릿 대신 뜨거운 총알을 선사했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의 불륜을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락매질에 여성이 입자 눈물이 뒤집어 내연남을 살해했다.

초콜릿 대신 (사람과 전쟁)

중국의 벨런타인데이 이혼

중국에서 작년 한 해 벨런타인데이에 걸맞은 모든 부부 중 100쌍이 이미 이혼했으며 대부분은 6개월을 넘지 못했다. 어떤 편은 물론이건 결혼 수속을 마치고 영기 부모를 만나 일단 몸을 뉘던 뒤 오우에 이혼했으며 심지어 결혼 수속 조곤 후 이혼한 사례도 있다. 벨런타인데이 이혼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몰래는 다르게

변노의 카페, 죽음의 과식

인도의 한 카페이 결혼을 앞두고 행복했던 벨런타인데이를 맞아 즐겁게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남자가 아비 증상을 보였다. 이어 약화되어서 커피를 들고 바로 옆 매저르했다. 남자의 헤어핀 전 연인이 질투와 분노의 욕망에 제라르 물음 글로 보살 삼았을 게확한 것 결국 남자는 사망했고 입맛이 없었어 식사를 정제 한 인노는 가짜로 살았다.

2011 WINTER MEN'S GROOMING SOLUTION

남자의 피부는 여성의 피부와 여러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성의 피부상태에 따른 특별한 한 케어 제품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건조하고 실낱이 허옇게 일어나기 쉬운 계절에는 보습력이 좋은 세안제와 공급관리 그리고 보습력이 우수한 로션 제품을 사용하는 것 잊지 말자 하지만 아무 로션이나 바르는건 아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고 국내외 그루밍 기업이들이 추천하고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나보자



프랑스 명품 에스텍틱 남성 스킨케어 이세오 옴므

이미 프랑스,미국,독일을 비롯한 세계 2천여개의 고급 스킨 케어 상품과 파리 컬러의 리아미에와 프랑켄 맥화장에서 판매하여 각광을 받고 있는 프랑스 에스텍틱 남성 화장품 Isseo HOME. 기술과 원료를 모두 자체 제작한 100% 순 식물성 무알콜 알코올로 여성보다 두꺼워 피지분비가 많고 주름지기 쉬운 남성피부를 정확히 이해하여 각각의 제품군에 함유된 액티브한 원료의 효율적인 적용으로 화장의 품질인 남성 전용 스킨케어가 탄생하였습니다. 제품 문의처: www.isseo.co.kr



2011 WINTER MEN'S SKINCARE TIP

건조하고 온도가 낮은 계절은 피부의 많은 양의 수분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해줘야 주름 및 피부노화를 예방할수 있으며 맑은 피부를 유지 할 수 있다. 각질이 쌓이면 거친피부상태 현상이 된다. 일주일에 한번은 모공관리 팩을 이용해 각질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자. 남자의 경우 귀를 청결, 머리, 스타일러스는 주름을 촉진하고 피부탄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좋은 재료로만 만들고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후 인디레이징 제품을 사용하자

CLEANSING 각질과 노폐물은 세제의 힘을 빌려

MOISTURIZING 충분한 수분과 보습으로 피부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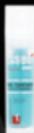
ANTI-AGING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주름을 예방하자!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 블랙헤드 제거하고 넓은 모공을 조여준다

프랑스 아자르 그린 클레이 페이스프
FRANCE AZAR GREEN CLAY PASTE

피지블랙헤드,모공속 노폐물을 완벽히 제거하는 100% 프랑스 천연 98%!



넓은 모공을 관리하고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고농축 비타민C 토닝젤!

이세오옴므 토닝젤 비타민C
Isseo Homme Toning Gel Vitamin C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 및 수분공급에 한층 생기가 있고 환한 피부로 가꿔주는 스킨+로션+에센스 3 in 1



주름지고 탄력없는 피부에 강력한 천연성분이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페이스 리제네레이팅 안티에이징 콤플렉스
Face Regenerating Anti-aging Complex

피부 주름을 감소시켜 피부의 탄력 증가시켜서 처지고 탄력없는 주름이 많은 피부에 큰효과를 보실수!



문세성 피부의 유수분을 잡아주고 트러블을 잡는 강본의 세안제!

이세오옴므 pH 클렌징밤
Isseo Homme PH Balancing Cleansing Balm

세안 후 건조함이 노폐물을 제거해주어 피부에 보습력을 향상시켜 메이크업 피부로 가꿔줍니다



강력한 보습효과로 손상된 피부에 침투하여 피부를 오옴므하게 합니다

올트라 모이스처라이징 6 in 1 페이스 클로미드
Ultra Moisturizing 6 in 1 Face Fluid

건조한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여 오옴므한 촉촉함과 피부의 탄력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주름지고 안티에이징 어드밴스 눈가를 생기고 밝게 돌려 주는 유키눈 아이크림!

프러시온 3 in 1 Eye Fluid
Prishion 3 in 1 Eye Fluid

다크서클과 주름진 눈가를 생김하게 해주어 피로로 인해 어두워진 눈가부를 환하게 가꾸어 줍니다

프랑스 프리미엄 오가닉 남성 스킨케어 66° 30

화학적첨가물도 사용하지는 당산의 피부, 자연으로 생기기때 숯유질 함유합니다. 남성 전용 스킨케어로 유일한 에센스와 보스케비오 유키눈(눈)을 특화된 고농축 프러시온 유키눈 남성 전용 스킨케어, 66도 30은 2000부피 떨어진지 아무도 수상에 빛나는 특색적인 농축에서 제법한 특별한 화상급의 향료 특허생물 아반셀드 프러시온 화상급수주의 장점이 원료면 강력한 피부개선효과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문의처: www.isseo.co.kr



MAXIM 입사시험 II

지난달에 이어 2010년 1월 초 실시했던 MAXIM 입사시험 필기 문제가 나머지를 모두 공개한다. 여기 나온 문제들을 어려움 없이 풀어낸다면 당신은 MAXIM 에디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 만약 다음번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 나온 문제를 풀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바란다. (2010년 1월 당시의 이슈를 소재로 해서 출제된 거라 지금도 정답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최승합니다.

지난달에 실린 1~25번 문제 정답자가 답당 에디터의 여자가 없는 실수로 전부 잘못 표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차심사하려고 문제를 풀어난 후 이상한 정답에 고개를 갸웃거렸을 모든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난달 문제 1번~25번의 올바른 정답을 다시 표기하였습니다. 엄청난 에디터를 둔 편집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26.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서 4대강이 아닌 것은?

- ① 한강 ② 낙동강
③ 섬진강 ④ 금강

27. 펌프와 거리가 먼 용어를 고르시오.

- ① 집단지성 ② 위키미디어
③ 롱테일 법칙 ④ 파레토 법칙

28. 다음 중 조선시대의 왕이 아니었던 사람은?

- ① 이산 ② 이도
③ 이방원 ④ 이허음



29. 다음 중 제5공화국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 ① 전두환 대통령 취임 ② 6월항쟁
③ 광주민주화항쟁 ④ 800시간개입

내가 고지라!!!



30. 다음 중 형벌상의 죄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비담은 덕만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 폭행죄
② 미실이 춘추의 남성을 발로 차 고지라 만들었다 - 중상죄
③ 유신이 덕만에 관한 나쁜 소문을 냈으나 그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 명예훼손죄
④ 알찬량은 선덕여왕이 맡겨둔 돈을 슬쩍 빼들었다 - 배임죄

31. 다음 중 3권 분립의 주체 중 하나인 것은?

- ① 국정원 ② 청와대
③ 행정부 ④ 헌법재판소

32. 다음 중 공무원과 그 임기가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 3년 ② 국회의원 - 4년
③ 대통령 - 4년 ④ 대법원장 - 6년

33. 다음 중 검찰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감감사는 산장원을 기소했다.
② 박검사는 신청서에 대해 구속영정을 발부했다.
③ 최검사는 살인혐의로 강호수를 긴급체포했다.
④ 정검사는 발바리를 집기위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다.

34. 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것은?

- ① 표현의 자유 ② 거주 이전의 자유
③ 사생활의 자유 ④ 양심적 병역 거부 of 자유

35.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곳이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 ① 시타 태나도 나만 배려.
② 나의 말투를 들으니 심한 곤욕을 당한 것 같구나.
③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할까?
④ 살레이는 내 사랑인걸요.

36.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변변치 않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 ① 양두구육(羊頭狗肉)
② 각자무차(角者無齒)
③ 이진안수(俄田引水)
④ 목불견근(目不忍見)



37.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솟음 ② 그나눔 ③ 짜깁기 ④ 해님

38. 다음 성유 중 흡습성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나일론 ② 폴리에스테르 ③ 양모 ④ 아크릴

39. 다음 문장의 주어 상태를 나타내는 색은?

자옥은 순재의 데이트 요청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 ① 피랑, 보라 ② 주황, 자주 ③ 자주, 피랑 ④ 녹색, 청록



40. 드레스 셔츠를 구입하려 했다. 다음 중 구매하지 말아야 할 옷은?

- ① 몸에 잘 맞는다.
② 칼라의 좌우가 편편하게 잘 놓였다.
③ 바느질 솔기의 넓이가 맞고, 가장자리 처리가 깨끗하다.
④ 단추를 모두 잠겼을 때 목 부분은 손가락 한 개 정도 들어간다.

41. 다음 중 브랜드와 디자이너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① 3.1 Phillip Lim - Phillip Lim
- ② Christian Dior - Christian Lacroix
- ③ Dior Homme - Kris Van Assche
- ④ Burberry Prorsum - Christopher Bailey

42.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April 77 - 1978년 스케이트보드 의류로 시작하여 합법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 ② O-EARFONDAY - 해골고로 이미에 있는 구루로 된 십자가는 종교에 의한 전쟁을 반대하는 뜻이 담겼다.
- ③ SLUSSY - 서피인 손 스투시(Shawn Slussy)가 자신의 시인을 티셔츠에 프린팅한 것을 판매하면서 브랜드가 탄생했다.
- ④ HENK VESKOV - 다양한 컬러 조합과 틀에 박히지 않은 디자인이 특징으로, 한국에서도 패션을 잘 연 적이 있다.

43. 인도, 페르시아에서 지라는 식물을 모티브로 한 작은 불발울무리로,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이 패턴의 이름은?

- ① 도트 ② 체크 ③ 페이지리 ④ 스트라이프

44. 장동건이 1층에서 4층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초다. 1층에서 9층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가? (단, 장동건은 등속도 운동을 한다)

- ① 72초 ② 81초 ③ 96초 ④ 108초



45. 서점주인 17명이 MAXIM을 3권씩 나누면 4권 이 남는다. 12명이 5권씩 나누면 몇 권이 부족하니까?

- ① 2권 ② 3권 ③ 4권 ④ 5권

46. 포미진 멤버인 지현, 자유, 현우, 소현이 다섯 개의 의자에 일렬로 한 사람씩 앉았다. 맨 왼쪽 의자에는 자유가 앉았고, 왼쪽에서 세 번째 의자에 현우가 앉아서 웨이브를 연습하고 있다. 지현의 오른쪽에 막내 소현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왼쪽에서 두 번째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 ① 지현 ② 소현 ③ 자유 ④ 현우

47. 다음 아래 진술과 논리적으로 동등한 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 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다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 ②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 ③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 ④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조금 불행한 거예요.

48.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0cm, 15cm이고 높이가 6cm인 벽돌을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몇 cm인가?

- ① 20cm ② 25cm ③ 30cm ④ 36cm

49. 아래 뉴스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은?

Jessica Bull "Kicking Bull" on Mt. Kilimanjaro Climb
By Joanne Fowler January 09, 2010
A star-sludded group including Jessica Biel and Into the Wild star Emile Hirsch endured torrential rain Friday during the second day of climbing the 19,340-foot Mt. Kilimanjaro, Africa's tallest peak, to raise awareness of the global water crisis. "But it cleared up and we hiked up," Elizabeth Gore of the United Nations Foundation tells PEOPLE by satellite phone. (출처: people.com)

- ①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사가 바뀐다.
- ② 칼리만차로산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 ③ 유엔재단의 직원은 위성 전화로 이용했다.
- ④ 등산 두 번째 날엔 비가 왔지만 곧 개었다.

50. 다음은 영화 <샤인의 황당한 저주>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Trivia for <Shaun of the Dead>
- Many of the Zombie extras are fans of the TV series Spaced (1999), which also starred Simon Pegg and Nick Frost and was also directed by Edgar Wright. They were recruited through the Spaced Out fan web site to be in the film.
- The game that Ed is playing throughout the movie is Timesplitters2 (2002) (VG). (출처: imdb.com)

- ① 이 영화에는 좀비가 등장한다.
- ② 좀비 액트2라 불리는 사이먼 펙, 닉 프로스트 등이 있다.
- ③ 이 영화에는 게임 <타임스플리터2>가 나온다.
- ④ 이 영화의 감독은 원작 드라마의 감독도 맡았다.



2010년도 상반기 MAXIM KOREA 신인사원 공개시험
1교시 객관식 및 단답형, 악술 문제 답안지, 채점표

성명	수험번호	차량 응시분야
26	3	31 3 36 1 41 2 46 3
27	4	32 3 37 1 42 1 47 3
28	4	33 2 38 2 43 3 48 3
29	3	34 4 39 2 44 3 49 1
30	4	35 2 40 4 45 4 50 24

* 50번은 중복 정답

1월호 1번~25번 문제의 정답

질문 표기된 자나/질 문제의 올바른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을 알려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지적해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잉글랜드,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다음날을 휴일로 삼고 대규모 세일을 하며 프리마켓이라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3~4일 간격으로 많은 장기가 열리는 12월 말 일정을 의미한다. 이후의 이름은 무엇인가?

- ① 사커데이 ② 퀸스데이
③ 북성데이 ④ 벵크데이

2. 2009년 프로야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기아 타이거즈는 전신 해리 타이거즈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지 12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다.
② 시즌 타율 1위는 투수의 김현수 선수다.
③ 골든글러브 투수 부문 수상자는 기아 타이거즈의 용병 로제즈다.
④ 정규 시즌 최종 동점권 기록한 팀은 롯데 자이언츠다.

3.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와 팀 이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기성용 - 셀틱
② 박지성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③ 이창용 - 불턴 웬탈러스
④ 조원희 - 풀럼

4. 다음 중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아닌 곳은?
① 오스트레일리아 ② 이탈리아
③ 미국 ④ 캐나다

5. 추신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추신수는 이태호에 이어 두 번째로 20홈런·2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② 동양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했다.
③ 추신수는 2000년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했다.
④ 월드컵 주전 외야수로 뛰던 지 2년 만에 3할의 타율을 기록했다.

6.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 우리나라는 2010년 월드컵까지 ()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 남북한이 월드컵 본선에 동반 진출한 건 총 ()회다.
- 이탈리아는 월드컵에서 총 ()회 우승을 차지했다.

① 9 ② 10 ③ 11 ④ 12

7. 다음 스포츠 스타 이름과 활동 분야가 짝지어진 것은?
① 우사인 볼드 - 쇼트트랙
② 로저 페더러 - 육상
③ 헨스 앙스트롬 - 사이클
④ 마이클 펠프스 - 야구

8. 영화 제목과 그 영화의 감독 이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 ① 천우치 - 최동훈
② 이바타 - 제임스 카메론
③ 국가대표 - 김지운
④ 미더 - 봉준호

9. 다음 시상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할리우드 외산/지배권에 서 수여된다.
② 2009년 로테르담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은 '질투는 나의 힘'으로 타이거상을 받았다.
③ 매년 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샌프란 영화제는 인디 영화제이다.
④ 인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출발하였다.

10. 협동 감자에 쓰이는 질소 해태로고의 회원들로, 과산화수소나 하이포염소산염 등으로 산화하면 지상색 발현을 유도한성을 보이는 이 물질의 이름은?
① 루비움 ② 타이플루
③ 탈크-루저 ④ 셀레늄

11. 다음 중 현재 가장 멤버가 많은 그룹은?
① 에프티스쿨 ② 2AM
③ 비스트 ④ 타이타

12. 주로 미국 유명 스티플의 가스를 다루며, 이호리 박명, 2대 등 한국가수들 소개하기도 한 미국의 유명 연예 블로그 이름은 무엇인가?
① Perez Hilton.com
② celebritypukes.com
③ celebritiestone.com
④ gossipgirl.net

13. 다음은 오디오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물이다. 이중 공통점이 없는 인물을 고르시오.
① 수전 보일 ② 폴 초츠
③ 사인곡 ④ 사이먼 코벨

14. 각 바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현재 멤버로 맞는 것은?
① 청춘불패 - 가인, 호민, 싸, 유리, 구하라, 현아, 현석
② 무한도전 -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전진, 정형돈
③ 찬하무적 야구단 - 이태훈, 임창정, 김광필, 오지호, 마르코, 윤정현, 김성수, 조빈
④ 백악기 - 강호동, 은지원, 이수근, 김홍민, 이승기, 김C, MC몽

15. 다음 보기 중 같은 그룹 멤버로 이뤄진 것을 고르시오.
① 2AM - 조권, 승연, 준호, 창민, 규현
② 사이리 - 은유, 종현, Key, 민호, 태민
③ 2PM - 준수, 다크, 택연, 우영, 진모, 찬성
④ 소녀시대 - 권유리, 이소유, 서주연, 임유아, 최수영, 김효연, 김태연, 정수연, 김건아

16. 다음 중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은?
① 붉은 돼지 ② 이웃집 토도로
③ 이슬비 D ④ 모노노케 히메

17. 다음의 간담 시리즈 중 시대적 배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 ① 간담 M08 초대 ② 포켓속의 전쟁
③ 간담 시드 데스티니 ④ 사자의 약속

18. 다음 중 일본 코믹스에 등장하지 않는 히어로를 선 택하시오.
① 아이언맨 ② 스파이더맨
③ 울버린 ④ 배트맨

19. 200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헤르타 및 알프리드 호프만은 어떤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였는가?
① 지리학 ② 우물한 병고
③ 병학 ④ 항콜로고기

20. 다음 영어 신조어와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매니저에게...(manager) -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연예인의 어머니.
② 우피(wowie) -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풍족하게 사는 노인.
③ 골드만(Goldmanization) - 골드만삭스가 미 금융가를 차지하려는 것.
④ 모건화(Morganization) - JP모건이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해 구조조정으로 재건하는 것.

21. 고도 7천미터의정서를 대체할 새 국제조약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정상들이 모여 온살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회의는 무엇인가?
① 트리 회의 ② 코펜하겐 회의
③ 람사 회의 ④ 리우 회의

22. 다음 중 회계 단위와 쓰이는 곳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우동 - 카우보이 밥방
② 골드 - 다이블로
③ 레드 - 단칸방아파트
④ 인테달리 - 세컨드 라이프

23. 2010년의 동경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국경일 공휴일 백선은 고유공작자 청병도 평가제도를 통해 크게 차등되었다.
② 김현준과 최승희는 여권발급수도를 각각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③ 미스타리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을 방문하여 빈칸세일 티셔츠를 득템했다.
④ 진시우는 소녀시대 데뷔 2주년 팬미팅에 참석했다.

24. 인물과 그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1971년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적 있다.
② 심비오 베틀루스스키 이탈리아 총리는 이라크 기자가 편집 심비오에 맞은 적 있다.
③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여성 편력 때문에 무기한 골프를 중단했다.
④ 마누엘 셀라이는 쿠데타로 은두라스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25. 국회에서 장시간 연설, 생각 없이 모든 정식 절차 요구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패스트트랙 (Fast Track)
② 필리버스터 (Filibuster)
③ 크로스보팅 (Crossvoting)
④ 래임덕 (Lame Duck)

HOT DATE

CIRCUS
MAXIMUS

또 까분다.

WELCOME TO MY ROOM!

그녀를 방에 초대하기 위해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들

중처럼 넘어오지 않는 그녀가 당신의 공간을 빙문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반하게 만들
아주 쉬운 방법. 게다가 무척 유니크하여 다른 남자들은 아예 따라하기도 힘들 거대
오직 MAXIM 독자들을 위해 준비했다. by 이영미

STEP 1

이빨을 까라

여자들은 지적인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나 잘난 체하고 말 많은 남자는 싫어한다. 반면 말이 너무 없는 남자는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자질 무습게 본다고 생각한다. "남기미, 어느 장면에 맞추린 말인가?"라며 화부터 내지 말고 잘 들어라. 그녀와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면 적당한 타이밍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무심한 듯 톡 던져보자. 너무 자신의 식견을 보여주려고 애쓰지도 마라. 여자들은 잘 모를 만한 유머 섞인 상식 정도면 된다. 싸먹을 만한 내용? 당연히 MAXIMI 밥상 다 차려놔지

OPENING**TALK****ENDING****NOT BAD****VERY BAD**

기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거?

그것도 알아요? 나에게 이런 기본 느끼게 한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

나의 동정을 뽐 첫 여자가 되어주세요.



비행기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은 조종석과 꼬리 부분이에요.

당신 눈빛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내 마음으로 인정받기가 필요하겠어요.

하이아이아이아이아아... 내 평생 언제쯤이면 비행기를 탈볼 수 있을까요?

공수적으로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는 1분의 1초래요.

하지만 당신에게 내가 빠져드는 속도는 그 단위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1자의 통그라비는 24개 영어로는 악토, 또는 육토라고 읽고 철자가 y-o-o-c-a-에. 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수는 큐어더라고, 예. 또, 이봐 내 얘기가 재미 없나?

사람 몸 중 맨손으로 매려죽이기 가장 좋은 부위는 기골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여자에게 미소만으로 날 죽였다 싶었다 하는 거죠?

꼭 좀 이쪽으로 대볼래요?

지금 보이는 저 달에 플루톤 행성이 밝혀있어요.

안 보인다고요? 제 마음 속도 보이지 않지만 늘 당신이 있어요.

안 보여요? 장남이에요? 이제 보인다고요? 오빠는 거짓말쟁이 싫어해요.

모기는 25m 밖에서도 당신의 피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수십km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 있죠.

존나 싸우 장한 새끼죠.

평생 동안 당신이 잡지는 이년아, 왜 눈을 바꾸 쓰질 못해 시간은 23년이에요.

그중 1년 정도는 나에게 투자해 봐요. 1초도 아깝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퍼 지나니까 니가 발정어 없는 거예요!

실현실 깃바퀴 속 뛰는 허룻밤에 8km 이상을 달린대요.

저도 오늘부터 밤마다 꿈속에서 당신을 찾아 미러몬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매일 달리면 OO씨 몸에도 완전 달라질 텐데.

“그거 알아요?”

침은 어디에 들까?



엉덩이 털을 민다

이것이야말로 더러 남성과 당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유니크한 방법!
(그리고 사실 그녀가 '그' 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어쩔 수 없이 공영이를 들이밀게 된 위급 상황에서 그를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 1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라.
- 2 당신의 뒷문을 따뜻한 물로 씻고 세이빙 램을 발라라. 보듬보듬한 그 감촉, 아주 심신 안정이지?
- 3 아할, 화장실 문은 잠가라?
- 4 아차차, 다시 한번 확인하자. 여동생이 이런 당신을 보면 눈물과 분노의 뽕따대기를 날릴 거다.
- 5 면도칼을 들고 바깥부터 안쪽으로 쓸어올리듯 민다. 흉고에서 피날라, 조심하라.
- 6 거품과 함께 당신의 귀고 꼬부라진 공영이 털을 잔뜩 입에 문 면도날을 물에 깨끗이 씻는다. 면도날이 무더져진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그 귀한 엉덩이를 쓸 무렵 날카로운 면도날로 긁어주는 걸 잊지 마라.
- 7 손거울로 당신의 공영이 상태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탭글렘글한 엉덩이에 감탄하며 면도를 마무리한다.

오빠가 나뉘어!



더 벗으려면 벗겨요.



STEP 2

- 8 앞코를 성분이 든 로션을 바르면, 엉덩이에 염증이 생기고 털이 살 안쪽으로 자라는 걸 막을 수 있다. 좀 따가울 거다. 아할 이렇게 따갑고 위험한 칼질을 할 게 아니라 제 모자를 쓰는 게 훨씬 쉽고 피부에도 덜 나쁘잖아? 뭐,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이화하하하!

갑에서 동생새 나오!



STEP 3 밤꽃의 흔적을 치운다

그녀가 왔다. 자, 그녀의 레이더에 당신의 지적 수준과 교양 수준을 한눈에 보여줄 책꽂이가 들어온다. MAXIM 같은 고급 교양 서적은 가장 앞에 진열했는데도 괜히 긴장 타게 되지? 간밤에 불러들인 아сыл, 아동 속 밤꽃 요정의 흔적을 들쭉거리며 식은땀이 나냐?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아래 그림을 사이즈에 맞게 컬러 복사하여 문제가 될 만한 책이나 DVD에 써우자.

INSTANT SMART GUY
당신은 스마트가이!

GIRL-FRIENDLY GUY
당신은 스위트가이!

오리기	세익스피어 다시 읽고 또 읽기
	최고의 프루민 아는 상공의 열쇠
	지구온난화로 위는 세계경제 포클
	JUSTICE 정오엔 도대체 무엇이랄 말인가
	대한민국 0.000000000001%
	Rich Dad, Poor Dad
	2011 경제 전망
	THE POWER

오리기	여성에게 최고의 레플을 인겨주는 법
	나에게 딱 맞는 운명의 인터리어
	할라 손뜨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시 100선
	연인을 위한 마사지 비법
	제이슨은 밤자의 문새이 손글 복기
	어린 왕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 있는 선

: 없는 선

김규열 선장 구출 작전



역류자

이름: 김규열, 해상 생활 선박 근무 25년, 선장으로 17년, 근무
생년월일: 1960년 8월 20일생
본직: 전산 여수시 중화동 1111-7호
가족관계: 없음(5년 전 이혼함)
학력: 전라도남도 여수중 국민학교 졸업, 여수중 중학교 11회 졸업,
여수 수산 고등전문학교(현재 여수대학교) 항해과 65회 졸업



MAXIM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김규열 선장의 최근 모습

역류범을 초소리는
김규열 선장의 친필 편지 내용 전문은
이벤트 QR코드를 스캔하면 볼 수 있다.

사건 개요

2009년 12월 17일 오후 3시경, 김규열 선장은 필리핀 마닐라 시에 위치한 하리손 플라자 내 식당 '차오킹'에 밥을 시러 갔다가 '잠시 조사할 게 있다'는 사복 경찰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아무 것도 모르고 끌려간 그는 필리핀 경찰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뒤 미약 운반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째 감옥에서 살고 있다.

김규열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그릴수록 돌아오는 것만 덩그러니 심한 구타뿐이었다. 필리핀에서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돈을 요구하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규열 씨는 평소 몸무게가 95kg까지 나가 '똥보 선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강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의 식사와 마음 고생으로 인해 30kg 이상

살이 빠진 상태다.

- 실제 그의 나이는 50대지만 억울한 누명과 열악한 감옥 환경 때문에 사건 속에서는 70대로 보인다.

- 인건이 도저히 먹지 못할 개밥 수준의 식사가 제공되지만 그는 살기 위해 억지로 먹고 있다. 김규열 씨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소금과 간장을 지목했을 정도니 어느 정도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 양치질을 할 처분조차 없는 나머지 그는 자신의 손으로 씌운 이빨 세 개나 뽑아야 했다.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은 자신이 보내준 생필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김규열 씨는 연료가 달는 지인이 있어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절실한 상황이다.

- 이 사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김규열 선장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조광현 씨에 의해 비로소 알려졌다. 조광현 씨는 살인 누명을 쓰고 5년 동안이나 그곳에 갇혀 있다. 정부도, 언론도, 도금 운동 단체도 아닌 한 개인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났다.

우 풀려났다.

당신이 해야 할 일

1. 외교통상부 자유게시판(<http://www.mofat.go.kr>)에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요구하자. 단, MAXIM 독자다운 교양 있는 자세로 한 사람이 게시물을 도배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삼가라.
2. 필리핀 대사관(philippines@mofat.go.kr)에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라.
3. 이제 당신의 주먹기를 발휘할 시간이다. 이 사건을 전국방방곡곡에 알리자. 미디움과, 블로그, 트위터에 올리든 인스타그램을 내든 있어서 접하려면 믿는다.

* 더 자세한 사건 개요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할 것 위 주소를 입력해 타이핑하기 귀찮은 게든든하게 주먹기를 위해 링크도 걸어 놔다



김규열 선장을 구하기 위해 먼저 독자용 MAXIM 독자의 연한 전선을 지원한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MAXIM 독자들의 연호와 같은 도움을 기대한다.

만지일보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RUN, PANTIES, RUN!!!

걸스 슈퍼볼 LFL

땀, 미녀, 액션, 그리고 공놀이. 뭘 더 바란니?



LFL

그저들이 가진 숨을 내쉬며 공을 들고 뛸 때마다 린제리 속 가슴이 출렁이고 엉덩이가 넘실댄다. 당장은 그저 의자에 등을 감속이 파묻은 채 한 손엔 시원한 맥주를 들고 TV 앞에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된다. 이런 천국이 매주 금요일 밤 1시 XTM (걸스 슈퍼볼 LFL)에서 펼쳐진다.

LFL은 '린제리 풋볼 리그'의 줄임말이다. 원래 미국 최대의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의 하프타임 스페셜로 마련된 단발성 이벤트로 시작했다. 2003년 시작된 이 멋진 스포츠는 현재는 수백만 명의 유료 시청자 군단을 TV 앞에 묶어놓는 시청률 도둑으로 전 세계 86개국 수컷들의 눈을 사로잡은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각 팀의 코치는 NFL, 선수나 코치 출신이 대다수다. 올랜도 핀타이의 수석 코치는 NFL 올랜도 프레데터스의 수비 스페셜리스트로 이름을 날렸던 전직 프로 선수다. LFL의 선수들은 다양한 운동 경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대학 선수나 세미 프로급 수준의 달리기, 테니스, 배구, 소프트볼, 축구, 농구, 보디빌딩 선수 등이다.

UNIFORM

풋볼이 뭘? 물러도 상관없다. 선수 이름? 한 번 보면 자동으로 외워진다. 500년도 실내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린제리 풋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장이다. 자, 복장 검사 한번 해보자.

아이스하키 스타일 헬멧

결론 가리개

어깨 패드

발꿈치 패드

브라

팬티



가터밴드

무릎 패드





FORMATION

각 팀은 20명의 선수로 구성되는데, 당일 경기에서 뛰는 선수는 총 14명이다. 각 팀에서는 7명의 선수가 뛰는데 3, 4명인 오웬스와 디펜스를 나눠 맡는다. 보통의 공격 포메이션은 쿼터백 1명, 러닝백 2명, 센터 1명, 그리고 3명의 리시버로 구성된다. 수비 포메이션은 디펜스비트 라인맨 2명, 라인백 2명, 코너백 2명, 그리고 1명의 세이프티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하지 않았다. 어차피 풋볼에는 관심도 없잖아!

하버드 경기 방식은 다른 풋볼과 동일하다. 공을 들고 미친 듯이 돌격해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존까지 쳐들아가는 거다. 이 무식하고 원시적인 경기에 우리가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당연히 공 하나를 두고 아무 덩벙드는 아가씨들의 영예야 때문이야! 그렇다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실제 LFL 경기에서는 마린체를 쥐어 잡는 것은 예사요, 린체리 입은 아가씨들은 남자 못지않은 거친 태클을 보여주며 피끓는 스포츠의 흥분을 제대로 보여준다. 그 녀들의 키크오프는, 달려만 있지 제 구실 못하는 당신의 주니어보다 더 뜨겁고 거칠다.



걸스 슈퍼볼 LFL

채널 XTM

시간 분방송: 금요일 밤 12시

재방송: 화요일 밤 25시
(수 새벽 1시)



가슴구경





PHILADELPHIA
PASSION



심나는 알까기!!

NEED BEER!

한 경기는 각각 17분씩 2편의 하프를 나누며 중간에 15분짜리 하프 타임이 있다. 경기 타이틀이 이루어지면 8분짜리 서든데스 추가 경기 시간이 주어진다. 즉 맥주 1~2병을 훌쩍이며 경기로 보다가 중간에 방광을 비우고 새 맥주와 스낵을 준비해올 시간까지 고려한 최적의 경기 타임이라는 말이다. 이런 친절한 사람들 같으니 리그의 창설자는 "맥주를 몰차럼 마시는 2세 대학생이 타겟"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엔 최적의 스포테인먼트라는 이야기

이 리그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최소의 유니폼을 자랑한다"는 거다. 실제로 NFL은 옷을 너무 많이 입고 나오는 선수에게 벌금을 주는 등의 행위로 승사에 휘둘리기도 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 무를 골지 않고 재발 NFL이 전진, 또 전진하여 국내에도 정착하길 간절히 바라는 바다. MAXXI이 그들과 함께 할지나.

201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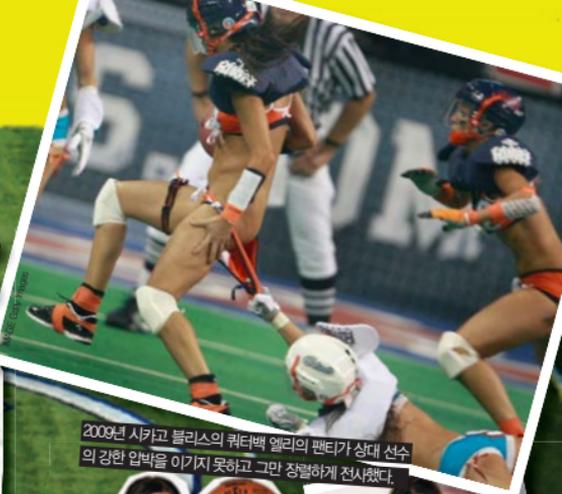
NFL은 2010년 두 번째 정규 시즌을 맞이하여 올랜도 판타지와 볼티모어 철 이 두 팀을 새 식구로 들였다. 총 30개의 팀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다.



바닷가 근처에 못 사는 것도 시원인데 NFL 팀도 없는
대륙 한가운데 사는 저 애들 참 불쌍하지 않나?



자녀 8월 시즌을 키프하여 오는 2월 6일 아쉽게 막을 내리는 이번 시즌에서 주목할 팀은 동부 리그의 탬파 브라즈와 필라델피아 패션 그리고 서부 리그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템테이션과 시카고 불리츠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템테이션의 전신 팀 드림 은 2004년 슈퍼볼의 하프타임 경기에서 상대팀 팀 유프라이를 6 대 0으로 꺾은 저력 있는 팀이다(참고로 팀 드림은 템테이션과 밀러스 디자인어와 시카고 불리츠.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누었다). 오는 1월 29일 동부와 서부 리그의 챔피언십이 열리며 두 리그의 최강자끼리 붙는 라제리 볼 챔피언십은 2월 6일 슈퍼볼 하프타임에 벌어질 예정이다. 채널 고정



2009년 시카고 불리츠의 쿼터백 엘리엇의 팬티가 상대 선수의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장렬하게 전사했다.

터질 듯한 이 아가씨들 중 진짜 NFL 선수가 아닌 사람이 들어있는 사진은?

1



2



3



5



4



CABLE TV 시리즈물

이것 때문에 봐준다!

그녀나 <킬스 슈퍼볼> 페이지를 보다가 매기 큐 가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 BY 이영비



WOMAN+ACTION

니키타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매기 큐의 모노카니

수영복과 칼질의 장면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아찔한 의상 속 아찔하지 않은 가슴과 매기 그건 집에 놓고 왔어?

OCN
목방송
수요일 밤 11시
재방송
수요일 낮 1시

국내 케이블에서는 이래적으론 순간 최고 시청률 2366%를 기록한 매기 큐의 액션 시리즈 <니키타>는 1990년 못 남성성을 살리게 한 락 배송 감독의 영화 <니키타>를 리메이크한 TV 시리즈다. 이 영화는 이미 1997년 드라마로 리메이크될 만큼 인기가 많았다. 90년대를 모르는 어린 꼬마들에게 <니키타>를 한마디로 설명하려면 능숙한 여자 칼사가 막 붙는 옷을 입고 총질, 발길질을 하는 첩보물 이라고 할 수 있다. 개캐린 손에 대형 매그넘 권총을 든 그 모습을 잊지 못한 팬이라면 볼 만하다. 폭발도 원조가 낫고, 원조 니키타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위태로운 매력녀였는데 비해 매기 큐에겐 그런 맛이 없다는 게 흠. 하지만 확실히 매깰이 더 좋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무엇보다 액션이 꽤 재밌다.



니키타 보기



아름다운 가슴결은
짐에 두고 나왔더!





2월 9일
첫방

ENDLESS HOLMES LOVE

셜록 홈즈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탐정물은 일단 TV에 나오면 그냥 보게 된다.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남남 커플은 그냥 안 보게 된다.

명탐정 셜록 홈즈와 사실 그보다 시대를 해결하는 데 더 일이 일조하는 닥터 왓슨. 이 커플은 이미 소설 밖으로 나와 영화와 TV로 활동 영역을 넓힌 지 오래. 이제 2010년 영국 BBC에서 인기리에 방영하던 GTV 시리즈를 우리나라 케이블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인 터넷과 택시, 아이폰 앱 등을 이용하는 현대판 셜록 홈즈 커플의 활동이 기대된다. 케릭터와 배경을 현 대화한 이유는 과거 그들보다 싸게 먹여 주었다. 총 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왕이면 왓슨 역도 조금 색 시한 여자로 바꿔주면 어디 더나나?

OCN
시작
분방송
수요일 밤 11시
재방송
수요일 낮 1시



어릴 봐서 한국판 스파르타쿠스?

야차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서양의 기승이 나올 때, 그리고 낯익기 뻔한 일지만 전하면 뒤 데 영상을 접했을 때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서양 기승보다 남자 식스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았을 때

OCN
시작
분방송
금요일 밤 12시



두 형제의 운명과 복수. 아랑을 담은 12부작 시리즈다. 하지만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남자 가 너무 많아와 남자가 너무 많이 벗어 뵈었다. 쟁 강, 그걸 보고 나면 식욕도 떨어지고 어쩌면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미 화려한 미드에 눈 이 끌든 우리나라 시청자에게 <야차>는 그저 평가 더 많이 나오는 사극일 뿐 한국판 <스파르타쿠스>까진 너무 낯가려운 건만이다.

THEATER QnA

ETIQUETTE IN THEATER

공(연)중 도박 Q&A

공연 에티켓 조급한 일면 당신도 문화인

BY 김민우

Q. 중간에 불이 꺼져서 박수를 쳤는데 같이 아니군요.

A. 불이 꺼지는 것은 연극 효과다. 박수는 다른 사람들이 침례 때 따라 치자. 어둠 속에서 타인의 유희를 바라 고 이 주류라는 것보다 차라리 두 손 모아 손뼉을 치는 당 신이 더 배 낫다.

Q. 공연 볼 돈이 없어요.

A. 해외의 2번 출구엔 경매를 시도해도 다가요는 일반 생활이 많다. 티켓 장가의 99% 일반 세간에 놀라지 마라 면. 공연 팔리라는 보장 안 한다.

Q.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연극을 봤어요. 전화가 와서

했는데 다음 짜리뻐네요.

A. 휴대폰 진동 때문에 무대가 흔들릴 수 있다. 는 건 사 실 행위다. 하지만 일상의 진동 소리도 가늠하는데, 하물 며 주고 보는 공연 시간 중 남의 전화 진동 소음이 들리 면 얼마나 가늠하겠나? 누가 일하면 좀 돌아라

Q. 여친이랑 볼 작품을 추천해주세요.

A. <화랑>을 추천한다. 5명의 꽃님이 아름답게. 당신 보다 100배 훨씬 수컷 몸종이의 시간적 자유이 여친 눈에 건 공짜를 리스한들 것이다. 눈을 땀고 현실로 돌아온 는는 이제 당신의 진짜 내면 만 보고 서로 연애하는 기 분이 들것지 이해해 해져서 헤어져 헤어져 할 거야

PREVIEW



뮤지컬 <화랑>

2월 27일까지, 대원동 열린극장 (02-468-6443)

호빠가 따로 없네, 남자는 돌아가-

신라 시대에서 화랑 오다는데 요인 풍습 몸종이들의 이야기다. 땀을 키우고 살아야는 누님들에게 인기 만점 이다. 소와 뭇남 들보기에 지친 여친에게 선물로 보여주자.



URAKARA: 카라의 이중생활

얼굴 빛이에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들!

당신이 이것을 보는 이유: ONLY KAR!
당신이 이것을 안 보는 이유: 무대에 케미컬이 없애 커리 멤버가 가장과 현실 사이에서 언제 미션을 수행 한다 커리 주연의 일드 <우라카라>가 1월 28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 MNET서 <KARA의 이중생활> 이란 제목으로 방영한다. 멤버들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갖은 애교와 고래를 뽐내한다고 한다. 후자는 손 뽐내 오그라든다고 하지만, 우리 카라가 어찌는 어디 가서 빠지는 애들은 아니기 기대해보자. 규리는 사랑 에 대해 신중함 여인 승현은 연애 타이밍을 중시 여 가는 소녀, 니콜은 로맨티스트, 히리는 타이밍은 정열 을 가진 열혈 소녀, 막내 지영은 냉정한 한수주자로 등장한다고 한다. 우리 지영이 마-이 쉰테.



Fuck her gently

그녀를 법할 땀 상냥하게

This is a song for the ladies

이 노래는 숙녀들을 위한 곡입니다

But fellas, listen closely

하지만 친구들 새겨들으세요

You don't always have to fuck her hard

섹스란 가칠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In fact, sometimes that's not right to do

사실 그래션 아니 될 때가 있지요

Sometimes you've got to make some love

때로는 애정 표현을 해야 할 수도 있지요

And fucking give her some smoochies, too

떡을 치더라도 키스도 좀 해가면서 하구요

Sometimes you've got to squeeze

애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Sometimes you've got to say please

애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Sometimes you've got to say hey

때론 이렇게 얘기해야 해요

I'm gonna fuck you softly

난 널 법할 거야 부드럽게

I'm gonna screw you gently

난 널 떡먹을 거야 상냥하게

I'm gonna hump you sweetly

난 너의 콩을 꿀 테야 달콤하게

I'm gonna ball you discreetly

난 너의 밤이를 핏겠어 시려 깊게

And then you say "Hey, I bought you flowers"

그러곤 그녀를 위해 꽃을 샀다고 하세요

And then you say "Wait a minute, Sally"

또 그녀에게 잠깐만 있어보라고 하세요

I think I got something in my teeth

나 이빨에 뭐가 낀 것 같은데

Could you get it out for me?

당신이 좀 빼줄래?

That's fucking teamwork

그게 빌어먹을 팀워크죠

What's your favorite position?

당신은 어떤 체위가 좋아?

That's cool with me

음, 그 체위도 괜찮겠다

It's not my favorite but I'll do it for you

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너에게 해줄게

What's your favorite dish?

당신은 어떤 요리를 좋아해?

I'm not gonna cook it

내가 직접 만들 건 아니지만

But I'll order it from Zanzibar

맨해튼의 유명 레스토랑 잔지바르에서 주문

해줄게

And then I'm gonna love you completely

그리고 나는 널 온전히 사랑할 거야

And then I'll fucking fuck you discreetly

그리고 나는 사려 깊게 너와 떡을 치겠어

And then I'll fucking bone you completely

나는 온전히 널 따버릴 거야

But then I'm gonna fuck you h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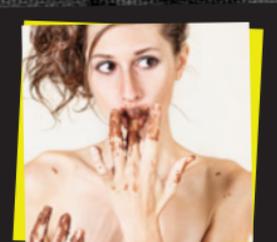
하지만 결국엔 널 아주 가칠게 다룰 거야

Hard

아주 가칠게



'섹스하다'에 해당하는 비속어는 죄다 굵어오는 노랫말을 번역하는 데 적잖이 고생했으니 영어 고수들은 이 발번역을 귀엽게 봐주면 고맙겠다. 가사란 놈을 때는 업? 펄펄함이 꽃피는 "떡 할 쟈들리"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나름 아름답?까지 한 발리도 곡이다. 책 끝에는 이 노래를 "일종의 공익광고다. 우리는 섹스가 펄펄쥬만 뽀세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닌란 사실을 안다. 하지만 포르노를 보면 남자의 몸풀이는 미친 듯이 양복 운동을 하고, 피트니스 여자는 정신을 놓은 리락션을 보여준다. 돈 받고 출연해서 열심히 연기할 하는 간데 이걸 본 아이들은 이게 레알 현실인 줄 안다. "떡 할 쟈들리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 나름의 맞대응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도 이 곡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꼭 한 번 들어보도록!



오랜만에 친한 친구 노래를 다시 들으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별다른 인데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들이 초콜릿을 주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굳어진 건 의미심장한 일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게 상식 아닌가? 남자들 중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초콜릿을 살 돈으로 지출 수 있는 물건들은 어쩌하고 가격에 비해 너무 작고 너무 달고 너무 핏짙스러운 초콜릿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다. 여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연애와 관련한 모든 일은 여자 위주로 돌아간다. 섹스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돌돌이로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 펄펄쥬를 하더라도 그녀는 느끼주지도 않는다. 꽃, 요리, 키스, 해꾸기,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철저하 여자들의 방식대로 가야 한다. 그녀를 법할 땀 상냥하 하다는 쟈느님의 말은 그래서 진리인 거다.

3DS 발매 카운트다운!

당신의 사랑스러운 닌텐도 DS가 오징어처럼 못나 보일 날이 멀지 않았단 소리! by 라산

1 스마트폰 이식틀 안 되겠어!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의 게임 시장은 날이 커지고 있다. 닌텐도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사람들이 휴대용 게임을 손에서 내려두고 게임도 가능한 스마트폰만 즐기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이폰용으로 출시된 게임(앵그리 버드)는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출시되어 스마트폰 유저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게다가 올해 등장할 스마트폰 2세대 격인 넥서스들은 '듀얼코어 칩셋에 지금 출시된 휴대용 게임기를 관망시킬 스펙을 갖고 있다. 엔비디아는 한술 더 떠서 자사의 테그라2 칩셋을 채택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자체 게임 마켓을 오픈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닌텐도의 3DS는 닌텐도 DS로 대표되는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수성하느냐, 아니면 스마트폰에 그 자리를 내줄지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셈이다. 오히려 지 게임부에 무리는 닌텐도 이 바보는 자사의 게임기에 통합 기능을 탑재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언론은 벌써부터 닌텐도의 3DS가 2011년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전자제품이라고 떠들고 난다. 개나 소나 기저를 한다는 세상이지만 그 치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 일리두면 따라 살이 되는 3DS 관련 이슈를 모아봤다.



3DS 게임 보기

2 안경 없이도 화면은 뛰어난게 하라고!

닌텐도의 3D 게임 도전은 아이에 처음은 아니다. 닌텐도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때를 떠올려 패미콤 시절 베풀어 보이라는 희대의 망직을 선보인 역사가 있다. 이후 그들은 '안경 없이도 화면은 뛰어나게 할 것'이라는 보스의 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꾸준한 실험을 해왔다. 이는 사람들이 드루만 2003년 2월 발매된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 어드밴스 SP(닌텐도 DS 이전 버전)에도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역장을 탑재했다. 이후 2007년 9월 발매된 게임큐브에 이어 3D 대응 호환을 실험해 정도였다. 실제로 게임큐브에 전용 액정 디스플레이를 달아 3D 영상을 구현하려는 생각까지 했지만 10년 전에는 3D 전용 액정기 게임기가 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더 놀라운 건 게임큐브와 동시 발매된 '루이저 맨션'이라는 게임에서 이미 3D 화면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사실이다. '루이저 맨션'에서는 게임 영상에서 입체감이 유독 살아 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그런 노력이 이어져 결국 닌텐도에서 원하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입체감이 있는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게임기'라는 테마가 완성됐고, 그게 바로 3DS다. 이 지독한 회사는 남들이 3D를 떠들기 전부터 게임기에서 이를 구현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던 거다. 정말 놀랄!



3 누구 마음대로 입체도를 정하겠어?

지금까지의 3D 콘텐트는 대부분 만든 사람이 정한 입체도를 감상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3DS는 3D 볼륨 스위치를 위아래로 조작하면 유저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입체도(뛰어나은 정도)가 적절한지를 조절할 수 있다. 닌텐도의 대표이사 미야모토 사게루는 볼륨 스위치를 선택한 이유로 "디지탈식의 숫자 입력으로 입체도를 변경하면 지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DS는 게임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영화처럼 사전에 촬영된 이미지는 입체도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진 속 풍경 등은 입체 여부를 'ON, OFF'로 조절할 수밖에 없다.

TITLES

이것만 즐겨도 2011년을 흥하게 해주!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키리나

일본 게임 매거진 (패미콤)의 게임 리뷰 만점을 받은 전무후무한 골격 레이드인 작품이지만 그래픽만 제외하고는 흠 잡을 곳이 전혀 없다. 휴대용 게임기에서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다. 젤다 시리즈의 끝판왕급 게임.



동물의 숲

커뮤 게임으로도 이름 높았던 (동물의 숲이) 3DS로 돌아왔다. 자신만의 집 꾸미기나 한 걸 더 재미있게 하자? 가난한 현상의 집 꾸미는 재미도 이곳에서! 나마 당산만의 스위트 홈을 꾸려보는 건 어때?



마리오카트

당신이 얼마나 하지 않던가 3DS로 등장한 (마리오카트)는 최고의 레이스 게임이 되어줄 거다. (그라투니오) 시리즈의 극 사신급 파워업은 커리가 엄청난 생생한 입체 영상으로 즐기는 레이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 눈앞에서 폭풍 행렬 더 질 고대 맞자!



레이튼 교수 vs. 역전재판

패즈 게임의 종결자 (레이튼 교수) 시리즈와 방정 게임의 끝판왕 (역전재판) 시리즈가 만나다. 이전 마지코브와 강경한 한 사건에서 격돌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임 하나라면 힘이 댈지 댈지 아닌지 알아질 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색을 밝히는 관상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없어도 색깔의
상은 따로 있다. BY 유승민

오로지 육체적인 사랑을 위해 여자를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시대
받은 당신을 만나면서 섹스를 할 생각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가? 당
신은 결국 헛짓거리에 돈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만다. 처음 본 순간
'그래 바로 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방법이 있다. 바로 관
상술이다. 관상쟁이가 될 필요는 없다. 관상학에서 당신이 필요한 것만
발췌해라. 당신은 이제 얼굴만 보고도 낯선 이와의 섹스에 거부감을 갖
지 않는 여자, 섹스를 보통 이상으로 즐기는 여자를 한 눈에 알아보는
특급 능력을 탑재하게 될 거다. 이제 헛도 쓰고, 헛다리를 짚는 일은 없
다. 효율성의 극대화, 관상학이라 쓰고 섹스의 경제학이라 읽어주대!

눈

눈이 큰 여자는 호기심이 많다. 이는 성적인 호기심도 범을 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눈꼬리 끝이 올라간 여자는 그렇지 않은 여자보다 쉽게 섹스를 하는 타입이다. 굳이 관성의학 이야기로 붙지 않더라도 눈꼬리 끝이 올라가면 우리 '섹시한 눈매를 가졌다'고 말한다. 여자들도 화장을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눈매를 살뜰히 염색하여 눈꼬리너머를 쓰지 않아도 원래부터 눈매 끝이 위쪽을 향하는 느낌의 여자가 있다. 타고난 섹슈가 되고 보면 된다.

눈 주변 살

앞서 말한 눈매에 대해, 눈 아래 지방이 많으면 색기가 배가 된다고 한다. 눈매가 올라갔거나, 눈 밑 애교살이 많은 것은 모두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력적인 눈매에 해당한다. 눈두덩에 살이 많은 여자 또한 남자를 몹시 좋아하고 성욕이 강한다. 눈두덩에 비치는 살 색깔이 푸르스름하기까지 하다면 그녀는 실 새 없이 성욕을 느끼는 천하의 호색녀다. 정력에 어지러기 자신있지 않으면 이런 여자는 건드리지 말자. 여자친구로 삼았다간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을 짜내는 통에 몸이 남아 남 일 없들려다. 행만해선 당신 하나만 만족 하지도 못할 거다.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쯤 이런 여자를 만나봐야 하지 않겠나. '허얌게 볼태왔어.'

얼굴색

색녀의 최고봉은 아름다운 연분홍 빛 안색이 도는 얼굴을 가진 여자다. 보안 얼굴에, 볼타치를 하지 않아도 은은하고 발그레한 복숭아 빛이 비치는 여자는 아름다운 외모에다 색기까지 더해 여러 남자의 손을 뽕 빼놓을 상이다. 남자는 이런 얼굴의 여자가 남성 권력이 심하다는 일면서도 색기 발랄한 그녀에게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피부색의 여자는 성적이 순화하고 대인 관계 또한 좋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컷들은 이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에이이 24시간 붙어있지 않는 한 그녀는 타고난 색기를 주체하지 못하여 끝없이 주변의 남자에게 매력을 흘린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주변에 이런 미인이 있나? 그녀와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즐기는 건 좋지만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이런 얼굴색을 가진 여자는 절대 결혼을 한 번으로 끝내지 못한다.

코

코등은 높은 것보다 낮은 여자가 섹스 친화적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낮아야 좋은 건 아니다. 코날 중앙이나 위쪽은 낮고, 코의 오른쪽 부분이 높아 코끝이 오목한 곡선을 그리는 코를 가진 여자를 만났다면? 남자 한두 명으로는 성욕을 채우지 못하는 여자가 바로 이런 코를 가지고 있다.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남자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타입이

다. 남자를 별로 기리지 않는 타입이라고나 할까. 성적인 일을 주면서 유혹하면 잘 넘어온다. 공략대상 1순위로 하겠다. 그리고 보면 성투적으로 쓰는 '쿨태 높은 여자'라는 표현이 생겨난 이유는, 쿨태 높은 여자가

에쁘고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성욕 자체가 약하고 남자에 관심이 없어 서일 수도 있었다. 여성 독자 중 에 쿨태 세운 분은 틀리게 되잖아 보일. 그 뒤로 남자가 꼭 끊기지는 않았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라.



입술

일반적으로 도톰한 입술은 미인의 조건이다. 중국 옛말에 '천하의 절색은 천하의 섹스'라는 말이 있다. 에쁘고 도톰한 입술은 미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왕성한 성욕을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지만 관성에서 여자의 입술 모양은 성기의 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나? 성기의 모양과 입술의 모양은 반대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술이 도톰하면 성기의 외피와 음순이 얇고, 입술이 얇으면 성기의 외피와 음순이 두껍다는 얘기다. 만약 이 반비례 관계가 진짜로 성립한다면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도 꽤나 신빙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성기의 피부가 얇으면 성감이 더 높아지고 성감대도 더 잘 발달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성에 눈을 뜨고, 더 왕성한 성생활을 즐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입술이 얇다면? 이 관성이론에 따르면 입술이 얇은 여자는 성기의 외피와 음순이 두꺼울 거다. 피부가 두껍다는 건 피하 지방층이 두껍다는 걸 의미하는데, 피하 지방층이 두꺼울수록 촉감이 둔해진다. 촉감이 둔하면 성감이 높거나 성감대가 발달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말해 입술이 얇은 여자는 불감증일 가능성이 크다. 혹시 입술이 얇은 여자가 당신의 취향인가? 뭐 낙담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열심히 봉사해도 그녀를 감동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섹스 자체를 즐기지 않으니 당신을 두고 바랄 게 없을 일이었다. 요즘 입술을 도톰하게 만드는 시술은 흔하게 하는 성형 중 하나인데, 도톰하게 입술을 성형한다고 성기 피부의 두께가 지 변화하는지는 MAXIM도 잘 모른다. 하지만 관성학에 따르면 성형으로 얼굴이 변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팔자가 변한다고 하니, 두께가 변할지도 모른다. 신기하네?

치아

일반적 미의 기준에 따르면 가지런한 치아가 아름답다. 김태희의 빈틈이라고는 없는 치아를 떠올려봐라. 하지만 관성학에서는 치아가 고른 사람보다 치아가 불규칙적이거나 앞니가 돌출된 사람, 한마디로 뒷니나 배드런기가 심한 여자 입술색 섹스를 밝힌다고 한다. 이 또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설명이 가능한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이입술색, 성인이 된 후 다수와의 섹스에 빠져드는 경우가

않다. 바로 '해정 결립'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적게 받은 아이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손가락을 빼는 행동을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성장기에 엄지 손가락을 빼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알니가 앞으로 돌출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인과 관계는 관성이 팔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팔자가 관성을 변하게 한 거니까 관상학에서 말하는 결정론과는 맞지 않지만, 어쨌거나 어느 이론에 따르면지간에 치열이 고르지 않은 여자가 섹스를 더 많이 갈구한다는 결론은 같다. 그리고 요즘의 기준에 따르면 뺨이나 돌출 치아가 그리 미적으로 보기 흉한 것도 아니다. 돌출된 치아를 가진 여성 중에도 개성 있고 매력적인 얼굴이 많다. 만약 실제로 치아를 교정한 후 성욕이 사그라들거나, 섹스가 한층 줄어들어 여성독자가 있다면 MAXIM에도 알려주기 바란다.

눈썹

기운데가 위로 올라간 '반달 눈썹'을 가진 여자 또한 타고난 섹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섹스를 밝힌다. 이런 눈썹의 소유자는 본능적으로 모든 남자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굴기 때문에 남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눈썹이 반달형이 아닐지라도 화장이나 눈썹을 다듬는 방법으로 반달형 눈썹을 만들면 남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여길될 수 있다. 반면 일자 눈썹을 가진 여자는 상대적으로 성인이 된 후 섹스에 할 때가교가 없다고 한다. 섹스는 당신의 몫이다.

귀

주변 여자의 귀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자. 귀가 발랄 끼워진 여자 안쪽 갯바퀴가 바랄 갯바퀴보다도 더 나은 여자. 게다가 갯바퀴가 툭툭하고 얼굴색에 비해 붉은 여자가 있나? 이런 귀를 가진 여자는 열 남자도 마다하지 않는 섹스광이다. 남자친구가 있어도 끝없이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는 다른 남자를 끊지 못한다. 골짜기가 있어도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 왜냐다. 이러한 귀를 가진 여자는 바로 구기가 유독 성감대로 많이 발달해 있다. 일단 그녀의 술을 한번 하고, 그녀의 귀를 공략하라. 설불리 번태처럼 보이지만 않는다면 오늘날의 성공률은 99%일 거다. 제발 뜬금없이 귀를 만지지 마라.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술집이나 클럽으로 가서, 귀가기에 대고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다. 그녀의 귀 안쪽에 붙어있지도 않은 언저리를 때 주며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것도 괜찮다.

자, 이제 당신은 섹스에 목숨을 여자를 할 눈에 알아보는 백만불짜리 능력을 탑재했다. 장담컨대 오늘날도 여전히 주변 여자를 볼 때마다 눈썹, 코, 귀, 입술을 훑어보느라 정신없을 거다. 진짜로. 

입술 입술 입술

섹스와 관련된 관심 이야기인 유독 입술에 관한 게 많다. 눈 코 입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교미에 참가하는 도구가 때문일까? 관성에 따르면 여자와 키스 한 번만 해봐도, 아니, 입술을 보만 해도 그녀의 입창자기가 얼마나 다이나믹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후딱 알고 주변을 둘러봐라. 이런 여자 없나?

1. 입술 할 때 어디지 모르게 끈적하게 붙어있던 입술이 서서히 떨어져나서 알갱이가 나오는 듯한 여자가 있다. 이런 여자가 바로 천하의 명다. 총재면 평생 후회한다. 그에게 별로 관심 없다고? 못가지 말고 무조건 그녀를 만나는 것으로 만들어라.

2. 입술 다물고 있을 때 입술이 불로특한 역삼각형 모양을 그리는 여자. 그녀는 당신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섹스광이다. 평소엔 내성을 떨다가 침대 위에서 풀변하는 타입이다. 이런 입술을 가진 여자가 주변에 있다면 당신이 그녀에게 관심 없다면 에디터에게 연락하라. 02-333-1311.

3. 또한 몇 입술 기운데가 불룩하게 부풀어오르거나 아래로 튀어나온 여자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섹스를 즐긴다. 입술 기운데가 제비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귀여운 입술의 소유자가 주변에 있다면 평소엔 잘 보아두도록 그녀를 갑자기 당혹사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율리우스 모른다. 하라 유만!

원 입술이 아랫입술보다 두껍고, 웃을 때 윗입술이 튀어나오면서 잇몸이 보이는 여자가 있나? 그녀는 섹기를 주체하지 못해 만족스런 섹스 상생을 찾아 갈망이 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와 조금만 친해지면 그녀의 침대 위에서 테스트를 받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다.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지.

특전사 파이터 김종만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화이트데이에 그녀에게 진짜 선물을 주고 싶나?
그렇다면 특전사 출신 파이터로 유명한 마살캬뎀 페더급 챔피언 김종만이 알려주는 하체 운동에 영혼을 바치도록!

이 시계 없애 줄
아는고? 모르겠
있을 마신!



김종만
마살캬뎀 페더급 챔피언
포레스트 휘트니스 팀장

당신은 특전사 출신 파이터로 유명하다. 특전사 복무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

물론이다. 어느 부대든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특전사가 좀 더 특별한 곳 아닌가. 나는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훨씬 인기가 많은 파이터라고
들었다.

한국인 최초로 페더급 세계랭킹 8위에 올랐고 다양한
단체의 챔피언을 상대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주요했
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관한 피팅 스타일이 외국 팬
에게 먹히는 것 같다.

2009년 FMC(Fighting Mixed Combative)에서
완손과 오른손을 포함해 손가락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서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리코드 초반 태클하는 상대를 받아 차다 손가락 4
개가 부러졌다. 미칠 듯이 고통스러웠지만 대회 당일
FMC 7경기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나까지 경기
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를 악물고 아픈게든 이겨려
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2대 패정패였다. 경기가 끝나
지마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했다. 담당 의사 선
생까지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그때 상황을
후회하진 않는다.

지속한 슬럼프를 벗어나더니 2014년에 결국 마살캬
뎀 페더급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슬럼프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챔피언의 꿈을 포기

할 수 없었다. 2010년 드디어 기회가 왔고, 나는 놓치
지 않았다. 챔피언 타이틀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내
보물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종합격투기의 매력은?

가볍지만 한 싸움 같지만 그 안에 엄청난, 그리고 엄격
한 룰이 존재한다. 링에서 30여 분의 시간 동안 모든
걸 결코 승부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혼자서 성인 남자 몇 명 정도를 상대할 수 있나?

길가에서 싸워본 적은 없다. 격투기는 잘 하지만 싸
움이라는 진짜 싸움꾼이 이기지 않을까? 사실 잘 모
르겠다.

시합 전 당신이 가장 신경 써서 단련하는 부위는 어
디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소홀할 수 없다. 그래서 서킷 프로그램이나 크로스 피
팅을 병행한다.

그럼 당신이 몸을 만들 때 먹는 식단은 MAXM 독자
에게 공개해 달라.

격투기 선수는 보디빌더처럼 닭 가슴살만 먹지 않는
다. 주로 낚지 소고기, 정어 같은 보양식을 먹으며 단
백질과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해준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챔피언으로서 챔피언인가?

그건 상대하는 여자가 인정할 문제 아니었나(웃음)

FIRST STEP

그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준 특급 기술을 공개한다.
당신도 이 기술을 정확히 숙지하면 어딜 가서 맞는
일일언가 없겠지

● JUMPING LEFT HOOK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딱반대에 불꽃이다. 진짜 공격
은 상대를 향해 점프하면서 지르는 레프트 훅이다.
고, 굉장한데?



1

상대와 마주보다 상대
는 내가 어떤 공격을 할
지 궁극해서 어떻게 줄
모르고 있었지

2

오른쪽 주먹을 살짝 내지
른다. 상대는 머리를 쭈뼛
며 주먹을 피하겠지? 올라
내 상대는 맥박을 뚫었다.



3

레프트 훅 강해 오른쪽은
만 신경을 쓴 상대는 급작
스럽게 날아 온 레프트 훅
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
을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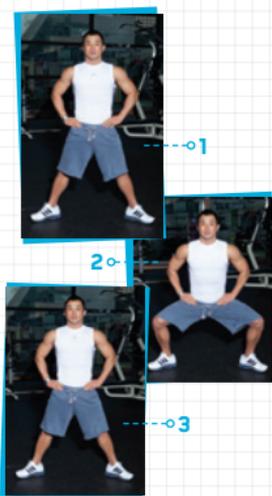
하체 운동 3종 세트

화이트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그곳 사람이 아니라 사실품은 잘 알고 있겠지? 그녀와의 거사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바지런히 하체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소리다. 딱치고 일단 시작해라!



● 스쿼트

- 1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다.
- 2 무릎을 약간 모아주는 느낌으로 앉는다. 이때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 3 엉덩이를 살짝 꼬인다는 느낌으로 일어난다.



● 와이드 스쿼트

- 1 발을 어깨넓이의 약 2배 정도로 벌려 선다. 이때 무릎과 발의 각도를 맞춰 발이 바깥을 향하게 한다.
- 2 앉을 때 무릎 중심은 발뒤꿈치에 둔다.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넘어진다.
- 3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 런지

- 1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손은 허리에 살짝 걸친다.
- 2 무릎이 발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주의하며 다리를 뻗어 90°로 만든다. 상체는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한다.
- 3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 FLYING KNEE KICK

나비처럼 시뭘러 날아올라 무릎으로 상대의 목수수를 떨어뜨리는 공격이다. 그의 나리예 자비란 없다.

문답무원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에디터의 변!
손가락이 무리해도 패가우스 유입 권을 날리는 그와 떨어져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Q&A

김종만 선수에게 물었다.

-참새 다리 소유자 박모 군-

Q 화이트데이가 다가옵니다. 그녀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허벅지를 말뚝자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허벅지가 굵어지면 여자친구가 만족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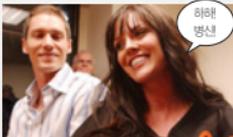
A 남자는 허벅가 튼튼해야 한다. 허벅가 튼튼하면 분명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하체 사이즈가 크다고 자랑은 아니다. 미끈 장식이 잘 탄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결만큼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도록!



Maxim Sports

이들의 스포츠 소식

GOODBYE~



히어 땀샘

크리스 벤슨 은퇴

1996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피츠버그 파이 리츠에 입단한 후 15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크리스 벤슨이 은퇴를 선언했다. 사실 전체 순위 선수치고 그치지 않는 활약을 펼친 건 못했음(통산 70승 75패, 평균 자책점 4.42) 모델 겸 스트라이퍼 출신 골키퍼 마누라를 돈 덕분에 야구팬에게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는 뒤시켰다. 메이저리그에서 땀을 갈 바엔 갈갑게 은퇴하겠다는 건데 하긴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 마누라 정통을 두드리며 어엿은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트래버 호프만 은퇴

메이저리구를 주름잡던 마이너 투수 트래버 호프만이 은퇴를 선언했다. 8시즌을 뛰면서 통산 60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이너 시절 AC/DC의 '자유의 종소리' 노래가 경기장에 울려퍼지다가 그가 마운드에 오르면서 1년 개량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 그는 불같은 강속구만 던져대는 열혈 마우리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마운드에서 무서워만들며 침착했고, 마이너도 라베라의 커터와 맞먹는 명품 체인지업으로 수많은 타자가 선풍기 소용돌이를 하게 만들었다.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가 4세이브로 차이를 뒤로 바꿀 뻔하고 있었으나 그의 기록이 조만간 깨질 가능성은 높지만 불펜 투수로 통령하기 힘든 메이저리그에서 600세이브를 남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FA 제도 변경 오호, 2011년 FA 시장은 아뵤마냥 화끈하겠군



알음 인공하심

프로야구 FA 제도가 달라진다. 가장 눈에 띄는 건 FA 자격 획득 기간이 1년 줄어든 것이다. 기존에는 9시즌을 노예처럼 뛰어야 FA 자격을 얻었는데 대졸 선수라면 8년만 구르면 FA 자격이 주어진다. 해외 진출 FA 자격은 여전히 9년. 이로써 올해 8시즌째인 이택근, 조성환, 정재훈 등은 FA 제도가 바뀌면서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게 된다. 이들은 프로야구 FA 제도가 뒤늦게

게 손질되는 바람에 2011년 연봉에서 FA 버프(?)를 받지 못했다. 고로 이 선수들을 데려가는 팀은 이전 소속팀에 줘야 하는 보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FA 선수에 비해 이들의 인기가 훨씬 높을 거다.



부상감에겐 무사행복

FA 보상 규정도 완화된다. 이전까진 보상 선수 1명을 때키지로 지르면 전년도 연봉에서 50%인상한 금액의 200%를, 보상 선수 없이 현찰로 지르면 50%인상 금액의 300%를 이전 소속팀에 지급해야 했다. 이 때문에 탐나는 FA 선수가 있어도 영입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상 선수 1명이 포함되면 전년도 연봉의 200%, 현찰이면 전년도 연봉 300%를 통치면 되니 FA 영입에 대한 구단의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이다.

양신 해설가 데뷔 스플리터 박 지못미...

양준혁이 SES ESPN에서 해설가로 데뷔했다. <무릎도 사다>에 나와서 가뚜리 타령을 구수하게 부르던 그의 갈뚝한 입담이라면, 떨어지는 공만 보면 스플리터 드림을 하는 박노준 해설위원의 존재보다 야구 보는 재미가 한결 업그레이드될 거다. 선수 출신 해설가의 매력은 무엇보다 경기의 맥을 제대로 짚을 줄 안다는 거다. 손애미(이순철) 해설위원처럼 말발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지만 경기 흐름만 놓치지 않도록 재우는 흥분하 하고도 남는 거다. 게다가 양신은 작년에 은퇴를 했으니 지금 현역 선수에 대한 데이터도 아직 따끈따끈한 정점이 있다. 아 그리고 보니 양준혁과 88학번 동기생인 양경호도 올해 해설가로 데뷔할 예정이다. 두산의 올드 팬이라면 누가 올 소식이었는지?



나온나 양생

Sports Times

BY 김상현 IMAGES Getty Images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야구 시즌이 돌아오는구나!

— 3월호 예고 —

준비중!!

(에디터가 겨울라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9구단의 미래 숫자구구단 생각한놈 대가리 박애!



게이머 회사 엔씨소프트가 프로 야구팀을 창단하겠다고 발표한 후 구구단 창단 여부에 야구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맛 행정의 대명사인 KBO는 온라인 게임으로 돈을 쓸어 담으며 매출 예상액이 7,000억 원 수준인 엔씨소프트가 야구단을 만들고 싶다는데도 계속 다른 구단의 눈치와 빨치기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월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엔씨소프트와 신생 구단 창단 의사를 밝힌 다른 기업을 심사한 후 결정하겠다는 게드림을 늘어놓았는데, 이 여유 넘치는 단체는 넥스 히어로즈 사태를 이미 기

역에서 지워버린 모양이다. 사비를 털어 서울도 아닌 창원을 연고지로 한 프로팀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데도 구시렁거리는 KBO의 헛짓거리에도 짜증 이 날 법도 한데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콜케가 "일단 9구단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에 환영하며, 창단 관련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말 엔씨 소프트웨어 프로야구팀을 만들면 태대 이거즈 시절 헬멧에 선명하게 박힌 맞동산 로고 못 자게끔 인상적인 로고가 하나 탄생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럼 이제 선수 헬멧에서 게임 (리니지) 로고를 볼 수 있는 건가? 흠.

2011년 주요 FA 명단

SK 장대현, 이승호, 권용관
LG 이택근, 조인성
삼성 신명철, 강병규
두산 김동주, 임재철, 정재훈
롯데 이대호, 조성환, 임경원, 강경식
넥센 강구태, 강병식, 송신영
한화 마일영, 신경현
김척 김성근, 선동열, 김경문, 김사진

2012년 주요 FA 명단

SK 이호준
LG 이진영, 정성훈, 박명환
삼성 정현욱
롯데 김주찬, 홍성흔
기아 유동훈, 이만근
김동준 조병현

2013년 주요 FA 명단

SK 송승범, 정근우
LG 이대형
삼성 오승환, 장원삼, 조동찬, 박학인
롯데 김민호
기아 윤석민, 손시헌
두산 이종욱, 김시현

두산! 드디어 전력 보강



재할 공작의 대명사 두산 이 메이저리그 출신 드스턴 니퍼트(30)를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20만 달러 등 총 30만 달러라니 그동안 다른 구단에서 영여 짓을 하던 선수들 세계 영입해서 박세게 굴리려고 유명했던 두산을 생각하면 놀랄 만한 행보다. 우원 정동파 니퍼트는 2m가 넘는 장신에 150km/h를 웃도는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

한다. 그가 정말 우승 청부사가 될 것일 수 없지만 전력 보강에 나선 두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두산 팬은 배가 부른 심정일 것이다. 니퍼트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38경기에 출장해 5601명 동안 4승 5패, 평균 자책점 4.29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은 총 61승 동안 2680명을 소화했고 14승 10패, 평균 자책점 5.31로 그저 그런 커리어를 가졌지만 메이저리그 물물 먹은 선수란 점에서 그 결과도 주목된다. 재야구리 날고 가는 선수라도 리그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면 초절정 잉여가 되는 야구 판이니 두경을 열어보아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

메시 FIFA 발롱도르 수상

우리나라에 친선경기를 하러 왔다가 백만 엔티를 달성하고 떠난 '무자유의 화랑' 메시가 FIFA 발롱도르 상을 수상했다. 메시가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깨는 건 아니지만 선수 후보에 사비와 이-메스타가 포함되어 있었다 게 문제다. 2010년 소속팀의 우승은 기본이고, 스페인의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이끈 주역들이 발롱도르를 받지 못할 이유가 설명할 수 있겠나? 감독상을 받은 무리요 역시 '발롱도르의 주인공은 메시가 아니라 이들이었어야 한다'며 한 소리 거들었다. 발롱도르 상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면 FIFA가 전 세계 국가대표팀 감독과 주장의 투표와 기타들의 투표를 합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명확한 발롱도르 상의 선정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우리♫ 설날 기념!

유럽파 축구파 해외파 집중 점검!

2010~11시즌 유럽 무대에서 그닥 광봉이여 목숨을 건 태극 전사 4인방의 성적표를 매겨봤다. WORDS BY 이남훈

박지성

첼시의 독주에 고전한 맨유를 구한 절대 영웅! 하지만 시즌 출발은 험난했다. 9라운드까지 고작 3경기 출장(교체 출전 2회)에 그치며 "주전자 몰이나 나르는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때다 싶은 국내 언론은 살레발을 치며 '박지성 위기론', '박지성 이적설'을 쏟아냈다. 박지성은 구멍 없이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했다. 그는 10라운드 토트넘과 벌인 출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국내 축구 팬에게 부활의 신호를 보냈다.

박지성의 미친 존재감은 11라운드 올버튼전에서 정점을 찍었다. 선제골을 비롯해 종료 직전 타진 극적인 결승골은 무재배에 여념이 없던 맨유에 찬금 승리를 선물했다. 이후 14라운드 애스턴 빌라전부터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2골 1도움)를 불어내며 "박지성이 골과 도움을 기록한 경기는 승리한다"라는 기본 좋은 공식도 만들었다.

사실 올 시즌 맨유는 리스와 스콜스 등의 노쇠화가 심해지면서 미드필드 운영이 쉽지 않았다. 신소탕크 박지성의 분신이 없었다면 첼시를 누르고 1위 자리에 올라 서기 쉽지 않았을 거다. 맨유 팬들 역시 그를 두달 연속 '이달의 선수'로 선정하며 공을 치러줬다. 개인 통산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기록(6골) 경신도 눈앞에 뒀다. 한마디로 박지성의 올 시즌 활약은 10점 만점에 100점

이남훈
SAYS

맨유는 리스, 스콜스 등의 노쇠화와 나니, 헤그리브스의 부상으로 믿을 만한 미드필더가 없다. 게다가 2월 이후에는 경기수가 급격히 떨어진다. 박지성이 필요한 파커는 감독은 내심 이 시간점에서 대한민국의 상대 팀을 응원할지도 모른다.

2010년 성적

A



손흥민

지금해 여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아는 축구팬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너도나도 손흥민 타령이다. 그만큼 18세의 축구 신동에 대한 축구 팬들의 기대는 뜨겁다.

손흥민은 시즌 개막전 첼시와의 친선경기에서 왼쪽발가락 골절을 당하며 11월이 되어야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분데스리가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했다. 12월 하노버전에서서는 2골을 몰아쳐 이 경기를 직접 지켜보 조광래 대표팀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손흥민은 태극 전사로 이시간점에 합류했다.

하지만 데뷔전 이후 치른 3경기에서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데 실패했다. 드릴을 뜯다가 처음에는 잘 먹었지만 팀플레이가 발차듯 못하다 보니 경기가 거듭될수록 상대 수비에 갇혀됐다. 수비 가량이 좋지 않아 동료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남훈
SAYS

손흥민은 데뷔전 결승골로 함부르크 구단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다. 대표팀에서는 아시안컵 최연소 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록의 사나이 손흥민에게 남은 최대 과제는 2년 차 짐승조 정도다.

2010년 성적

B



이청용

이남훈

SAYS

지난 2년간 이청용은 노예처럼 쉬지도 못하고 공만 쳤다.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가 와도 그를 비난하지 말자. 아시안컵이 끝나자마자 체력 부담이 막중한 리그 후반기에 투입될 그를 열심히 응원 해주자.

2010년 성적

A

볼턴의 중상위권 행진을 이끈 주인공. 이청용은 리그 첫 경기부터 골대임을 뛰며 삼성창은 기운을 내줬더니 2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첫 번째 아시스트를 기록했다. 이후 이청용은 단 한 경기도 빠짐없이 출장하며 팀의 에이스임을 입증했다. 볼턴의 코일 감독은 올 시즌 볼턴이 맹 추격에서 서미한 패스 축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이청용처럼 기량이 풍부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청용은 3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대2 극적인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지성, 이청용에게 원투 펀치를 맞은 울버햄튼은 테크 전사의 호구 인연(17)과 4라운드 뉴캐슬전 5대1 대승에는 1골을 보였고, 이는 이후 몰아친 골 폭풍의 시발점이 되었다. 현재 그의 공격 포인트는 2골 6도움으로. 지난 시즌의 4골 6도움을 넘기에 충분하다. 볼턴의 동료들도 이청용의 노고에 보답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득점 기록을 날려 국내 팬들의 마음을 산 '엘들규' 앨런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9골을 넣으며 '엘라만'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이청용은 17라운드 블랙번전 이후 체력 문제를 드러내며 18라운드 선덜랜드전에는 결장했다.

박주영

이남훈

SAYS

부상도 부상이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실패로 만신창이가 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무엇보다 올해는 그를 괴롭힌 허벅지와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2010년 성적

C

박주영의 2010-11시즌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 지난 시즌 허벅지 부상을 무릅쓰고 월드컵 무대를 뒀 덕분에 한 달의 휴식 시간을 날려버린 박주영은 완전한 지 못한 몸으로 시즌에 돌입했다.

현재 박주영의 소속팀 모나코는 3승 10무 6패로 강등 위기다. 가장 큰 원인은 핵심 선수들의 이적이다. 팀욕스러웠지만 원발 수 하나만큼은 일품이던 네네가 리그의 다른 팀으로 떠나자 골을 넣을 선수는 박주영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상 박주영의 몸 상태는 정상이고, 골을 도울 믿음직한 동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박주영은 현재 리그 6골을 기록하며 분전 중이다. 5라운드 마르세유전에서는 동점골을 넣으면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동점골을 넣은 후 59일 동안 골맛을 보지 못해 고생했지만 10라운드 보르도전이 끝난 후 3경기 연속 골을 몰아치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박주영은 2010년 12월 22일 17라운드 소쇼와 벌인 리그 홈경기에서 종료 직전 극적인 결승골을 넣은 후 골 뒤편이를 하다 무릎 연골이 벗겨지는 부상을 당했다. 일부 팬은 그의 무분별한 기동 뒤편이가 결국 부상을 불렀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으나 진짜 부상 이유는 결승골에 마쳐버린 동료가 무릎 끝은 그를 무자비하게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박주영의 아시안컵 합류는 없던 일이 되었다.



야구계의 해외파 BIG3 집중 점검!

올 시즌 박사장, 이승삼, 그리고 추추 트레이인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궁금한가?
그렇다면 "남하 화환만 아가씨 보러 가기 전에 잠시만 이 페이지 고정 부탁엽!"

WORDS BY 박정환



칼럼니스트 소개

당신에게 속이 꼭 찬 야구 소식을 전해줄 칼럼니스트 박정환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야구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메이저리그 전문 커뮤니티 맥스엠펠비(www.maxmb.co.kr)도 운영 중인 메이저리그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기면 위 사이트로 달려가도록!

박찬호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거둔 박찬호(38)는 2011년 시즌부터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선 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메이저리그에서 100승 이상을 거둔 선수 중 일본행을 선택한 선수는 돈 뉴컴(1962년 149승)과 빌 걸릭스(1998년 101승). 최근 요미우리와의 계약한 브라이언 베니스터의 부친 들로이트 베니스터(1990년 134승)에 이어 박찬호가 4번째다.

최초의 사이영상 수상자(1968년) 뉴컴은 일본 리그에선 타자로 뛰었다. 걸릭스는 29세에 요미우리 지엔츠에 입단해 두 시즌을 소화한 후 메이저리그로 U턴해 20승을 올린 매우 드문 경우다. 지금까지 경력과 일본 아직 직전의 몸 상태나 구위를 감안하면 박찬호는 걸릭스 이후 일본 리그에 진출한 메이저리거 중 가장 '급'이 높은 투수다. 실제로 2010년 박찬호는 평균 구속 146.3 km/h를 기록했는데 일본에서 이 정도 빠른 공을 꾸준히 던지는 선발 투수는 다섯 명 안팎이다. 구위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남는다.

유일한 걸림돌은 투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 그러나 빠른 공이 간재하고 작까지 일본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이동거리를 소화하는 메이저리그에서 몰 타임급 투수로 활동했으니 당장 체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적다.

2011년 키워드

성공의 열쇠는 적응력 야구 내외적으로 편이하게 다른 일본의 문화, 환경, 스타라이프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것만 잘 해결한다면 일본 리그에서도 10승은 문제없다.

한마디로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메이저리거 중 걸릭스 이후 최고 클래스



이승엽

이승엽(36)이 오마하의 갈라서는 상황에서 가장 잘 맞는 팀은 역시 오릭스였다. 타자는 타석을 보장받을 때 더 힘이 난다. 지난 3년 동안 1군에서 무려 254경기나 벤치를 지킨 이승엽은 경기에 나서길 갈망하는 데 오릭스는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활력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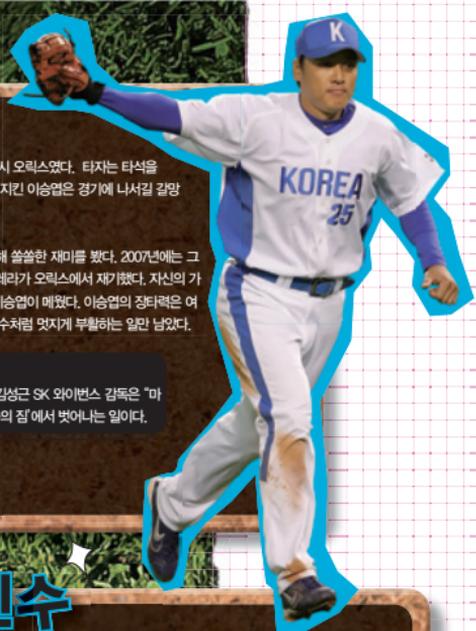
최근 오릭스는 네임 밸류는 있지만 하향세에 접어든 외국인 타자를 영입해 쓸쓸한 재미를 봤다. 2007년에는 그레 라운카와 티피 로즈가, 2008년에는 악물 스캔들에 휩싸인 알렉스 카브레라가 오릭스에서 재기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카브레라는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냉큼 이적했고, 그 자리는 이승엽이 메웠다. 이승엽의 장타력은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이다. 올 시즌 출전 기회는 충분히 보장될 테니 선수처럼 멋지게 부활하는 날만 기다.

2011년 키워드

과거 자바 롯데 마린스에서 이승엽이 슬럼프를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준 김성근 SK 와이번스 감독은 "마음이 문제"라고 말했다. 오릭스에 등지를 튼 그가 할 일은 하루빨리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한마디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장타력은 예나 지금이나 명불허전



추신수

추신수(29)는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20홈런 20도루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숫자상의 기록보다 훨씬 더 대단한 타자다. 작년 아메리칸리그 MVP 투표에서 추신수는 1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메인 수상식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다. 전성기 시절 박찬호도 못 해본 일이다. 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박찬호는 0표 마니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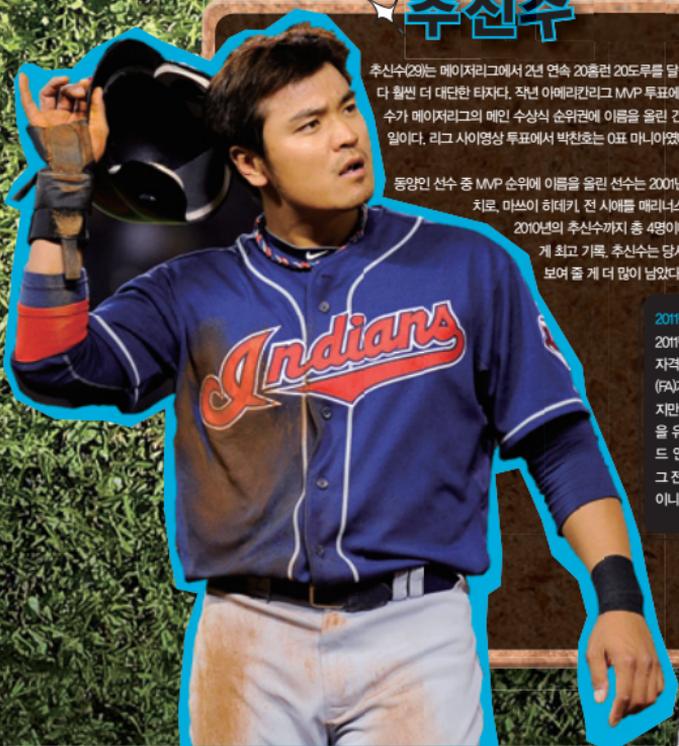
동양인 선수 중 MVP 순위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2001년 아메리칸리그 신인왕 겸 MVP 스키이치로, 마쓰이 히데키, 전 시애틀 매리너스의 마우리 사사키 가츠히로(2001년 왕위), 2010년의 추신수까지 총 4명이다. 이들 중 마쓰이는 2005년 14위에 오른 게 최고 기록. 추신수는 당시의 마쓰이보다 두 살이 더 어리다. 앞으로 보여 줄 게 더 많이 남아있는 애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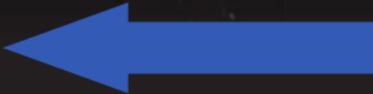
2011년 키워드

2011년 시즌 추신수는 처음으로 연봉 조정 자격을 획득했다. 3년 총액 자유 계약 선수(FA)가 된다. 타자로서 꾸준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FA가 되기 전까지 부상 없이 현재 기량을 유지하는 게 먼저다.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만 특정 구단을 넘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선수 중 한 명 이니까 말이다.

한마디로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슬러거 역사 '세로고침' 중!





STUFF

파일럿을 위한 제품

BY 김민환

품나는 파일럿은 아니지만 요런 녀석과 함께라면 파일럿 기분을 내기엔 충분하다. 자, 남은 건 스튜어디스를 고시는 일이지



**SENNHEISER****HMEC 460**

파일럿이 사용하는 헤드셋이 무엇인지 궁금했어? 전하이자 HMEC 460이면 적어도 헤드셋에서만큼은 당신과 파일럿이 동등이 될 수 있다. HMEC 460은 장시간 착용하는 파일럿의 귀가 불편하지 않게끔 패드의 착용감이 뛰어나고, 원활한 송신을 위해 잡음을 제거해주는 기능(노이즈 가드)도 탑재했다. 음질도 탁월한 편이어서 음악 감상용으로도 꽤나 그럴듯하다. 일상에서 사용하거나엔 과분한 녀석이지만 파일럿 코스트프레를 위해 굳이 사려 겠다면 밀리지는 않겠다.

**APPLE****iPOD TOUCH 4G**

갤럭시 플레이어를 3초간 고민했으나 32GB 가격이 아이폰 터치 4세대 64GB 가격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떠올린 순간 고민은 사라졌다. 아이폰 터치 4G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애플스토어의 앱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대체제다. 와이파이 환경에선 아이폰4, 아이폰 터치4G 사용자의 무료 화상통화 페이스트임을 즐길 수 있으니 풀 건나갈 일 많은 파일럿은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좋은 음원 소스와 성능 좋은 이어폰8헤드폰이 합쳐지면 음악 감상의 신세계도 맛볼 수 있다.

**SAMSUNG****GALAXY TAB**

돈급없이 웹 갤러시를 드림이냐고? 갤럭시 탭은 태블릿이란 생각만 지우면 꽤 괜찮은 동영상 마신다. 아이패드도 있지 않느냐고? 10인치와 크기, 그리고 동영상 인코딩의 압박은 동영상 전용 마신으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그에 비해 갤럭시탭은 72인치서 휴대하기 좋고 720p 영상은 물론 1080p 동영상도 재생 가능하지 않은가? 여기에 답은? 안드로이드 애플도 움직이게 사용할 수 있으니 파일럿의 잉여로운 시간을 때우는 용도로 충분하다.

**MONTEVERDE****INVINCIA PEN 4GB**

몬테베르데의 펜은 깔끔한 디자인과 부드러운 필기감으로도 먹고 들어간다. 이 녀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푸깅에 4GB 메모리를 숨겨 뒀다.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은 파일럿은 공항에서 서류를 작성할 일도,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저장할 일도 많다. 이때 이 녀석 하나만 챙겨두면 만사가 오케이만 해간다. 하나 더 당신 펜에서 USB 메모리가 편하고 등장할 때 감동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감상하는 것도 꽤나 신나는 일이다.

**BREITLING****NAVITIMER**

브라이틀링은 파일럿이 사랑하는 시계다. 기계식 시계인 주제에 크로노그래프란 장치를 탑재해 스톱워치는 물론 거리 환산, 평균 속도, 환율 변환 등을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스타 존 트래볼타가 브라이틀링의 모델로 활동했는데 그가 선정된 이유 역시 인가스타이어서가 아니라 5,000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을 가진 파일럿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파일럿의 로망' 같은 시계, 파일럿 코스트프레 필수 아이템이겠지?

초간단 여행 짐 싸기

여행에서 레알 필요한 것만 챙기는 특급 노하우를 알려주마!

1박 2일**지갑**

하룻밤 지는데 짐은 얼마주울 개소리 말고 지갑이나 챙겨라!

6박 7일**지갑+속옷**

첫술, 차역, 비누를 생각했어? 여행가서 깨끗한 척 말고 대충 씻어라. 하지만 속옷은 지르기엔 가격이 부담스러우니 여행로 챙겨두자. 알뜰로 둘러머 입고엔 말리진 않겠지만 당신 뽀물이의 건강은 책임 못 진다.

15박 16일**지갑+속옷과 침바지+비닐봉지**

침바지는 자주 빨면 옷이 상한다. 그러나 장거리 여행에 챙기지만 한 판트도 없다. 체크 포인트는 입은 속옷 빨래를 담은 비닐봉지다. 여행지에서 갈아입는 속옷을 그곳에서 청송하게 빨진 않았는지?

Valentine's Day

2010 MAXIM 걸 넥스트 도어 우승자 최혜연과 함께 하는 밸런타인데이 특집 화보가 여기 있네!
솔로인 당신이라면 그녀 사진을 보고 위안을 삼으시고, 커플인 당신이라면 그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이런 거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용도로 적극 활용해라.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김수민 MAKE-UP 민혜정 실용무조 02-3440-6030 STYLING 고경희 FILM 김관욱
MODEL 최혜연 ASSISTANT 김희성

COOPERATIONS 샵빈 플라민 진 샵빈 플라민 인.재.제 02-3447-7725) 게스.전 02-516-5611) 미루 아.제.에 02-3444-7712)





상의 캡틴 클라인 진
꽃무늬 속옷 캡틴 클라인 언더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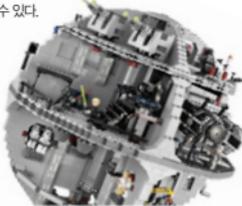
MEDICOM TOY / BEARBRICK

꿈 인형을 꿈쩍이 싫어하는 수컷도 메디콤 토이의 컬러풀한 베어브릭엔 눈길을 빼앗긴다. 배트맨 같은 수컷들이 한정하는 캐릭터의 의상을 패셔너블하게 소화하는 곰들이니까! 당신이 이 녀석들에 마음을 빼앗겨 한 눈 한 농씩 입양하다보면 지갑은 곧장 거덜 날 거다. 매해 새로운 버전은 물론,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모델이 넘쳐나 지름이 끝이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LEGO / 10188: DEATH STAR

덴마크어로 제마있게 놀아라는 의미인 레고는 진정한 남자의 장난감이다! 레고 10188은 <스타워즈 4> 6편에 등장하는 데스스타를 멋지게 구현했다. 가로 X 세로 높이는 각각 45cm 정도며 3,000개 이상의 레고 블록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공간에는 멋진 미니피규어들과 움직이는 부품, 캐릭터, 액세서리를 장식할 수 있다.



BANG-OLUFSEN / BEO TIME

남자가 좋아하는 비싼 장난감이란 이런 거다. 파리 처럼 생긴 외모지만 그건 페이크고 진짜 장치는 알람 시계다! 디자인은 플루트에서 철락 소리가 나는 버튼의 디테일은 트럼펫에서 따왔다. 알람 기능 이외에도 뱅앤올룹슨 제품을 조작하는 리모컨 역할도 하니 집에 베오사운드를 비롯해 관련 제품이 있으면 활용도는 배가 된다. 뱅앤올룹슨 제품답게 비싼 가격이 흠이지만 요하게 한 번쯤 미친척하고 지르고 싶은 그런 제품이다.





촬영 참여하기

MS / XBOX 360 + KINECT

연초에 찾아 온 액션버퍼와 키넥트 공보 지름신을 박하게 대접했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조기 퇴근 반응을 일깨워주는 좋은 지름이 될 거다. 출시 60일 만에 전 세계에서 8백만 대가 팔린 키넥트는 별다른 인식장치 없이 체감 액션 게임을 즐기게끔 해준다. 공전의 히트를 거둬고 있는 키넥트 전용 게임 (댄스 센트럴)과 함께 당신 안에 숨겨진 댄서의 열정을 불사르다보면 어느새 가을과 작별을 고하게 될 거다.



LOGITECH / G510

게임 마니아라면 키보드에도 어느 정도 투지해 보자. 솔깃한 야카도 지르는데 문제없으니 가난 드림 따윈 집어치워라. 로지텍이 내놓은 게이밍 키보드 G510은 각종 게임정보를 표시하는 게임패널 LCD를 탑재해 게임 정보, 미디어 플레이어 정보, 시스템 성능까지 한 눈에 보여주는 훌륭한 녀석이다. 게다가 로지텍은 MS와 함께 AS계의 끝판왕 고장 난 제품이 새 제품으로 돌아오는 '로지텍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SCEK / PSP+몬스터헌터 3RD

PSP가 조만간 발표되는 마당에 뜬금없이 PSP 드림이냐고? 모르는 소리 원래 다음 모델이 나올 즈음 야말로 마지막 단골을 뽑아내기 위한 질러 타이를 발매가 좋을 있는 시기다. 게이머로서는 최후의 만찬을 즐길 수 있던 알쌍. 게다가 얼마 전에 말년 병장급인 PSP의 판매량을 한 큐에 올려버린 (몬스터헌터 포터블 3rd)가 발매되지 않았던가? 꺼놓고 말해 이 게임 하나를 위해 PSP를 질러도 후회 없다.



MAXIM의 걸 넥스트 도어 콘테스트에서 1등을 차지했다. 1등보다 MAXIM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좋았다. 촬영 스태프들도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더라(웃음). 최고다. "사랑해요! 김맥심! 당신! 사랑해요! 뽀샵!"

이번이 두 번째 촬영이다. 이번 화보 촬영 후 소감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촬영이 끝났지만 살짝 피곤하긴 했다. 평소에 시도할 수 없던 파격적인 콘셉트가 즐기면서 재밌게 촬영했다. 덕분에 예쁜 옷도 많이 입어 봤다(웃음).

MAXIM이독자라고 들었다. MAXIM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취직시켜 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 는 농담이고 상큼한 언니들의 의 '젓' 한 사진을 많이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웃음).

마지막으로 MAXIM 독자에게 한마디 해 달라.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니트 게스 진
종무늬 속옷 하루 이너웨어

SAROTECH / CS-US3

새로택의 CS-US3는 3TB의 고용량 하드디스크를 최대 57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15GB의 고화질 이동 파일을 1천 개 이상 저장할 수 있다. 요즘 어지러진 고화질 콘텐츠는 17인치 3~4GB를 훌쩍 넘는다. 당시 이 소중히 쌓아둔 자료를 한 방에 백업 가능한 외장 하드드를 찾기 쉽지 않다. CS-US3과 3TB 하드 57개를 장만해 하드드를 백업해주는 건 어떨까? 당신의 피와 눈물 이어져 있는 '그저'들이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의 절망감을 다시금 잊고 싶다면 말이다.



PANASONIC / LUMIX GF2

미라리스 카메라 루믹스 GF1의 후속 모델, 풀HD 촬영은 물론 3D 사진 촬영도 지원한다. 무엇보다 GF2의 장점은 미라리스 카메라 중에서 가장 많은 렌즈군을 사용할 수 있던 거다. 파나소닉과 올림푸스의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는 물론이고, 칸버터를 이용하면 명동 라이카 렌즈군을 사용 가능하다. 소니 NEX 시리즈도 꽤나 잘 빠진 미라리스 카메라지만 루믹스에 비하면 선택 가능한 렌즈군이 턱없이 부족하다. 미라리스 카메라군을 지를 생각이라면 그저 루믹스 GF2가 진리다.



GOOGLE / NEXUS S

삼성의 하드웨어와 구글의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레퍼런스 폰이다. 구글의 최신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가 탑재됐고, 4인치 AMOLED 액정은 살짝 휘어져 있어 통화할 때 얼굴에 폰이 찰싹 달라붙는 기묘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 중 최고 수준의 배터리 효율도 자랑한다. 재질이 다소 저렴해 보인다는 점이 아쉽지만 통신사의 손을 타지 않은 순결한 폰이란 사실이 당신 마음을 뒤흔들 거다.





니트 에디터 소장
쭈무니 슝트 엘빈 클라인 언더웨어

CHAMPAGNE / MUMM ROSE

벨란티안 데이트의 화룡점정은 로맨틱한 핑크로 장식된 샴페인이 제격. 샴페인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가격이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으로 선택지를 넓히자. 자칫 공상패자가 쉬운 돌만의 방콕 파티를 '우주 최고의 로맨틱한 밤'으로 피어나게 한다. 덤으로 에로스까지 피어나면 더 좋고.



AMAZON / KINDLE3 WIFI

책을 좋아한다면 아이폰의 킨들3 와이파이 버전을 본 순간 동공이 확대될 거다. 선명한 전자책 화면이 눈의 피로는 낮추고, 가독성은 높인다. 와이파이에 접속한 상태라면 아이폰에 등록된 계정으로 보낸 PDF나 텍스트 파일이 자체 포맷으로 변환돼 킨들에 자동 저장되는 신묘한 체험도 할 수 있다. 한글 콘텐츠가 부족한 게 아쉽지만 완성도를 놓고 볼 때 킨들을 능가하는 녀석은 찾기 힘들다.



INCASE / IPHONE POUCH

아이폰을 백팩 주머니에 넣어두면 이등 중 깨질 때마다 귀찮음이 대폭발한다. 그렇다고 아저씨들이 허리춤에 차는 노티 넘치는 가죽 피우치를 지를 수도 없는 노릇. 이럴 땐 인케이스 아이폰 피우치가 좋은 대안이다. 아이폰 피우치와 백팩이 합체되는 순간 귀찮음에서 해방된다. 덤으로 심상치기 짝이 없는 당신 패션에 약간의 예지도 더해줄 거다.



PRISON BREAK

루팅과 탈옥 사이

아직도 스마트폰을 효도폰처럼 사용하고 있나? by 김민

PRISON BREAK 탈옥

(프리즌 브레이크)를 생각한 놈 대가리 백에 아이폰 운영체제의 제한을 풀어 사용자의 루트에 접근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아이폰의 각 프로그램은 운영체제를 해킹하지 않으면 앱 확인지를 가진 영역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고로 아이폰 탈옥을 하면 애플의 인증을 받지 않는 다른 회사의 코드로 실행할 수 있다.



탈옥과 루팅은 합법 또는 불법?

탈옥이나 루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약관 규정상 AS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탈옥이나 루팅을 한 휴대폰은 AS를 받기 위해서 순정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AS를 받을 수 없고, 수리비 잔액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유료 응용프로그램을 해킹해서 설치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결국 자신의 스마트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시스템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거다.

유래나 탈옥했으니
지옥 가는 모양?



탈옥과 루팅의 단점?

탈옥이나 루팅은 스마트폰은 관리자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악성코드에 노출되면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아이폰은 탈옥 후 기기보안이 훨씬 취약해진다.



바이러스
아. 양도

아이폰 탈옥의 변
※ MAXIM은 저작권을 존중한다. 고로 불법 앱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다.



1. 답답한 록 스크린 인녕~

아이폰에서 각종 정보를 보려면 록을 해제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다. 탈옥을 하면 록 스크린을 해제하지 않고서도 문자, 부재중 메시지, 스케줄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테더링 봉인 해제

아이폰은 블루투스나 USB로 테더링을 제공하지만 순정 상태에서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거나 큰 집느님! 무엇보다 애플 제품끼리 테더링이 불가능하다. 갤럭시S와 아이폰드는 테더링이 가능한데 아이폰과 아이폰드끼리는 테더링이 불가능하다. 탈옥을 하면 아이폰(다른 기기에 아이폰4를 연결해 인터넷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앱)로 애플 제품끼리도 테더링을 할 수 있다!

3. 멀티태스킹 한 큐에 종료

아이폰도 iOS 4.0부터 멀티태스킹이 지원되지만 실행한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페_페이크! 이때 홈 버튼을 두 번 누른 후 멀티태스킹 바에서 앱을 개별적으로 종료 가능하지만 귀찮음이 꽃 핀다. 탈옥을 하면 홈 버튼을 길게 눌러 실행 중 앱을 한 큐에 종료할 수 있다. 오쌔!

이 외에도 탈옥을 하면 아이OS라는 앱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페이스타임, 대용량 앱 다운로드 3G 환경에서 가능하다. 당신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한 보람을 만끽하게 해줄 거! 대용량 페이스메이커인 앱을 통해 페이스타임 3G 환경에서 사용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아이폰의 주요 기능들의 설정도 손쉽게 바꿀 수 있으니 어찌 탈옥을 아니 하겠냐!

※ iOS 4.3 베타 버전의 등장

얼마 전 등장한 iOS 4.3 베타 버전에서는 퍼스널 핫스팟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를 무선랜으로 변형해 최대 5대까지 무선랜 접속을 제공하는 기능! 아이폰과 아이폰드 블루투스 테더링을 지원했다. 당신이 애플 제품간의 테더링 때문에 아이폰 탈옥을 생각하는 거라면 재고할 필요성이 생긴 거다. 집. 집느님이 변했다!

ROOTING 루팅

루팅은 보통 안드로이드폰의 운영체제를 해킹해 관리자 권한을 얻는 행위다. 안드로이드 자체가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빌려왔다. 리눅스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 계정이 루트(Root)인데 루팅은 이 권한을 획득하는 행위다. 루팅을 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사용자 권한을 슈퍼 유저 로 바꿔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장된 설정을 변경해 시스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안드로이드 루팅의 변

※MAXIM은 저작권을 존중한다. 고로 불법 영예 한 이미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 유틸리티에 맞출

해와 개발자가 용이하게를 위한 안드로이드 베 타버전을 공식 배포했다. 전하는 물론 무선연으로 안드로이드 마켓 이용도 가능하나 블루투스 와 GPRS(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연결은 아직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루팅 사례로는 갤럭시S의 외 부 메모리 I/O(입출력, input/output) 패치를 통한 성능 향상, 안드로이드 2.1 버전에 서 지원하지 않던 응용 프로그램의 외장 메모리 저장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공 식적인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유저들이 만든 멋진 커스텀 퓌 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덕 중에 제일 은 양력이라 는 말을 실감케 하는 XDA 포럼의 능력이자 만든 커스텀 퓌을 사용 하는 기쁨은 안드로이드폰 유저라면 모두가 알 것이다. 무슨 소리냐? 발아역을 LG가 유틸리티 Q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아도 유저들이 손가락만 댄 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알아두면 편한 스마트폰 자투리 용어

팩토리 언록 폰 (Factory Unlock Phone)

작역하면 공장에서 잠그지 않은 폰이란 소리다. 무슨 말이나 하면 휴대폰을 만들 때 주파수 대역 및 데이터 전송에 제한을 걸지 않아서 어느 통신사의 심



(흔히 유심 카드라고 불리는 그것) 카 드도 사용할 수 있는 폰이다. 당선이 우리나라 에서 발매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구매해 개인 인증을 받아 쓰려면 이런 팩토리 언록 폰을 질 라야 한다. 일부 특정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에서 구매하는 게 제일 편리하다. 뉴질랜드에서도 팩토리의 언록 폰 을 판매하는데 어느 통신사가 하-북에 없애 서 록을 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벽돌

당신이 휴대폰을 구입한 PSP 에 커스텀 펌웨어를 해봤다면 친숙한 용어일 것이다. 말속이나 루팅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오류를 일으켜 마치 벽돌처럼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당산 눈앞에서 땀방 동이거던 스마트폰이 한순간 벽돌만도 못한 놈이 된 눈에 떨어 내는 상황인 거다. 벽돌이 되었다면 공장 초기화 상태로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게 안 된다면...자투리.



AWD

BMW X5

9,170만원

구도
슈츠원

“디젤이라고요?”

설마했다. 자칫하면 1억짜리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고 멸망할 뻔했다. 아무리 그래도 디젤 소리와 가솔린 소리로 구분 못하면서 무슨 놈의 자동차 시승기를 쓰냐고? 재네도 타보라. 렉서스 세단처럼 조용하게 170km/h를 가리키는 이기가 막힌 경유차를 말이다.

단점은 역시 1억이라는 가격이다. X5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연비(12.8km/l)를 자랑하지만 역시 차 가격 때문에 경제적인 표현을 붙이긴 힘들다. 하지만 1억의 가격에는 BMW가 주는 유형의 프리미엄이 녹아 있다. 그게 뭐냐고? 클럽 파티 취재가 강남의 C 클럽에 갈 일이 몇 번 있었다. 에디터가 X5와 함께 방문했을 때 발렛 헤드라졌습니다. 하여 문을 열어주던 클럽 직원이.. 코란도를 끌고 나타났을 때는 한 팔을 가로로 들며 말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FOCUS

ACTIVE TORQUE 4WD

X5는 AWD(All Wheel Drive)다. 언제나 4바퀴에 동력이 전달된다는 뜻이다. 'xdrive'는 BMW만의 첨단 4륜구동 시스템이다. 전륜후륜 간의 동력비가 고정되어 있는 여는 4륜구동 시스템과 달리 xdrive는 주행 상황에 맞게 앞바퀴와 뒷바퀴에 실리는 동력을 전자 제어 시스템이 자유자재로 변화시킨다. 눈이 많이 내리면 X5 시승 기간에 빙판, 눈길, 급커브, 고속주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xdrive 4륜구동 시스템은 아마 발밑에서 비번게 돌아갈을 가다. 운전자가 복잡하게 신경 써야 할 건 하나도 없다. X5 운전석에서 '운전 실력'이라는 건 어쩌면 이젠 더 이상 의미 없는 단어인지도 모른다. 분명 운전대를 돌리고 가속페달을 밟은 건 에디터였지만 진짜 '운전'을 한 건 xdrive 시스템이었다.

X5 자세히
들어가기



AWD vs 4WD

두 발 달린 그녀는 네 발 달린 짐승에게 끌린다. 당신은 두 발인가 네 발인가.

아~ 세 말이사라고?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LEG BY 에디터 yb







4WD

TOYOTA RAV4

3,490만원



RAV4는

사만 중인 수입 SUV 중에 4 번째로 저렴한 모델이다. 도요타에서 RAV4를 거의 홍보하지 않는 이유는 통 알 수 없지만 타본 입장에서 RAV4야말로 알짜 중의 알짜배기다. 가볍게 튀어나가는 가속력이나 주행 성능은 흠잡을 데 없고, 굳이 필요 없는 전자 제어 기능들을 깔끔하게 빼버리고 가격 거품을 없앤 정도 만에 든다. 몸에 지니고 있거만 해도 되는 스마트 키는 럭셔리 서스 시리즈와 똑같다.

무엇보다 남자의 SUV라면 자고로 등딱에 스페어 타이어를 둘러메고 있어야 제대로라고 할 수 있지 아니한가.

FOCUS

ACTIVE TORQUE 4WD

RAV4의 4륜구동 시스템인 액티브 토크 4WD(4 Wheel Drive)는 기본적으로 XG가 채택한 AWD와는 달리 때에 따라 2륜구동에서 4륜구동의 전환이 가능한 '퍼트타임' 4륜구동이다. 4륜구동은 안정하지만 연료 소모가 크며 부드러운 코너링에는 2륜구동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 하지만 2륜으로 주행 중에 4륜 구동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구동 방식을 전환하기 어렵다. 달리는 중에 억지로 2륜 > 4륜으로 전환했다가는 금방 미션이 망가지버린다.

RAV4는 운전석에 구동 전환하는 다이얼이 없다. 뭐지? 에디터의 손가락이 할 일은 없었다. 이너석은 주행 중에든 코너링, 오르막, 출발 가속, 눈길, 빗길, 빙판길 등 주행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4륜으로 자동 전환된다. 10.8km/l의 그저 그런 연비와 휘발유 엔진이라는 점만 빼면 참 기가 막힌 SUV 인데 말이다.



RAV4 자세히 알아보기

VOLVO C30 DRIVE ELECTRIC

별모자동차의 세련된 해택 C30이 전기 자동차로 태어났다. 지난 1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아메리카 국제 모터쇼에서 공개된 이 전자 제동(7은 아직 공식 판매는 되지 않고 있다) 컨셉트가 아닌 기존의 C30 모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곧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면 전기 콘센트로도 충전이 가능하니 충전은 회사에서 눈치껏 해야겠다. 우리나라에선 언제 나오나? 글썄, 우리도 잘 모르겠다.



제조사	가격	주요별	제조사	가격	주요별	제조사	가격	주요별	제조사	가격	주요별	가격 단위별 번호
쌍용	3394	200 슈퍼 특선 4WD 196	도요타	3390	200 도요타 코르올라 1.8 하이브리드	혼다	4850	200 혼다 에코트 3.5	닛산	4880	200 닛산 디아타 플러그인 4x4	
기아	3300	200 지오 테크노 2.4	스aab	3300	200 스aab 900세라 2500HP 플	기아	4919	200 그랜드 카니발 3D 하이브리드	스aab	4840	200 스aab 9-5 2D 2D	
기아	3309	200 오베리 2.0 3D 4WD	아노스탈	3350	201 3AT 1900 25 기어별				토요	4850	200 토요 야스레 2세대	
닛산	3300	200 نيسان 알티라 2.5 기어별	벤츠	3790	200 벤츠 메리보 5200	스aab	4700	200 스aab 900세라 2.5	기아	4850	200 지오 테크노 4세대 2세대	
현대	3300	200 현대 세렌도 2.0	닛산	3790	200 نيسان 알티라 2.5 기어별	아노스탈	4700	200 아노스탈 2075 2075	토요	4800	200 토요 시애틀러 40 기어별 4WD	
현대	3300	200 현대 투싼 2.0	벤츠	3823	201 메르세데스 C200 4WD	아노스탈	4700	200 아노스탈 2075 2075	제네라	4800	200 제네라 300C ACUPL 27 기어	
현대	3300	200 현대 투싼 2.0	기아	3820	200 기아 스포츠	벤츠	4335	201 메르세데스 7기어별 380 4WD	아우디	4800	200 아우디 A4 2D 179 1800	
현대	3300	200 현대 투싼 2.0	벤츠	3824	200 메르세데스 190 2.4	BMW	4370	200 BMW X1 4x4 180				
GM	3300	200 알티마 2.5 2D	아노스탈	3850	200 아노스탈 2075 19 기어	벤츠	4370	200 메르세데스 C200 2D	닛산	5000	200 نيسان 투싼 3.5 기어별 4WD	
현대	3300	200 현대 투싼 2.0	토요	3850	200 토요 알티라 2.0 디젤	아우디	4000	200 아우디 A4 2075 2075 2075	BMW	5100	200 BMW 318D 3300	
닛산	3300	200 نيسان 알티라 2.5 기어별	GM	3865	200 알티마 2.0 3D	기아	4300	200 기아 알티라 4세대	BMW	5100	200 BMW X1 4x4 180	
도요타	3400	200 도요타 알티 2.5 기어별	기아	3880	201 기아 스포츠 1900 4x4 3D	현대	4300	201 현대 투싼 2075 2075	GM	5100	200 메리보 3.8 V6 4기	
도요타	3400	200 도요타 투싼 2.5 기어별 4WD	기아	3875	201 기아 K7 1630	현대	4300	201 현대 투싼 2075 2075	제네라	5100	200 제네라 3.8 V6 4기	
코르올라	3400	200 코르올라 1.8 2.0 2.4 2.5 2.7 3.0 3.6 4.0 4.6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24.0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28.5 29.0 29.5 30.0 30.5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35.0 35.5 36.0 36.5 37.0 37.5 38.0 38.5 39.0 39.5 40.0 40.5 41.0 41.5 42.0 42.5 43.0 43.5 44.0 44.5 45.0 45.5 46.0 46.5 47.0 47.5 48.0 48.5 49.0 49.5 50.0 50.5 51.0 51.5 52.0 52.5 53.0 53.5 54.0 54.5 55.0 55.5 56.0 56.5 57.0 57.5 58.0 58.5 59.0 59.5 60.0 60.5 61.0 61.5 62.0 62.5 63.0 63.5 64.0 64.5 65.0 65.5 66.0 66.5 67.0 67.5 68.0 68.5 69.0 69.5 70.0 70.5 71.0 71.5 72.0 72.5 73.0 73.5 74.0 74.5 75.0 75.5 76.0 76.5 77.0 77.5 78.0 78.5 79.0 79.5 80.0 80.5 81.0 81.5 82.0 82.5 83.0 83.5 84.0 84.5 85.0 85.5 86.0 86.5 87.0 87.5 88.0 88.5 89.0 89.5 90.0 90.5 91.0 91.5 92.0 92.5 93.0 93.5 94.0 94.5 95.0 95.5 96.0 96.5 97.0 97.5 98.0 98.5 99.0 99.5 100.0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103.5 104.0 104.5 105.0 105.5 106.0 106.5 107.0 107.5 108.0 108.5 109.0 109.5 110.0 110.5 111.0 111.5 112.0 112.5 113.0 113.5 114.0 114.5 115.0 115.5 116.0 116.5 117.0 117.5 118.0 118.5 119.0 119.5 120.0 120.5 121.0 121.5 122.0 122.5 123.0 123.5 124.0 124.5 125.0 125.5 126.0 126.5 127.0 127.5 128.0 128.5 129.0 129.5 130.0 130.5 131.0 131.5 132.0 132.5 133.0 133.5 134.0 134.5 135.0 135.5 136.0 136.5 137.0 137.5 138.0 138.5 139.0 139.5 140.0 140.5 141.0 141.5 142.0 142.5 143.0 143.5 144.0 144.5 145.0 145.5 146.0 146.5 147.0 147.5 148.0 148.5 149.0 149.5 150.0 150.5 151.0 151.5 152.0 152.5 153.0 153.5 154.0 154.5 155.0 155.5 156.0 156.5 157.0 157.5 158.0 158.5 159.0 159.5 160.0 160.5 161.0 161.5 162.0 162.5 163.0 163.5 164.0 164.5 165.0 165.5 166.0 166.5 167.0 167.5 168.0 168.5 169.0 169.5 170.0 170.5 171.0 171.5 172.0 172.5 173.0 173.5 174.0 174.5 175.0 175.5 176.0 176.5 177.0 177.5 178.0 178.5 179.0 179.5 180.0 180.5 181.0 181.5 182.0 182.5 183.0 183.5 184.0 184.5 185.0 185.5 186.0 186.5 187.0 187.5 188.0 188.5 189.0 189.5 190.0 190.5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207.5 208.0 208.5 209.0 209.5 210.0 210.5 211.0 211.5 212.0 212.5 213.0 213.5 214.0 214.5 215.0 215.5 216.0 216.5 217.0 217.5 218.0 218.5 219.0 219.5 220.0 220.5 221.0 221.5 222.0 222.5 223.0 223.5 224.0 224.5 225.0 225.5 226.0 226.5 227.0 227.5 228.0 228.5 229.0 229.5 230.0 230.5 231.0 231.5 232.0 232.5 233.0 233.5 234.0 234.5 235.0 235.5 236.0 236.5 237.0 237.5 238.0 238.5 239.0 239.5 240.0 240.5 241.0 241.5 242.0 242.5 243.0 243.5 244.0 244.5 245.0 245.5 246.0 246.5 247.0 247.5 248.0 248.5 249.0 249.5 250.0 250.5 251.0 251.5 252.0 252.5 253.0 253.5 254.0 254.5 255.0 255.5 256.0 256.5 257.0 257.5 258.0 258.5 259.0 259.5 260.0 260.5 261.0 261.5 262.0 262.5 263.0 263.5 264.0 264.5 265.0 265.5 266.0 266.5 267.0 267.5 268.0 268.5 269.0 269.5 270.0 270.5 271.0 271.5 272.0 272.5 273.0 273.5 274.0 274.5 275.0 275.5 276.0 276.5 277.0 277.5 278.0 278.5 279.0 279.5 280.0 280.5 281.0 281.5 282.0 282.5 283.0 283.5 284.0 284.5 285.0 285.5 286.0 286.5 287.0 287.5 288.0 288.5 289.0 289.5 290.0 290.5 291.0 291.5 292.0 292.5 293.0 293.5 294.0 294.5 295.0 295.5 296.0 296.5 297.0 297.5 298.0 298.5 299.0 299.5 300.0 300.5 301.0 301.5 302.0 302.5 303.0 303.5 304.0 304.5 305.0 305.5 306.0 306.5 307.0 307.5 308.0 308.5 309.0 309.5 310.0 310.5 311.0 311.5 312.0 312.5 313.0 313.5 314.0 314.5 315.0 315.5 316.0 316.5 317.0 317.5 318.0 318.5 319.0 319.5 320.0 320.5 321.0 321.5 322.0 322.5 323.0 323.5 324.0 324.5 325.0 325.5 326.0 326.5 327.0 327.5 328.0 328.5 329.0 329.5 330.0 330.5 331.0 331.5 332.0 332.5 333.0 333.5 334.0 334.5 335.0 335.5 336.0 336.5 337.0 337.5 338.0 338.5 339.0 339.5 340.0 340.5 341.0 341.5 342.0 342.5 343.0 343.5 344.0 344.5 345.0 345.5 346.0 346.5 347.0 347.5 348.0 348.5 349.0 349.5 350.0 350.5 351.0 351.5 352.0 352.5 353.0 353.5 354.0 354.5 355.0 355.5 356.0 356.5 357.0 357.5 358.0 358.5 359.0 359.5 360.0 360.5 361.0 361.5 362.0 362.5 363.0 363.5 364.0 364.5 365.0 365.5 366.0 366.5 367.0 367.5 368.0 368.5 369.0 369.5 370.0 370.5 371.0 371.5 372.0 372.5 373.0 373.5 374.0 374.5 375.0 375.5 376.0 376.5 377.0 377.5 378.0 378.5 379.0 379.5 380.0 380.5 381.0 381.5 382.0 382.5 383.0 383.5 384.0 384.5 385.0 385.5 386.0 386.5 387.0 387.5 388.0 388.5 389.0 389.5 390.0 390.5 391.0 391.5 392.0 392.5 393.0 393.5 394.0 394.5 395.0 395.5 396.0 396.5 397.0 397.5 398.0 398.5 399.0 399.5 400.0 400.5 401.0 401.5 402.0 402.5 403.0 403.5 404.0 404.5 405.0 405.5 406.0 406.5 407.0 407.5 408.0 408.5 409.0 409.5 410.0 410.5 411.0 411.5 412.0 412.5 413.0 413.5 414.0 414.5 415.0 415.5 416.0 416.5 417.0 417.5 418.0 418.5 419.0 419.5 420.0 420.5 421.0 421.5 422.0 422.5 423.0 423.5 424.0 424.5 425.0 425.5 426.0 426.5 427.0 427.5 428.0 428.5 429.0 429.5 430.0 430.5 431.0 431.5 432.0 432.5 433.0 433.5 434.0 434.5 435.0 435.5 436.0 436.5 437.0 437.5 438.0 438.5 439.0 439.5 440.0 440.5 441.0 441.5 442.0 442.5 443.0 443.5 444.0 444.5 445.0 445.5 446.0 446.5 447.0 447.5 448.0 448.5 449.0 449.5 450.0 450.5 451.0 451.5 452.0 452.5 453.0 453.5 454.0 454.5 455.0 455.5 456.0 456.5 457.0 457.5 458.0 458.5 459.0 459.5 460.0 460.5 461.0 461.5 462.0 462.5 463.0 463.5 464.0 464.5 465.0 465.5 466.0 466.5 467.0 467.5 468.0 468.5 469.0 469.5 470.0 470.5 471.0 471.5 472.0 472.5 473.0 473.5 474.0 474.5 475.0 475.5 476.0 476.5 477.0 477.5 478.0 478.5 479.0 479.5 480.0 480.5 481.0 481.5 482.0 482.5 483.0 483.5 484.0 484.5 485.0 485.5 486.0 486.5 487.0 487.5 488.0 488.5 489.0 489.5 490.0 490.5 491.0 491.5 492.0 492.5 493.0 493.5 494.0 494.5 495.0 495.5 496.0 496.5 497.0 497.5 498.0 498.5 499.0 499.5 500.0 500.5 501.0 501.5 502.0 502.5 503.0 503.5 504.0 504.5 505.0 505.5 506.0 506.5 507.0 507.5 508.0 508.5 509.0 509.5 510.0 510.5 511.0 511.5 512.0 512.5 513.0 513.5 514.0 514.5 515.0 515.5 516.0 516.5 517.0 517.5 518.0 518.5 519.0 519.5 520.0 520.5 521.0 521.5 522.0 522.5 523.0 523.5 524.0 524.5 525.0 525.5 526.0 526.5 527.0 527.5 528.0 528.5 529.0 529.5 530.0 530.5 531.0 531.5 532.0 532.5 533.0 533.5 534.0 534.5 535.0 535.5 536.0 536.5 537.0 537.5 538.0 538.5 539.0 539.5 540.0 540.5 541.0 541.5 542.0 542.5 543.0 543.5 544.0 544.5 545.0 545.5 546.0 546.5 547.0 547.5 548.0 548.5 549.0 549.5 550.0 550.5 551.0 551.5 552.0 552.5 553.0 553.5 554.0 554.5 555.0 555.5 556.0 556.5 557.0 557.5 558.0 558.5 559.0 559.5 560.0 560.5 561.0 561.5 562.0 562.5 563.0 563.5 564.0 564.5 565.0 565.5 566.0 566.5 567.0 567.5 568.0 568.5 569.0 569.5 570.0 570.5 571.0 571.5 572.0 572.5 573.0 573.5 574.0 574.5 575.0 575.5 576.0 576.5 577.0 577.5 578.0 578.5 579.0 579.5 580.0 580.5 581.0 581.5 582.0 582.5 583.0 583.5 584.0 584.5 585.0 585.5 586.0 586.5 587.0 587.5 588.0 588.5 589.0 589.5 590.0 590.5 591.0 591.5 592.0 592.5 593.0 593.5 594.0 594.5 595.0 595.5 596.0 596.5 597.0 597.5 598.0 598.5 599.0 599.5 600.0 600.5 601.0 601.5 602.0 602.5 603.0 603.5 604.0 604.5 605.0 605.5 606.0 606.5 607.0 607.5 608.0 608.5 609.0 609.5 610.0 610.5 611.0 611.5 612.0 612.5 613.0 613.5 614.0 614.5 615.0 615.5 616.0 616.5 617.0 617.5 618.0 618.5 619.0 619.5 620.0 620.5 621.0 621.5 622.0 622.5 623.0 623.5 624.0 624.5 625.0 625.5 626.0 626.5 627.0 627.5 628.0 628.5 629.0 629.5 630.0 630.5 631.0 631.5 632.0 632.5 633.0 633.5 634.0 634.5 635.0 635.5 636.0 636.5 637.0 637.5 638.0 638.5 639.0 639.5 640.0 640.5 641.0 641.5 642.0 642.5 643.0 643.5 644.0 644.5 645.0 645.5 646.0 646.5 647.0 647.5 648.0 648.5 649.0 649.5 650.0 650.5 651.0 651.5 652.0 652.5 653.0 653.5 654.0 654.5 655.0 655.5 656.0 656.5 657.0 657.5 658.0 658.5 659.0 659.5 660.0 660.5 661.0 661.5 662.0 662.5 663.0 663.5 664.0 664.5 665.0 665.5 666.0 666.5 667.0 667.5 668.0 668.5 669.0 669.5 670.0 670.5 671.0 671.5 672.0 672.5 673.0 673.5 674.0 674.5 675.0 675.5 676.0 676.5 677.0 677.5 678.0 678.5 679.0 679.5 680.0 680.5 681.0 681.5 682.0 682.5 683.0 683.5 684.0 684.5 685.0 685.5 686.0 686.5 687.0 687.5 688.0 688.5 689.0 689.5 690.0 690.5 691.0 691.5 692.0 692.5 693.0 693.5 694.0 694.5 695.0 695.5 696.0 696.5 697.0 697.5 698.0 698.5 699.0 699.5 700.0 700.5 701.0 701.5 702.0 702.5 703.0 703.5 704.0 704.5 705.0 705.5 706.0 706.5 707.0 707.5 708.0 708.5 709.0 709.5 710.0 710.5 711.0 711.5 712.0 712.5 713.0 713.5 714.0 714.5 715.0 715.5 716.0 716.5 717.0 717.5 718.0 718.5 719.0 719.5 720.0 720.5 721.0 721.5 722.0 722.5 723.0 723.5 724.0 724.5 725.0 725.5 726.0 726.5 727.0 727.5 728.0 728.5 729.0 729.5 730.0 730.5 731.0 731.5 732.0 732.5 733.0 733.5 734.0 734.5 735.0 735.5 736.0 736.5 737.0 737.5 738.0 738.5 739.0 739.5 740.0 740.5 741.0 741.5 742.0 742.5 743.0 743.5 744.0 744.5 745.0 745.5 746.0 746.5 747.0 747.5 748.0 748.5 749.0 749.5 750.0 750.5 751.0 751.5 752.0 752.5 753.0 753.5 754.0 754.5 755.0 755.5 756.0 756.5 757.0 757.5 758.0 758.5 759.0 759.5 760.0 760.5 761.0 761.5 762.0 762.5 763.0 763.5 764.0 764.5 765.0 765.5 766.0 766.5 767.0 767.5 768.0 768.5 769.0 769.5 770.0 770.5 771.0 771.5 772.0 772.5 773.0 773.5 774.0 774.5 775.0 775.5 776.0 776.5 777.0 777.5 778.0 778.5 779.0 779.5 780.0 780.5 781.0 781.5 782.0 782.5 783.0 783.5 784.0 784.5 785.0 785.5 786.0 786.5 787.0 787.5 788.0 788.5 789.0 789.5 790.0 790.5 791.0 791.5 792.0 792.5 793.0 793.5 794.0 794.5 795.0 795.5 796.0 796.5 797.0 797.5 798.0 798.5 799.0 799.5 800.0 800.5 801.0 801.5 802.0 802.5 803.0 803.5 804.0 804.5 805.0 805.5 806.0 806.5 807.0 807.5 808.0 808.5 809.0 809.5 810.0 810.5 811.0 811.5 812.0 812.5 813.0 813.5 814.0 814.5 815.0 815.5 816.0 816.5 817.0 817.5 818.0 818.5 819.0 819.5 820.0 820.5 821.0 821.5 822.0 822.5 823.0 823.5 824.0 824.5 825.0 825.5 826.0 826.5 827.0 827.5 828.0 828.5 829.0 829.5 830.0 830.5 831.0 831.5 832.0 832.5 833.0 833.5 834.0 834.5 8										

NEW INFINITI G25

매력적인 입문차 인피니티가 G25를 출시했다. 4천만 원 초반대 세대로는 드물게 무려 7년이나 되는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 스포츠모드로 전환시켜줄 수 있고 직접 변속하는 맛이 풍선처럼 솟아나고 신기한 건, 차에 흠이 생겨도 스스로 복원하는 스크래치 얼트 페인트라는 걸로 등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 그게 가능한가? 우리 모두 물어보라 가자. 무엇이 있더라...



NEW INFINITI G25



제조사	가격	구형	구형												
BMW	5300	200	200	현대	5300	200	200	BMW	7600	200	200	현대	8050	200	200
현대	5800	200	200	현대	5800	200	200	현대	8100	200	200	현대	8150	200	200
현대	5900	200	200	현대	5900	200	200	현대	8200	200	200	현대	8250	200	200
현대	6000	200	200	현대	6000	200	200	현대	8300	200	200	현대	8350	200	200
현대	6100	200	200	현대	6100	200	200	현대	8400	200	200	현대	8450	200	200
현대	6200	200	200	현대	6200	200	200	현대	8500	200	200	현대	8550	200	200
현대	6300	200	200	현대	6300	200	200	현대	8600	200	200	현대	8650	200	200
현대	6400	200	200	현대	6400	200	200	현대	8700	200	200	현대	8750	200	200
현대	6500	200	200	현대	6500	200	200	현대	8800	200	200	현대	8850	200	200
현대	6600	200	200	현대	6600	200	200	현대	8900	200	200	현대	8950	200	200
현대	6700	200	200	현대	6700	200	200	현대	9000	200	200	현대	9050	200	200
현대	6800	200	200	현대	6800	200	200	현대	9100	200	200	현대	9150	200	200
현대	6900	200	200	현대	6900	200	200	현대	9200	200	200	현대	9250	200	200
현대	7000	200	200	현대	7000	200	200	현대	9300	200	200	현대	9350	200	200
현대	7100	200	200	현대	7100	200	200	현대	9400	200	200	현대	9450	200	200
현대	7200	200	200	현대	7200	200	200	현대	9500	200	200	현대	9550	200	200
현대	7300	200	200	현대	7300	200	200	현대	9600	200	200	현대	9650	200	200
현대	7400	200	200	현대	7400	200	200	현대	9700	200	200	현대	9750	200	200
현대	7500	200	200	현대	7500	200	200	현대	9800	200	200	현대	9850	200	200
현대	7600	200	200	현대	7600	200	200	현대	9900	200	200	현대	9950	200	200
현대	7700	200	200	현대	7700	200	200	현대	10000	200	200	현대	10050	200	200
현대	7800	200	200	현대	7800	200	200	현대	10100	200	200	현대	10150	200	200
현대	7900	200	200	현대	7900	200	200	현대	10200	200	200	현대	10250	200	200
현대	8000	200	200	현대	8000	200	200	현대	10300	200	200	현대	10350	200	200
현대	8100	200	200	현대	8100	200	200	현대	10400	200	200	현대	10450	200	200
현대	8200	200	200	현대	8200	200	200	현대	10500	200	200	현대	10550	200	200
현대	8300	200	200	현대	8300	200	200	현대	10600	200	200	현대	10650	200	200
현대	8400	200	200	현대	8400	200	200	현대	10700	200	200	현대	10750	200	200
현대	8500	200	200	현대	8500	200	200	현대	10800	200	200	현대	10850	200	200
현대	8600	200	200	현대	8600	200	200	현대	10900	200	200	현대	10950	200	200
현대	8700	200	200	현대	8700	200	200	현대	11000	200	200	현대	11050	200	200
현대	8800	200	200	현대	8800	200	200	현대	11100	200	200	현대	11150	200	200
현대	8900	200	200	현대	8900	200	200	현대	11200	200	200	현대	11250	200	200
현대	9000	200	200	현대	9000	200	200	현대	11300	200	200	현대	11350	200	200
현대	9100	200	200	현대	9100	200	200	현대	11400	200	200	현대	11450	200	200
현대	9200	200	200	현대	9200	200	200	현대	11500	200	200	현대	11550	200	200
현대	9300	200	200	현대	9300	200	200	현대	11600	200	200	현대	11650	200	200
현대	9400	200	200	현대	9400	200	200	현대	11700	200	200	현대	11750	200	200
현대	9500	200	200	현대	9500	200	200	현대	11800	200	200	현대	11850	200	200
현대	9600	200	200	현대	9600	200	200	현대	11900	200	200	현대	11950	200	200
현대	9700	200	200	현대	9700	200	200	현대	12000	200	200	현대	12050	200	200
현대	9800	200	200	현대	9800	200	200	현대	12100	200	200	현대	12150	200	200
현대	9900	200	200	현대	9900	200	200	현대	12200	200	200	현대	12250	200	200
현대	10000	200	200	현대	10000	200	200	현대	12300	200	200	현대	12350	200	200

2011년 태블릿 PC 대격돌!

아이패드도 태블릿 신세경을 맞봤다고? 그건 맛볼
기에 불과하다. 2011년 당신이 '부익' 을 외친 태블릿
제품이 한 트러플 쏟아질 테니까! **BY 김성민**

ALIEN GEAR

이런 게 돌연변이

뭐... 뭐야 이 녀석 변태 태블릿 같은데 멋있잖아!



SAMSUNG / SLIDING PC 7

상상과 MS가 손을 잡으니 이런 녀석이 탄생했다. 아이패드의 대항마임을 자처하는 이 녀석은 태블릿
과 노트북의 장점을 합했다. 10.1인치(1366×768 해상도)
태블릿처럼 사용하다가 역정을 밀어 올리면 키보드가 등장한다. 인텔 아톰 1.66GHz CPU를 탑재한
게 조금 아쉽지만 SSD 버퍼를 받는다 그런 것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이다. 운영체제로 윈도우 7을
사용하며 2GB RAM을 탑재한 이 녀석은 3월 중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699달러(약 84만 원)다.



RAZER / SWITCHBLADE

한디로 게임을 위한 모바일 PC다. 콘솔 게임의 모
바일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미우스와 키
보드 대신 정밀한 터치와 터치 스크린을 탑재하고 게
임 콘텐츠에 적합한 키 배제과 다양한 매크로(여러
개의 명령을 묶어 하나의 명령으로 만든 것) 기능으로
포함된 인터페이스를 갖춰 PC 게임을 즐기기에 충
족하다. 이제 휴대용 게이밍이 아닌 휴대용 게임 PC
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왔다. 통풍과 열발거림 또한
소식 아닌가

RIM / PLAYBOOK

아이폰에 맥을 못 추던 RIM이 삼성에게 태블릿 플래너를 내놓았다. 외관은 삼성의 태블릿 실험작
갤럭시 탭과 비슷하다. 7.1인치 액정에 전 후면 카메라를 탑재했고 플래너를 지원한다. 하지만 플래
너에 테고2대 대신 탑재된 RIM의 오렘 4430 CPU는 그래픽 가속과 CPU를 많이 쓰는 작업에 탁
월해 화상 통화와 3D 구현 능력이拔군이다. 모바일 사용자 4억 건의 700만 화질 화상 통화가 가
능할 정도다. 당시에 상사 3명과 함께 플레이북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말이지 웹 게이트가 열리
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로서 플레이북은 복본자 폰과 함께 진정한 노예화를 완성하는 태블릿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사 운영체제 QNX를 사용하며 1080p 동영상 재생과 HDMI 출력을 지원한다.

CHECK POINT

블랙베리의 운영체제는 쾌적한 편이었다. 플레이북의 운
영체제 QNX 역시 마찬가지다. 고화질 3D 게임과 슬라이드
쇼를 동시에 실행해도 버벅대지 않는다. 비즈니스 용
도로 최적화했다는 것도 장점.

플레이북에 들어가는 오렘 4430 CPU는 1GHz로 구동되
지만 유효 말 즙음에는 1.5GHz까지 클럭 스피드를 높일
예정이다. 외우!

이슈인 점?

배터리가 조기 퇴근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다. RIM사
는 이를 반박했지만 두껍은 열어야 하는 법 소문대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3시간 내외라면 그걸로 게임 셋이다.
자신의 운영체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앱 스토어, 구글 마켓
의 앱을 이용할 수 없다. 플레이북에 얼마나 많은 앱을 지
원할 수 있는지가 관건

이슈인 점?

8.9인치의 액정 1366×768의 변태스러운 해상도에 대
한 사람들의 호불호 생각보다 흠 집은 대가 별로 없다. 나
야봐야 일것지만 LG 스마트폰을 폭풍처럼 꺼낸 게 익숙
하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다.

CHECK POINT

8.9인치의 액정 1366×768의 변태스러운 해상도는 갤러
시 탭과 아이패드 사이에서 고민하던 사람을 속깃하게 만
드는 마력이 있다. 후면에 장착된 500만 화소의 카메라는
3D 촬영을 지원한다.

LG / OPTIMUS PAD

스마트폰 시장에서 LG는 한미다로 시, 땅이었다. 옵티머스 패드는 태블릿 시장에서만큼은 더는 것
을 먹지 않겠다는 LG의 강행 의의가 엿보이는 제품이다. 최근 태블릿의 트렌드를 충실히 반영해 엔비
디아의 테고2 CPU, 안드로이드 3.0 허클볼 전-후면 카메라를 장착했다. 액정 사이드에서 고상한
준치어 문어-는데 갤럭시 탭(7.1인치)과 아이패드(9.7인치)의 중간인 8.9인치(1366×768 해상도)를
채택해 틈새시장을 노렸다. HDMI 출력 역시 문제였다. 일본의 통신사 도코모는 아이패드의 대항마
로 LG 옵티머스 패드를 피트-로 경쟁을 만들 원상대로 관중(아이패드보다 무게가 110g 정도 가볍
다) 였으니 LG 태블릿은 꽤 하찮아!



MOTOROLA / XOOM

이 녀석 CES 2011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 어디 하나 흠집을 데가 없이 완벽했다. 이놈을 보고 나면 아이폰이 1세대(1024×768)의 답답한 해상도는 눈에도 안 찰 거다. 안드로이드 3.0 허니콤 태블릿 전용 운영체제를 끼얹었고, 대대적인 엔비디아의 테그라2 듀얼코어 CPU도 탑재했다. 그로 인해서 적절한 1200×800 해상도의 10.1인치 액정은 듀얼코어 CPU의 힘을 빌려 1080p 동영상 재생도 끄떡없는 데다 배젤이 없어 다른 태블릿보다 화면이 훨씬 큼직하게 활용된다. 전용 Dock을 사용하면 TV로 HDMI를 출력하는 일도 간편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도 손쉽게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화상 통화를 지원하며, 5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는 720p 동영상 촬영과 편집도 가능하다.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예후,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한가?

CHECK POINT

우리 나라에 정식 발매하는 제품이니 구매 대행이라는 귀찮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태블릿에 최적화된 하나-님을 탑재해 3D 버전 구구대답은 물론 언제 어디서든 책,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구글 모바일 이노베이션 서비스를 접속 가능하다.
내장 메모리가 32GB로 넉넉한 데다 비디오 재생 시간은 10시간에 달한다. 이놈 하나-면 당시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온종일 아동을 감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쉬운 점?

충사더라면 아직 멀었다.
굳이 찾자면 배젤이 없어 잡기에 살짝 불편할지도 모른다.

단점?

12인치라는 크기는 휴대하기 민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탑재된 i5-470M CPU는 백다리의 조기 퇴근 가능성을 높인다. 아수스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해본 적이 있나? 중고가방이 따윈 가려지지 마라.

CHECK POINT

외곽에 주목할 것 당시에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다면 외곽을 모를 순 없을 거다. 최상의 필기감을 자랑하는 외곽 디지털이 자리나 저자식 태블릿답지 않은 고사양 이 정도면 집에 굴러다니는 당신의 서브 노트북은 장타행 예약

ASUS / EEE SLATE EP121

이 녀석은 태블릿이라기 보다는 노트북의 키보드를 날려버리고 액정만 남겨둔 것처럼 보인다. 12인치(1200×800 해상도)라는 거대한 사이즈, 1.16kg이라는 무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지도 모른다. 대신 이슬레이트 EP 121은 인텔의 i5-470M CPU에 2GB 또는 4GB RAM, 32~64GB SSD를 장착해 태블릿은 물론 어지간한 12인치 노트북을 압살할 정도의 성능을 가졌다. 운영체제도 태블릿스러운 하나-림이 아니라 윈도우7을 사용한다. 그러면 일반 노트북과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무슨 심심한 말쑤. 이 큼직한 액정에는 전자유도식 외곽 디지털이자가 박혀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놈을 태블릿으로 격하게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다. 200만 화소 카메라, mini HDMI 출력을 덤이다.

아이패드2가
쟁이리능!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듀얼코어 CPU를 탑재하는 이유?

듀얼코어 CPU가 멀티태스킹 및 각종 앱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멀티스레딩 응용 프로그램의 다중차과 작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듀얼코어 CPU는 여러 가지 앱을 두 개의 코어가 나눠 실행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러한 듀얼코어 CPU를 사용할 수밖에



테그라2가 뭔데?

엔비디아에서 만든 듀얼코어 모바일 CPU다. 3D 그래픽 처리 능력과 배터리 수명을 강화했다. 여기에 1080p 동영상 재생을 비롯해 어도비 플래시 10.1 가속을 지원한다. 3D 유전 인텔리시스를 지원하며, 저전력 CPU로서 HD 비디오 파일을 최대 16시간, 음악은 140여 시간을 플레이할 수 있다.

[내 손에 가까운 터치스크린]

옛날 옛적 터치스크린은 그저 기기에서 출력되는 화면만 보여줬다. 하지만 이제 터치스크린은 순간 살짝 갖다 대면 기기가 응징 반응하는 똑똑한 놀이로 변신했다. 공돌이가 그동안 피동 싸며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라! BY 김성현

정전식 시스템

손에 흐르는 정전기에 반응하는 터치스크린 한 마디로 내가 장갑을 끼는 순간 조작성 불가능해지는 천하장사나 맥스웰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 터치스크린이다. 반응성이 좋아 유저가 기기를 조작하기 편리하고, 스크롤이 부드러운 데다 멀티터치가 가능해 재미있는 앱을 만들기도 좋다.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사용한 스마트폰 중 가장 쾌적한 건 이어나저라니 해도 역시 아이폰이다. 보따리 장사꾼처럼 행동하는 애플 코리아가 쾌범하자란 인정할 건 인정해주겠다.



정전식 터치스크린은 여러 장의 층이 겹쳐 있다. 안쪽 층은 바깥에서 전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효과적인 터치스크린은 보통 절연체와 분리된 두 개의 전도체로 구성된다. 터치스크린의 네 모서리에 센서가 부착되며 유리 표면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전하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터치 지점을 인식한다. 그래서 터치스크린은 멀티터치 지점 이상을 동시에 인식 가능하다. 터치스크린에 손을 갖다 대면 손가락의 전하량 때문에 터치스크린의 원래 전하량이 달라지면서 터치 지점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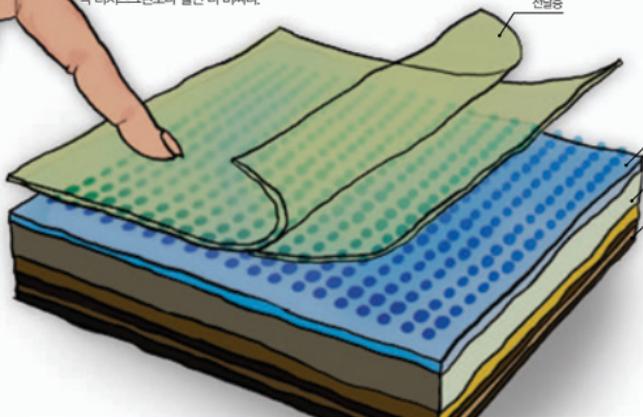
당신 손은 공기 속에서 각각 다른 전하량을 갖는다. 그래서 터치스크린을 터치하면 손을 댄 곳과 안 댄 곳의 전하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 터치 지점을 인식한다.

감압식 시스템

감압식 터치스크린은 가격이 싸고 효율적이다. 이는 한 번에 한 번만 패진 입자만 한 지점만 인식한다. 섬세한 입력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강하게 누르면 인식하지 못한다. 압력을 전달해야 하므로 터치할 때 손가락이 아닌 스타일러스 펜을 여지없이 긴 손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감압식 터치스크린의 가장 큰 장점은 액정의 빛을 90% 이상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에서 한결 만족스럽다는 데 있다. 정전식 터치스크린도 이것이 가능하지만 감압식 터치스크린보다 훨씬 더 비싸다.



감압식 터치스크린도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중간에 전도층이 있다. 2개의 층이 공기층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는데 화면을 누를 때 이것이 맞닿으면서 터치를 인식한다. 꼭 눌러줄 스타일러스 펜이 필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압력으로 터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거울에 장갑을 끼어도 아무 문제 없이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압식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데 익숙했던 여성 유저들은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시되었을 때 손톱으로 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노하기도 했다.



전달력 있는 전도층
유리 기판
LCD 층

터치의 극한 압프레스

이 녀석 당시 물들어만큼이나 민감한 걸

부드러운 친을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임프레스는 묵직한 홈과 압력 인식 센서를 탑재했다. 터치와 압력의 차이에 따라 유저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건 물론이고, 표면을 압력으로 다듬거나 디스플레이 표면을 눌러 줌을 감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하냐고? 당시이 층해보는 아동을 이것으로 본다고 생각해라. 눈앞에 펼쳐진 그녀의 가위를 움켜쥐는 쾌감을 맛볼 수 있다는 거다. 짜임!



DISPLAY MASTER

삼성전자의 4.5인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네가 딱 원하는.

상성 모바일이 4.5인치 플렉서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800x480 해상도)를 공개했다. 이는 유리 대신 플라스틱을 디스플레이 재료로 사용한 게 특징이다. 기존에 플라스틱 재료는 400°C가 넘는 제작 공정에서 파손되기 일쑤라 상업화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발전이다. 한마디로 이 기술이 나오면 '참~ 획' 위는 디스플레이를 지금 당장 인식하진 못해도, 플라스틱 재질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개 게 만드는 건 물론이고 유리보다 훨씬 내구성이 좋아진다. 이리나 삼성전자를 디스플레이계의 골판지라고 고 불부 수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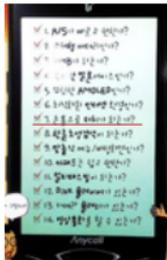
엑스페리아 X10

멀티터치가 뭐임?

소니 에릭슨은 그동안 X10의 멀티터치 지원은 불가능하고 영상을 피웠지만 거머되는 유저의 요청에 박기를 들고 결국 올해 말까지 제한적 멀티터치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수도 추가됐다. 풀가이 소니 에릭슨은 '엑스페리아 X10'에 안드로이드 버전 2.2 프로로 따르는 없다는 공식 발표를 꺼내놓았다. 이리나 이걸 남들은 2.3 인터프리트를 올리는 만큼은 2.2 버전으로 그냥 만족하러나 해드라도 나무랄라

옵니아2

말이 필요 없다. 당시 광고도 대신한다.



벡서스원

멀티터치도 오류!

구글의 레퍼런스폰 3세대인 벡서스원도 멀티터치 오류 때문에 욕을 먹었다. 아이폰에 대항할 세우는 녀석이 멀티터치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멀티터치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들었을 때 왼쪽으로 돌아가는 악주행 모드도 종종 선보였다. 벡서스원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레퍼런스폰이라 아쉬움이 있다.



WWW.MAXIMKOREA.NET

MAXIM DIGITAL CONTENTS



- * 2권 이상 무료 배송
- * 배송비 함께 기준 인터넷 최저가

MAXIM을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 말고 maximkorea.net으로 오세요!

그대가 진정 MAXIM의 매니아라면
www.maximkorea.net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MAXIM HIGH QUALITY
고화질 화보를 소장하라!



누네 집에 어거 없자?

수시로 터지는 홈레이저
이벤트와 마구마구
쏟아지는 선물 세례



시시한 자연풍경 비경화면 때문 개나 줘라.
MAXIM 캘린더 다운로드



잡지 책에선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 컷과 기사 감상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무료 공개



연예인보다 섹시한
MAXIM 여성 독자
모델들의 화보
풀 버전 감상





MY NAME IS YOZOH ♡

품절된 홍대 여성 요조가 MAXIM을 방문했다. 그녀의 팬이라면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말 것. 계승초래한 눈부터 빨리 뜨란 소리대.

BY 고정희 WORDS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고정영 MAKE-UP 조희나/에스테디 02-546-7787 FILM 김진욱
ASSISTANT 김희성 COOPERATION 유희가네/02-546-7764



촬영장
참여하기

몸집이 된 후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인간관계.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보면 깊어진 건지도 모르겠다.

싱글 음반의 곡 제목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조금만 더 가까이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내 하나같이 솔로의 가슴을 후벼 판다.

앞선 2곡은 김종권 감독의 영화 <조금만 더 가까이>에 삽입됐다. 영화 개봉에 맞춰 그동안 작업한 곡 중 하나를 음반에 추가하고 싶었고, 그게 바로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다. 2009년 처절한 솔로였던 시절 만든 곡이라 외로운 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리라 확신했는데 본의 아니게 연애 중이라 그렇지 못했다.

이번 음반은 예전처럼 밀랑밀랑하지 않아서 장필순의 음반을 듣는 느낌이 들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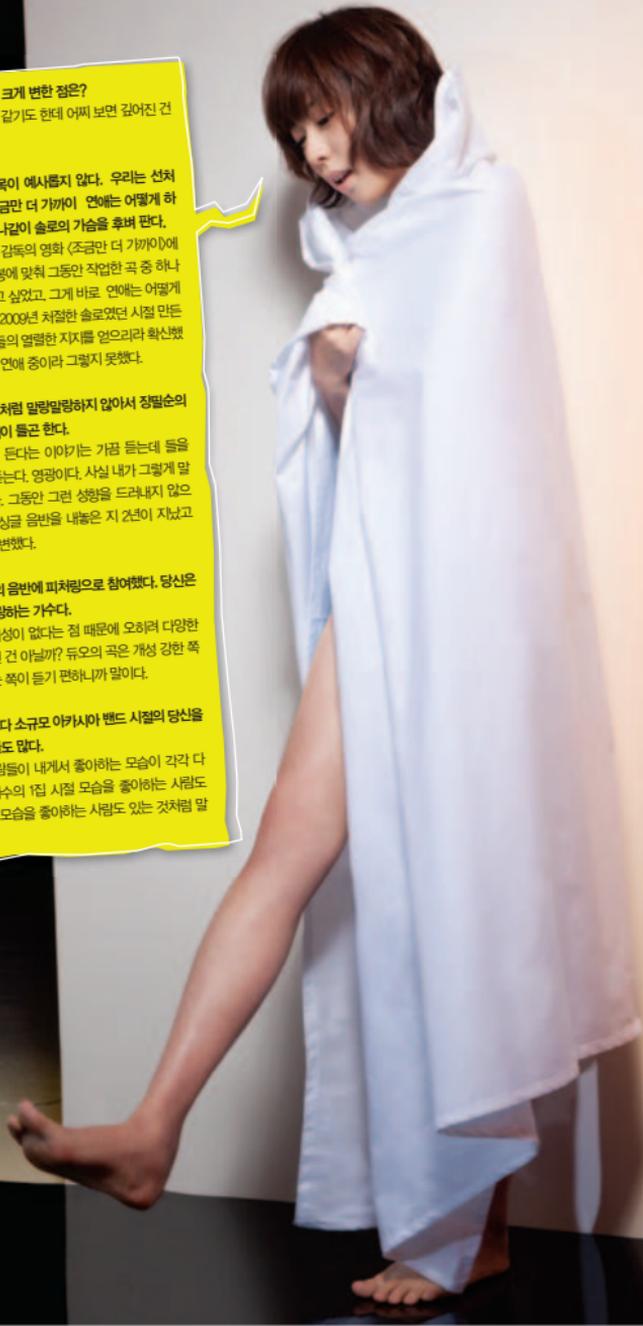
장필순의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는 가끔 듣는데 들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영광이다. 사실 내가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다. 그동안 그런 상황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싱글 음반을 내놓은 지 2년이 지났고 이제 나도 많이 변했다.

다양한 가수들의 음반에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당신은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가수다.

내 목소리가 개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곡을 부르게 된 건 아닐까? 듀오의 곡은 개성 강한 쪽보다 부담 없는 쪽이 편하니까 말이다.

솔로인 지금보다 소규모 아카사미 밴드 시절의 당신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다.

당연하다. 사람들이 내게서 좋아하는 모습이 각각 다를 테니까. 가수의 1집 시절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외이모 서조
김피가태남
대금 조조
에디터 소창





뛰어난 보컬리스트라기보다 타고난 음색이 빼어난 멜로 디어스타드.

어감이 참 마음에 든다. 멜로디어스타드 라니 감사하다.

이번에 달빛요정전환루츨렌(이하 이진원)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에게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되나? 이 부분은 너무 조심스러운 문제라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죽음은 나뿐 아니라 흥대에서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라면 누구도 그냥 남길 수 없다.

영화 <조금 더 가까이> (7페스티벌) 출연은 물론 자살 파 라디오 (요조의 히트트랙)의 DJ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가수 외의 활동에도 관심이 많았나?

나는 아량이 큰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다. 나 역시 이번 음반을 내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저것 참았구나.' 하고 새삼 놀랐다. 지난 2년 동안 회사에서 그런 쉬고 음반을 내야 한다고 말하기에 마냥 눈 흘만 일었다.

하지만 DJ로서 당신의 매력은 성시경을 가볍게 뛰어넘을 정도다.

성시경의 방송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칭찬인지 비판인지 잘 모르겠다. 고작 성시경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는 건가? 아니면 성시경도 뛰어넘을 만큼 대단하다는 건가? 어떠한 디제이는 정말 재미있다. 부스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다. 언제까지 디제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온 힘을 다해 '따뜻한' 디제이가 되고 싶다.

이제 남은 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다. (라디오 스타)같이 이 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재미있겠다.

절대로 안 나간다. 음예 프로그램을 포함해 몇몇 방송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TV와 잘 안 맞는다. 예능감도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MAXIM 독자에게 밸런타인테이에 피해야 할 선물을 조언해준다면?

안으로 승부하려고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은 절대 금자대!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파스텔 유직

요즈음 2년 만에 내놓은 싱글 음반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은 달콤한 목소리로 귀가를 간절하던 이전 음반과 사뭇 다르다. 담백하고 차분함을 넘어 다소 건조하기까지 한 목소리는 내 이 몸은 요조라고 외치면 그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 이번 음반에서 실면서 맺은 모든 인간관계만 아차마 평평한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읊조리는 그녀는 달콤하지만은 않은 자신의 정서를 솔직히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기존 팬이라면 그녀 의 변한 모습이 낯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흥대 역시이라는 타이틀이 구매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음악을 선택한 요조의 매력을 다시금 알아차리려한다. 그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타이틀곡은 연인 이상성과 함께 부른 우리는 선처럼 가만히 누워.

DUELING

용장(勇將)계의 끝판왕: 듀롱

"용감한 조종사도 있고, 늙은 조종사도 있지만 용감한 늙은 조종사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용감한 사람일수록 황천길 선착순에 1등 먹을 확률이 높다 는 얘기다. 여기 용감함에서만큼은 톱대라든 서러울 한 남자가 있으니 그의 생은 어떨을까? WORDS BY NASICA

• 들어가는 말 •

전쟁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감하게 싸우는 병사를 기다리는 건 비참한 죽음뿐일까? 나폴레옹의 부하 안은 뽀스 사다리를 타고 적의 상륙을 기어오를 정도로 용감했지만 아스 페른-에슬링 전투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전사했다. 그에 반해 용장이었지만 이탈리아에서 치른 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후 양전해진 솔트(Soul)는 나폴레옹 패위 이후에도 프랑스 총리를 3번이나 역임하며 1851년까지 천수를 온전히 누리고 죽었다. 역시 군대에서는 용기 따위 반납하고 자신의 인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일까?



용감한 조종사는 이렇게 늙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용장계의 압도적 카리스마!

나폴레옹 전쟁 당시 수많은 용장 중에에도 단연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듀롱 소령이다.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하면 영국군에 빌려 포르투갈에서 철수하다 적들에게 썩 싸 먹힐 위기에 처한 프랑스군을 구해냈을 정도다. 구라 아니냐고? 속고만 살았나! 듀롱은 엄연히 실존 인물이고 지금까지도 말하는 사건들도 모두 레알 실재로 있었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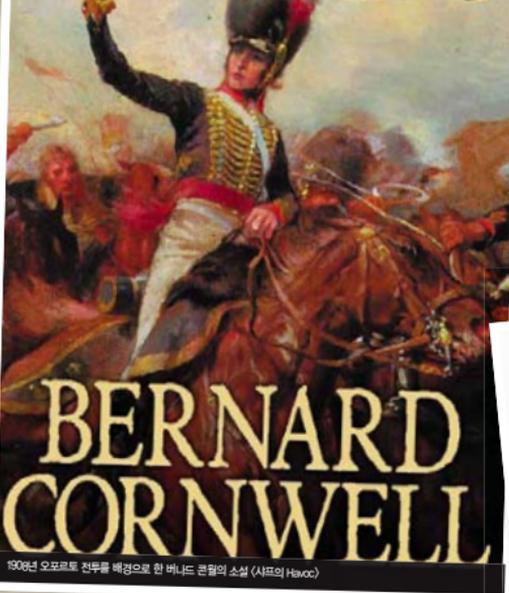
푸엔토 누에보를 탈환하라!

1809년 솔트 원수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포르투갈을 침공했다. 웰링턴 공작의 영국군에 달린 후 추퇴중이었다. 영국군의 추격이 탁일까지 이어지자 프랑스군은 허겁지겁 산길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프랑스군은 가지고 있던 짐은 물론 대포까지 썩 다 내다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간 프랑스군의 약탈에 백이 돈 포르투갈 민간인에게 학살 당할 게 눈에 보이는 부상병도 불하게 버렸다. 군 지금까지도 가져간 은화까지 병사들에게 나눠준 정도로 상황은 최악이었다.



1809년 오포르토(Oporto) 전투를 2009년도에 재현했다. 이런 행사만큼은 인류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관광객들이지.

HAVOC



1908년 오포르토 전투를 배경으로 한 버나드 콘웰의 소설 (시리즈 Havoc)

절체절명의 위기!

갈 길 바뀐 프랑스군이 스페인으로 퇴각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포르투갈의 '푸엔토 누에보'라는 이름의 다리에 도착했을 때 숲트 원수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다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달랑 두 개의 대들보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군은 포르투갈 민병대에 다리를 완전히 끊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리를 파괴해줬자 영국군이 새로 만들어 줄 리 만무했고,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중세 때 지은 유서 깊은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면 당장 그 일대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것이 뻔하니 다리의 윗면(나무 널빤지)만 뜯어냈다. 사실 푸엔토 누에보는 폭이 90cm 정도의 대들보 2개만 나란히 놓인 좁은 다리였기에 100명 남짓한 포르투갈 민병대로도 지키기 충분했다. 게다가 바까지 내려 대들보가 무척 미끄러워 프랑스군이 다리를 건너는 일은 쉽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영국군의 척후 기병대가 프랑스군 후미에서 목격된 상황이었기에 하루라도 이 다리에 발이 묶이면 프랑스군은 항복하거나 옥쇄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습 상황이었다.

용자 듀롱 호출!

자칫하다간 끝로 갈 것 같은 불안함에 사로잡힌 솔트 원수는 제2군단에서 가장 용감한 사나이, 루아에티엔 듀롱 소령을 호출했다. 솔트는 듀롱 소령에게 100명의 선발된 척탄병을 맡기며 밤이 깊어지면 다리를 탈취해달라고 부탁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듀롱은 단 12명의 척탄병을 이끌고 침묵 속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다행히 비바람이 부는 날씨 덕분에 듀롱이 입구에 선 보초병을 검으로 해치우는 소리도, 척탄병 중 1명이 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까지는 비명 소리로 적에게 들리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다리를 건너 듀롱 일행은 움막에서 비바람을 피하던 민병대를 급습했고, 프랑스군이 때로 넘어 온 거라 착각한 그들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흩어져 도주했다. 듀롱이 다리를 점수할 수 있었던 건 포르투갈 민병대의 삼질도 현혹했지만 결과적으로 듀롱은 솔트의 프랑스 제2군단 전체를 구한 셈이었다. 그날 밤 듀롱 일행은 다리를 즉시 수리했고, 프랑스군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 이에 솔트는 듀롱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레종 도노르 훈장을 떼어 듀롱의 가슴에 달아줬다.

이번에는 푸엔토 미세렐라!

다리를 건너 신하던 것도 잠시 프랑스군은 푸엔토 미세렐라 다리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다. 로마시대에 세운 '푸엔토 미세렐라'라는 이름의 다리에는 듀롱에게 털린 전날 밤보다 몇 배나 많은 수백 명의 포르투갈 민병대가 가시덤불 바리케이트를 구축한 후 지키고 있었다. 날씨별도 안 밝혀져서 프랑스군이 도착했을 땐 내뿜어었고, 가슴을 위해 발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그러자 용자 듀롱은 다시 한번 결사대를 이끄는 선봉장으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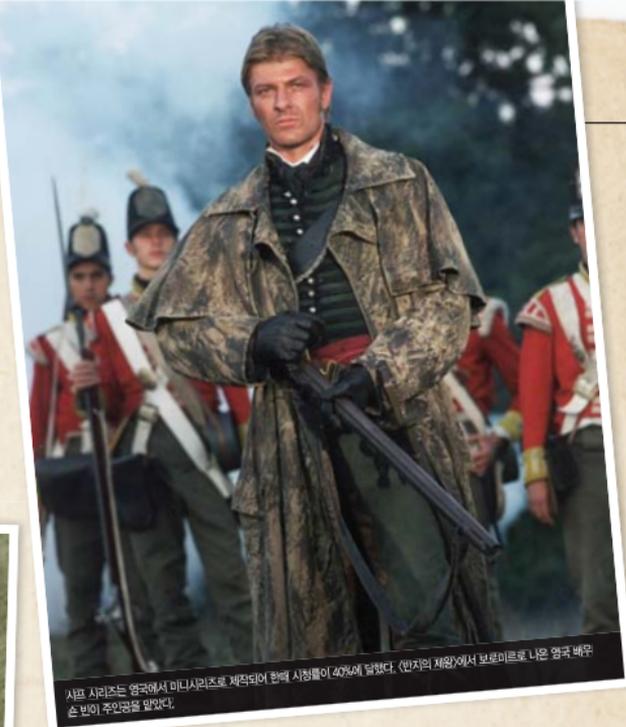
유명한 선발 대회를 원하던 이들은 도망갔을 듀롱의 초상화. 엘그르라는 화가의 작품이다. 유명한 시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겠지.

듀롱 결사대의 미친 존재감!

버나드 콘월은 소설에서 "듀롱이 늙은 다리 위에서 선두로 돌격하다가 가슴에 비탄구멍이 나 입에 피가품을 뿜으면서도 기사덤불을 걷어내 병사 한 명이 통과할 만한 틈을 만들었다"고 묘사했다. 하지만 이 작은 틈이 프랑스 제2군단을 구하면 충분할 크기였다든가 그럴듯한 드립도 있지 않았다. 이 전투에 관한 이야기는 본분헌데 듀롱이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쓰러진 그를 이송하기 위해 사단장이 직접 들 것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그가 속한 연대의 척탄병이 지원했다는 설도 있다. 어쨌든 유명한 크리스티 경매에서 듀롱 장군 초상화가 1997년 5월 22일에 \$1,662,500(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30억 원쯤)에 팔렸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푸엔토 미세렐라 다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소령에서 장군으로 승진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솔트는 웰링턴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했지만 전하지 않았다. 이것도 재주에 수십 년이 지나 한 파리 자리에 프랑스 대신으로 향하던 솔트의 뒤에 몰래 접근한 웰링턴이 "이제야 왔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했다. 솔트 자택에!



사프 리프는 영국에서 미니스카프론로 제작되어 원래 시침률이 40%에 달했다. (원자의 재앙에서 보보이르로 나온 영국 배우 스티브 주잉을 봤다.)

외팔이어도 관참아!

듀롱은 위의 두 사건으로 도드라졌을 뿐 이전에도 용감하기로 유명했다. 1800~1807년 사이 이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한 그는 아우스테를리츠 전투 때 당한 부상으로 평생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런 몸으로 솔트의 제2군단을 구하기 위해 그는 왼손에 검을 들고 다리를 넘어 돌격했다. 한쪽 팔이 아장 난 남자에게 결사대의 지휘를 2번이나 맡길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용맹한 남자인지 짐작할 수 있었겠지? 그는 주체하지 못하는 이놈의 용감함 때문에 몸 3군데에 큰 상처를 새겼고 그 고통은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족쇄가 됐다. 물론 그중 하나는 푸엔테 미세렐라에서 생긴 상처였다.

나폴레옹의 경호 대원 그리고 부르봉 왕가

1813년 그는 마지막으로 봉해지며 장군으로 업그레이드되었는데, 이때 나폴레옹의 개인 경호 대원으로 복무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부상해 불구가 된 사람을 보는 것이 불편했는지 주변에 영구적인 부상을 당한 병사나 장군을 두는 걸 싫어했다. 듀롱은 무척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다. 이 고참 장교의 용기를 나폴레옹이 얼마나 높게 샀는지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듀롱 장군은 1815년 나폴레옹의 백일천하 때, 나폴레옹을 따르지 않고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를 섬기는 것을 택했다. 부르봉 왕가는 군 장교의 인심을 얻으려고 안달하던 상태여서 듀롱 장군처럼 유명한 이들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듀롱은 백작 지위에, 루이 18세 개인 경호대의 부지휘관 자리까지 획득했다. 나중에 사를 10세의 즉위식에도 참여하며 왕실 인사로 인정받을 정도로 출세 가도를 달렸지만 용감한 군인의 최후는 역시나 행복하지 않았다. 1828년 그는 자살을 선택했는데, 전투 때 얻은 부상이 주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였다. 그때 나이가 불과 48세였으니 용감한 늙은 군인이라고 하거면 너무 나은 나이였다.





BASEBALL GODDESS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 **송지선, 김민아**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프로야구 매니저>의 부메 니저이자 프로야구 팬에게는 김태희와도 바꿀 수 없는 완전 소중한 그녀들 송지선, 김민아 아나운 서가 MAXIM에 강림했다. 두산 롯데 팬들은 일단 MAXIM에 감사 인사부터 하라!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경희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FILM 김민아 ASSISTANT 김혜정

COOPERATIONS 피파아, 콜럼비아, 폴스미스, 갤러리아몰렉
(02-546-7764) 슈츠엔(02-3443-1703) 게스 진 게스 슈츠(02-516-5211)
7101(02-3447-1036) 모로시어, 키사(02-3446-9948) 오트에스엔(02-
3444-772) 크레드칼바인, 알리(02-3447-7701) 네포스(02-413-2973)

지선(좌)
꽃무늬 두브름 원피스 피파아
호피 무늬 구두 에디터 소장

민아(우)
호피 무늬 두브름 원피스 피파아
빨간색 구두 키사

김민아
 김민아의 프로야구 클럽인오리온
 기동 스포츠팀 시계 디자인지 원치 by 갤러리아몰라
 스포츠팀 슈즈 슈즈점



〈프로야구 매니저〉라는 게임을 모르는 독자도 있을
 거다. 게임에서 본인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송지선&김민아 〈프로야구 매니저〉는 국내 최초의
 프로야구단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다른 게임
 처럼 직접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구단주가 되어 구
 단을 운영 하기 때문에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도 쉽게 즐길 수 있다. 프로야구 팬이라면 한 번쯤
 좋아하는 팀의 구단주가 되는 상상을 해본 하는데
 그 꿈을 실현하게 해준다고나 할까? 우리는 게임에
 서 부매니저로 등장해 유저가 팀을 운영하는 데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타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아닌 본인 등이 선택된 이
 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송지선(이하 송) 아나운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엔트리의 촉과 의견
 을 충분히 교환하며 합의점을 찾았고, 지금은 〈프로
 야구 매니저〉를 신뢰하고 있다. 우리를 선택한 건
 지난 시즌 MBC Sports+의 〈베이스볼 투나잇 야
 (野)〉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닐까? 좋
 은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가 덕을 본 것 같다.

〈프로야구 매니저〉에서 부매니저 섭외를 받았을
 때 흔쾌히 응했나?

송 처음엔 많이 부담스러웠다. 고만개도 회사(MBC
 Sports+)는 우리가 직접 좋은 선택을 하기를 기다려
 줬다. 생각보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할 일이다.

김민아(이하 김) 〈베이스볼 투나잇 야〉가 먼저 〈프
 로야구 매니저〉와 계약을 했다. 덕분에 MCO(던
 우리)가 부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었다. 회사도 프로
 그램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기
 에 지금은 협조적이다.

Kim, Min-Ah



Song, Ji-Sun

DOOSAN
BEA

지선
최세 정이스 피파이
사계 톱스타스 워치 by 걸러리얼뮤직



**실제로 (프로야구 매니저)를 종종 즐긴다고 들었다.
평소에도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곤 했어?**

송 게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야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야구 관련 게임은 직접 해봤다. 그런데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건 쉽지 않더라(웃음). (프로야구 매니저)는 프로야구 팬이 구단주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강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은 (프로야구 매니저)가 처음이다. 선수를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는 게임이라서 변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 좋은 선수를 갖고 있어도 코스트 제한 때문에 마음대로 모든 선수를 쓸 순 없다. 머리를 짜내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는 즐거움이 있는 게임이다. 그 외에도 신경을 써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기서 모두 이야기하기 어렵다.

게임에서 자신만의 팀에 대해서 간단히 자랑해달라. 특징만 말해줘도 괜찮다.

송 지금은 자랑할 게 없다. 차분히 실력을 쌓아 더 좋은 팀으로 만드는 수밖에(웃음).

강 미안하지만 내가 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밝히면 선호 구단을 알게 되니 곤란하다.

<프로야구 매니저>와 경쟁 게임 (마구마구)를 비교한다면?

송 (프로야구 매니저)는 운영, (마구마구)는 플레이가 추가 되는 게임이다. 전혀 다른 게임이라 생각한다.

강 여성 게이머는 게임을 조작하는 데 부담을 가지는 게 사실이다. (프로야구 매니저)는 타이밍을 못 맞춰도 컨트롤을 못해도 되니까 한걸 걸근하기 편하다. 조금 시간을 투자해 머리를 쓰면 되는 게임이니까 말이다.

<프로야구 매니저>의 아이디어가 궁금하다. 살짝 귀담어달라.

송 아직 창피해서 밝히기가 어렵다(웃음).

강 게임 안에서라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내버려둬달라(웃음). 아마 절대 맞지 못할 것이다.

게임 유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송 송지선, 김민이의 조언과 함께하세요. 꼭

강 곧 부메이저로 판니 하고 등장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하는 선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Giants

민아
원색 셔츠블라우스 게스 친
주황색 스커트 모조스핀
빨간색 구두 키사
시계 디테일 워치 by 갤러리아몰락

야구 팬들은 당신들을 프로야구의 여신이라 부른다. 야구 중계는 안 봐도 <베이스볼 투니잇 야>를 챙겨보는 야구 팬은 많을 정도다.

송: 야구 팬이라도 시즌 전 강의를 볼 수 없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베이스볼 투니잇 야>를 보면 그날 경기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김: 여신이 아니라 여전사다. 여신이라 불리려면 선수들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다웃음. 우리는 레드 카펫이 아닌 흙 위에서 신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땀을 흘릴 때도 잤다. 야구가 시작되면 우리는 언제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이다.

구름 깊은 팬층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송: 내 생일에 플래카드를 들고 경기장에 온 팬들. 짐작 나는 그날 방송이 없었는데 나중에 경기 화면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무한 감동을 받는다!

김: 플래카드를 써서 오는 분들도 있다. 고맙지만 아직은 아껴써서인지 팬들의 그런 반응이 썩스럽다.

팬들(에디터 포함)은 당신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안다. 너도 물론 그렇게 믿고 있다.

송: 그걸 리가! 매일 밤 치맥의 유혹에 흔들려 다음 날 통통 부은 얼굴로 일어나 어제의 자신을 자책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다.

김: 과찬이다.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주목된다 보니 연예인처럼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우리 그냥 회사원이다. 그러므로 화장실도 잘 가고 밥도 많이 먹는다.

스포츠 아나운서, 그것도 야구에 특화된 아나운서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송: 팬들은 우리가 야구만 하는 줄 안다. MBC Sports는 야구 전문 채널이 아니다. 농구장에서 인터뷰하기도 하고 마라톤, 포켓볼처럼 다른 종목의 중계를 맡기도 한다. 우리는 야구 아나운서가 아닌 스포츠 채널의 아나운서다.

김: 회사에서 일하면 다양한 중목을 해야 한다. 지금은 농구를 맡고 있다. 간간히 마라톤 중계도 하고 어제는 포켓볼 중계도 했다. 야구에 특화된 건 아니데 야구는 많은 사람이 보는 스포츠다 보니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다. 누군가는 야구에만 특화 시키라고 하고, 누군가는 전 중목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한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으므로 천천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지선
원작 블리우즈 광고
감독제 하이패스트 스키트와
호피 무티 구두 에디션 소장

예전에 촬영한 (이러나) 화보가 이슈였다.

송: 개인적으로 예쁜 사진을 갖게 되어 좋았다. 평소 에 도전하기 쉽지 않은 스타일로 변신하는 건 여자로 서 즐거운 일이다. MAXM 화보도 즐겁게 촬영했다.

김: 맘에 드는 화보다. 처음 촬영한 화보라서 당시에는 겁이 많이 났다. 회사 이미지에 누가 유폐바 사진을 고르는 데 한참을 고민했다. 그때 3월 김석류, 송지선, 김민아의 촬영 날짜가 각각 달라서 먼저 촬영한 사람이 전화하며 일일이 보고했다. 화보 걱정 때문에 한 달 동안 잠도 편히 못 잤다. 막상 잡지가 나오자 의외로 반응이 뜨겁더라. 그때 서로 회사에서 괜찮은지 안부를 묻기도 했다(웃음).

MAXM 화보 촬영 소감은? 아마 MAXM이란 말을 듣자마자 걱정이 앞섰을 거다.

송: 사실 그랬다. MAXM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 선입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화보들을 보고 마음을 놓았대(기). 촬영장에서는 정말 즐거웠다. 화보 촬영 때마다 포즈를 연출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꼈다. 나는 어차피 몸매도 아름답지만(웃음) 모델은 몸매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란 생각을 이번에도 했다.

김: (이러나) 화보 때보다 조금 더 걱정하고 놀랐다. 그런데 이례나에서 친해진 에디터분이 추천해줬다. MAXM에서 사진 잘 찍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더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스튜디오를 찾았는데 촬영 분위기가 지금까지 촬영 중 가장 좋았다. 포토그래퍼를 맡기로 했으니 결과가 좋을 바란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베이스볼 투너잇 야)와 경쟁 프로그램 (아이리브 베이스볼)의 차이점은?

송: 하이라이트만으로도 그날 경기의 스토리까지 따라갈 수 있다. 실황 중계가 아니라 결과가 알려진 경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보니 상황 묘사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선수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끌어내려는 노력도 많이 한다. 경기 외적인 모습에겐 팬들에게는 더욱 신선한 모습처럼 느껴질 거다. 이 장면을 위해 우리는 경기 3~4시간 전에 선수들이 연습하는 현장을 직접 찾는다. 길로 보이는 이미지 역시 세련됨을 추구한다. 라디오가 아닌 이상 비주얼적인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니까 말이다.

김: (베이스볼 투너잇 야)는 하이라이트 편집이 아니라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특정 위주의 편집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대로 편집하기 때문에 장수가 벌어진 이후 발생한 무의미한 특징은 편집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하는 물론 경력도 마찬가지다.

그녀들이 말하는 2011년 프로야구의 주목할 포인트!

송 감독이 바뀐 롯데와 삼성은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될까? 다른 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SK에 맞설 팀으로 어떤 팀이 떠오를까? LG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강 SK의 상승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인바 평가가 많다. 8개 구단을 언급하는 건 아직 심부름 판이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야구에 무지한 여친구를 야구 전문가로 만들려면?

송 일단 야구에 관한 어려운 얘기를 하지 마라. 어려운 얘기부터 들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리 없다. 야구장의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 앉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자 투자라고 생각하자. 이전 비말인데 2011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야구에 관한 좋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 거다. 기다려달라.
강 야구의 매력은 야구에서 찾아야 한다. 야구는 몸을 알아야 재미있다. 최근 지인에게 〈원아웃〉이라는 영화를 추천받았는데 재미있더라. 여자 친구도 읽다 보면 6-4-3 더블플레이나 사이클링 히트, 서클체인지업 같은 용어가 입에 달라붙을 거다.

당신에게 K리그란?

송 아직 인연이 없었다. 언제든 프로야구만 금 인기를 끌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췄다. 야구와 함께 인기가 온다면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거라 생각한다. 두 리그가 동시에 인기를 얻는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프로스포츠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강 2선 전 1년 동안 K리그를 따라다녔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고 방송한 곳이다!



프로야구 매니저
ONLINE

Giants



민아
유니폼 네포스
주름 스킨트 에디터 소장
구두 가이아

지선
유니폼 네포스
잇앤즈 에디터 소장
구두 게스 슈즈

MAXIM 독자에게 한마디!

송&강 친근하게 응대성 있는 시각으로 저희를 지켜봐주세요. 저희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고,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의 응원에서 나온답니다. 다음 시즌도 김민아, 송지선과 함께해주세요! 2011년도 <베이스볼 투나잇 야영>





여스들의인사

지선

검정색 상의 에디터 소장

목걸이 오프시아

가죽 재킷과 원츠와

검정색 에쿠엘 워커 기어아

민아

검정색 상의 기어아

목걸이와 반지 오프시아

가죽 스카트 코데조컴버인

빨간색과 검정색의 에쿠엘 워커 기어아

환율전쟁



청나라가 미국에 직살한 지 100년이 지났다.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시 미국과 한편 승부를 벌인다. 니 후이 푸오 공구워 차이 마? BY 김재민(jkimremin@naver.com)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의 축이 미국, 유럽에서 중국을 위시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오고 있다. 과거 글로벌 경제가 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듯이 이번 100년 만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거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날수록 글로벌 1위의 경제대국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만으로도 고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도 캐치 못했나? 투자자 예겐 하늘이 내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다!



대공황의 탈출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 2100포인트를 넘어가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08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00년대 초반의 대공황에 비견되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말까 한 글로벌 위기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G20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 국가들이 뚝뚝 뚝뚝 일제히 금리를 인하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고 불과 2년여 만에 그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있다.

기존엔 G20의 G는?

- 1) G8과 G7을 합친 것이다.
- 2) G20 중 16개 나라를
- 3) G-8과 12개국이 포함되었던
- 4) G10과 10개국이 포함되었던
- 5) G20과 12개국이 포함되었던
- 6) G20과 12개국이 포함되었던

한국은 이상 무?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는 일부 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차이가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으로 한결 탈태했고, 그 결과 이번 금융위

기를 큰 타격 없이 넘겨며 오히려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삼성 전자, 현대자동차 비로 그러한 기업들이다. 정몽교가 공채했던 금융인들을 세상에 내보냈던 보람이 있구나.

금융위기 탈출 성적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야기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배어스턴스에 이어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투자 회사들이 무너지자 세계 각국은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격적 금리 인하와 적극적 경기 부양책을 통해 돈을 풀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일부 재정지출도가 부실한 유로국가들은 파산 상황에 직면해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라 불리는 나라들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책 바리케스 때문인가? 이렇게 글로벌한 정책 공조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그 결과에 있어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원율'이 있다. 사실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라 불리는 이머징 마켓과 고성장에 가깝다.

*** 이머징 마켓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을 뜻한다. 이미 알고 있었다면 미안하다.

향개의 시대가 도래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경제대국으로 그 위상이 확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타지기 전인 2007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 불과했지만, 금융위기를 기

점으로 '최대소비국'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저명한 노동력을 일제히 공장 역할을 자처하며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높아진 소비력을 바탕으로 이번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인지를 굳히고 있는 거대. 인군이 오살나게 많으니까 조금만 생활 수준이 향상되도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달러 약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미국은 중국 및 이머징 마켓에 대한 수출로 경제를 회복할 발판을 마련했다. 핵심은 바로 환율이다. 바로 이 환율 때문에 미국은 중국한테 지속적으로 원만한 가치의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만한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인들에게 미국 제품은 더욱 싸고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며 미국 상품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중국은 원만한 절상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높아지는 중국 원만한 가치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저가의 노동력과 풍부한 원자재에 가진 중국은 대량 수출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급증하고 있다. 이머징 마켓의 소비력이 높아지자 미국과 유럽은 여기에 물건을 팔아 덩달아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의 자립적 이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회복을 이뤄냈다. 특히 소비재인 IT, 자동차, 화학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눈부시다.

중국은 이러한 고성장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놓여 있다. 때문에 작년부터 지급준비를 인상, 중국인상의 등의 긴축조치로 인플레이션을 약화하며 연착륙 시도하고 있으며 원만한의 단계적 절상을 추진하고 있다.



양키의 역습

반면 미국은 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 우려 등 디플레이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총칭양청 돈을 쓰기 시작한 핀anzi들과는 반대로 진득 풀이든 미국인들이 하도 지갑을 열지 않아 시중에 돈이 마르고 물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를 올려 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필연적으로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강세를 유도하고 있다. 국가 간 상품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가 흔해지면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출을 늘려 경기회복을 유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중국과의 환율전쟁을 의미한다. 즉, 미국은 대규모로 달러를 찍어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대 중국 무역수지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중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렸고, 미국의 의도대로 위안화는 강세 국면으로 물리는 형국이다.

달러바린 유럽

자, 그럼 이제 세계의 반대편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나라별로 각양각색의 MAXIM이 나오는 유럽쪽으로 날아가 볼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피해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크게 발생했다. 왜냐하면 유럽 은행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연관된 파생상품이 대량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채정 상태가 낙후된 독일이나 남유럽국가들이 먼저 불황에 빠졌다. 그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과거 우리나라 IMF 때처럼 구제 금융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득을 본 나라도 있다. 유럽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독일, 프랑스 등의 수출 기업은 오히려 수출로 인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가리않는 일본

소니사태에 정신 팔려있는 일본은 어떤가? 일본의 경우는 달러 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내수시장 불황과 수출 감소로 인해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갑에서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엔고 현상으로 인해 비싸진 일본 제품을 제하고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아주 고수하다.

한국 경제, 티보 엔진을 달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역학관계 속 최대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KOSPI 지수 2000이라는 꿈같은 주가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인 중국과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엔고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고래싸움에 격해질수록 새우등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다. 싸워라! 싸워라! 이와 같은 글로벌 증시 환경에 있어서 당신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어느 나라 증시에 투자하겠는가? 최근 20년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를 통해 국내 증시를 사상최대치로 끌어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WILD THING

김인서

영화 〈악마를 보았다〉부터 최근의 아침 드라마 〈장미와 전쟁〉까지 김인서는 항상 날이 바짝 선 시술 파란 작두 같은 묘한 매력을 풍긴다고 생각했다. 할 영상에서 그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주변 공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 그녀를 보니 눈빛에서는 여전히 그 묘한 매력이 레이저 빔처럼 뿜어져 나왔다. 청순함과 치명적 매력을 병존할 오가듯 변화무쌍하게 보여준 그녀를 이제 당신이 만날 차례다.



촬영장
장문하기

필 드레스 드레스숍
금세 말피 오블리나



HOBAR
www.hobar.co.kr

정소 협찬

BY 이영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원숙 MAKE-UP 노리경,계,유우스 도산원 (02-3448-7141) STYLING 박미경 FILM 김진욱 ASSISTANTS 김희선, 박민정,우리
COOPERATIONS H&M(02-8885-0201) 제사뉴욕(02-3442-0221) 슈주원(5688-9307) 오벨리카 (02-548-2036) 디폴루제(02-540-7877) 버카루(02-514-2137) 덕섬(02-3442-7701)

나이보다 성숙해 보인다. 포로필 나이(84년생)가 진짜?
84년생 맞다! 왜 오해를 하고 그러냐!

내일이 생일인데 축하한다. 고맙다. 선물 달라.

받고 싶은 선물은? 잠 전신아로마 마사지 5월로의 시간 여행.

왜 5월인가? 지금 하는 드라마 (장미의 전쟁)이 그때를 끝난다. 오늘도 새벽 5시까지 촬영했다. 그저 쉬고 싶다. 절간에 서 수양하고 배운다는 기분으로 버틴다. 부딪도 크다. 3부에 반씩 '대본 외워야지' 하는 걱정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배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열여섯 살이나 차이 나는 오대규와 키스신 공황은 어떤가? 배유미는 극중 유부남 오대규와 사귀는 불륜녀로 존재에 있을 법한 2대 후반 처녀이다. 애정 결핍도 있어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안타깝고 기어운 아이다. 오대규 선배와 나의 러브 라인은 아침 드라마 답게 당연히 악녀가 벌을 받는 권선징악으로 끝날 것 같다.

드라마 속 배유미는 집에서 플레이크업에 아시시한 슬림을 입는다. 당신은 그런 차도녀인가? 전혀 나는 무척 소심하다. 엄청난 착은 하는데 속은 안 그런 사람이다. 집에서 내복 같은 거 입고 위에 편한 카디건을 걸치고 있대웃음.

웬지 그런 편한 모습 뒤에 숨은 악녀 기질을 기대하게 된다. 당신은 악녀인가? 난 여리고 장에 약하다. 그리고 진짜 악인은 겉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난 포카헤이스가 안 된다.

임자 있는 남자에게 대시받는 적이 있나? 진짜 주변에 남자가 없대 외우만 보고 내 인상이 강해서 다가오길 꺼리거나. 왔다가도 못 버티고 나가떨어지거나. 그냥 친구가 된다. 솔직히 남자에게 순응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 여자일수록 은근히 남자에게 더 많이 차었다. 맞다. 딱히 누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내가 결국 차인 입장인 적이 더 많다.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편인가? 전혀 아니다. 좋아하면 소심해서 아예 못 다가간다.

결혼은 어찌 하려고?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김 장식의 검정색 탑 H&M
검정색 가죽 원츠 체시닝족
검정색 레이스의
호피 무늬가 섞인 구두 슌조원
방금 스타일리스트 소창림



레이스 보디슈트 H&M
종미 유닛 크로켓
스타일리스트 소정름
레이스 장식의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재시남을
은색 폭신티 디블루레

인터넷에 도는 출연한 작품, 화보 중 제일 없어졌으면 하는 게 있다면? <가족연애사> 캡처 사진. 그거 좀 재빨리 정갈 계속 퍼트리면 죽어버릴 거야!

김옥빈 닮았다는 얘기가 들어왔어? 이 얘기 들으면 김옥빈 씨가 오히려 황당하겠지. "김민서가 누구야?" 이러면서 아* 콘택트렌즈 광고에서 김옥빈 씨 옆에서 춤추는 여자로 출연한 적이 있다. 실제로 봤을 땐 나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 체형이 비슷해서 그런지?

내가 보기에는 둘의 다크서클이 닮았다. 그분이 그냥 다크서클이라면, 나는 위아래로 멍멍을 띠 듯한 다크서클이제!

이번 설에 고향 제주도에서 데려갈 남자 친구는 있나? 남자 친구도 없고, 촬영 때문에 못 내려간다.

제주에서 말고기 먹어봤나? 아릴 때 먹었는데 비렸던 기억이 있다.

프로필에 보니 휘기가 노래, 일본어, 승마, 요기다. 노래? 아니다. 그 프로필 내가 쓴 거야! (웃음). 요가는 자주 한다. 승마는 서울에 와서 배웠다.

아니 제주도 사람이 왜 승마를 서울에서 배우니? 제주도 사람들 차 타고 다니지. 다 말 타고 다니는 줄 아니? 혹시 당신도 제주도에서 공 처면 비디에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동안 색사하고 도회적이고 강한 역할만 해왔다. 시트콤 코믹 연기는 어떤가? 완전 좋다! 예쁜 척 차가운 척하는 거 진짜 나랑 안 맞는다. 나 자신도 오글 오글 오그라든다. 하지만 배우니까 주어진 역에 최선을 다하고 어느 순간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 지금의 목표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고 싶고 익혀가는 중이다.

다음 생애는 필로 태어나고 싶나? 요즘엔 개로 태어나고 싶다. 속 편한 강아지. 🐾

경쟁서 시스루 블라인드 케이스닝 옥
종기 미니 리드슈트 H&M
경쟁서 데님 스포츠 바커루
정 장의의 경쟁서 무후 더슈
병 모양 목걸이 디블루에

김민서가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좋아하는 것은?

세련되고 모던한 것보다 낡고 클래식한 빈티지 소품

색사하고 딱 붙는 옷보다는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만한 예스누하고 호노츠키라는 스타일

화려한 클럽 방 문화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퍼즐 맞추고 팝미, 반지, 목걸이 만드는 가네수공예

梁邦彦

ICON 양방언

세계를 가슴에 품고 가장 동양적인 것을 들려주는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언이 지난 1월 공연차 한국을 찾았다. 바쁜 그의 바지거머리를 붙잡고 다급히 물었다. "그래서 의사일 때가 여자 만화가 좋은가, 음악할 때가 더 좋은가?"

BY 이영희 PHOTOGRAPH BY ARC STUDIO

이번 공연 (네오마)는 영상과 음악이 만나는 신선한 시도라고 들었다.

에니메이션 회사에서 그동안 내가 직접한 영상 작품 속 음악과 실제 영상을 같이 보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했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시도로 영상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을 하게 됐다.

게임 (아이온), 에니메이션 (엘마) (천년여우 여우비) 등에 당시 음악을 입히는 작업을 많이 했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전형적인 오타쿠 장르다. 혹시 본인도 그런 취향이 있나?

하하하. 전혀 아니. 하지만 내가 원래 잘 모르는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일하고 하는 성격이다. 장르에 상관없이 그 작품과 내가 잘 어울리는지를 본다.

그래도 (아이온)은 해봤을 거 아니냐?

게임은 안 해봤고 게임 회사에 가서 출시 전 게임 시뮬레이션 체험은 해봤다. 당시 임팩트 감독 영화 (천년학)의 OST도 통째로 맡아 하고 있었는데, (아이온) 제작사에 가면 스태프가 다 20대고, (천년학) 현장에 가면 감독부터 거의 모든 스태프가 50~60대였다. 전혀 다른 분위기였는데 둘 다 무척 즐거웠다.

의사를 그만두고 음악을 시작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들었다. 카페에서 같은 데서 연주도 했다고 들었다. 아티스트 양방언의 알바는 언제부터? 라이브 카페에서 1회 공연에 만 엔(10만 원) 받았다. 예전에 아주 낮은 차를 타는 사람에게 팔아 타고 다녔는데, 얼마나 낮았냐면 시가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운전자 쪽 문이 시가리 한복판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차 안에 있던 나를 쳐다봤다. 여유 있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웃음). 비판적인 시선은 아니었다. 위험했지만 재미있었다.

남들은 입학하기도 힘든 외대에 진학하고선 그 길을 접고 음악을 선택했으니 천재 소리 좀 들었겠다. 전혀 아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듣는다. 지금의 나는 천재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릴 땐 피아노를 배우기 싫었다던데 사실인가?
난 사실 남자가 피아노 친다는 게 칭파했다. 그러면 가 하고 싶었다.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던 누나가 나를 억지로 앉혀놓고 연습시키곤 했다.

그래도 결국 음악을 하게 되었으니 좋은 거 아니냐?
강제로 시키던 도망간대(웃음). 음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억지로 배우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천지 차이다. 차이는 없지만 만약 아이가 있다면 억지로 시키진 않겠다.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 숨 쉬게 하고 싶다. 나에게는 어떤 시점부터 무의식적으로 음악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다'. 어쨌거나 강제로 시킬 때마다 도망갔던 건 사실이다. 그러다 중학교 시절 피아노 학원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성분을 보았고, 그 뒤로 좀 열심히 다녔다(웃음).

모든 예술의 출발점은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함' 이 아닌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성이라는 건 음악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아마 음악 하는 사람들 모두 공연장에서 '혹시 어떤 여자가 나를 멋있다고 하지 않을까'고 생각할 거다. 그 생각이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자신의 열정을 올라가고 원하는 것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길 원동력이 생기는 하나의 시작점이 만들어진다. 그 계기가 중요한 거다.

그나저나 중학 시절 그 여자랑 말 붙여본 적이 있나?
사실 재능전에 실제로 만났다.

어쨌?

안 만나는 게 좋았다(웃음).

최근 남북한 관계가 무척 예민하다. 조종편계 학교를 다니다 한국 국적으로 비준 재입 교포로서 학교의 상황이 남다를 것 같다.

걱정된다.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의 도발과 전혀 무관한데도 핍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마치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사람에게 가한 것과 같은? 어쩔 땐 형태로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려 하고 당한 사람은 마음 속 깊이 기억한다. 그게 인간이다. 다만 그 중요가 연쇄적으로 일어사는 안 된다. 물론 나는 음악가이지 정치가는 아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걱정이다. 하지만 음악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 음악을 들으며 지냈나?

학교에서 들려주긴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리지널 북한 전통 음악이던지 모르겠다. 누구도 모르는 일 아닌가. 학교 안에서 우리말을 안 하면 때로는 정작 때리는 선생도 뒤돌아서서 일본말을 하는 참 복잡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북한 음악이라고 들려준다고 해도 그게 오리지널 북한 노래인지 누

가 있겠나?

노래는 잘하냐?

노래 잘하면 가수를 했겠지 어릴 땐 음향에 엔지니어적인 측면으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접근했다. 이 소리가 여기서 나와서 내 앞으로 옆으로 뒤로, 더 멀리, 혹은 후박혔고... 그런 것들. 잘 친 친구 유럽에 가서 여기저기 성당을 다녔었다. 종교는 없지만 성당 가는 걸 아주 좋아한다. 소리들이 웅장하고 부딪히는 것도 느껴진다. 그 공간 안에 있는 게 좋다.

에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음악 감독 칸노 요코와 당산을 비교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 나는 칸노상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 칸노상도 나와 다른 나름 멋진 음악을 하고 있다. 아마 에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비교하는 것 같은데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호기심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그런 비교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 주변의 평가나 비교보다 더 중요한 게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음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평가에 신경 쓸 시기에 차라리 다른 것을 하는 데 더 시간을 쏟고 싶다.

당산도 가수 오리(공각기동대)의 오프닝 곡을 부른 가수에게 곡을 주었다.

오리(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마치 형제 같다(웃음). (공각기동대)보다 나와 먼저 작업했는데, 오리가 그 에니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웃음)기 때문이다.

평소 음악 말고 뭐 하고 사나?

산속에 집이 있다. 거기 와이프랑 큰 개랑 같이 산다. 가끔씩 개랑 같이 뛰고... 그러다 스키장에 맞춰 작업하러 밖으로 나오고, 돌아갔다가 다시 작업하고, 피아노 치고, 작업하고 그렇게 산다. 내 일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아, 인터뷰 중 마감이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답답하다. 쉬운 질문 하나 하겠다. 이성을 유혹하기엔의 사일 때가 좋은가, 음악가일 때가 좋은가?
아아, 잘 모르겠다. 근대 틀에 박힌 엘리트 코스에 갇힌 사람은 재능없다. 확실히 사람은 한가이 빠져 있을 때가 재능이다.

당신의 다음 목표는?

영상과 음악의 만남에는 여전히 관심이 많다. 뮤지컬에도 도전한다. 아주 슬프다. 뮤지컬은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당신 음악 속 뮤지컬 가사를 유혹할 때 BGM으로 깔면 좋을 곡을 추천해달라.
"Rainbow Leaves", 로렌틴 기보에서 만든 곡이다. 아아,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음악을 듣고 난 뒤는 본인들 각자의 노력에 달린 거니까. ☺

“어릴 땐 남자가 피아노를
친다는 게 무척 창피했다.”



KATY PERRY



NUMBER ONE CRUSH

KATY PERRY

MAXIMI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인 케이티 페리. 선정 이유?
그녀의 터질 듯한 브래지어가 주는 시각적 충격 때문만은 아니다 (우릴 뭘로 보나?) 중독성 강한 목소리와 쿨한 성격,
탁월한 유머 감각도 한몫했다. 이정도면 모든 남자가 꿈꾸는 여자친구잖아 아니던가?
그녀가 이젠 유부녀라는 슬픈 소식도, 그녀를 향한 몇 남성의 열망을 멈추게 할 순 없다!

BY RUTH HILTON
PHOTOGRAPHS BY YU TSAI



WHO IS KATY?

26세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는 인형 같은 외모에 터질 듯한 가슴을 가진 것도 모자라 지난 2009년 첫 싱글 '아이 카스트 어 걸'과 다음 싱글 '핫 앤 콜드'로 세계 팝 차트를 정복하여 멀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2010년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음반 (틴에이지 드림)은 공장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아마 나체로 송사랑 구름 속에 누워있는 음반 커버의 향이 컸을 거다. 거기 수록된 '캘리포니아 걸스'는 음반 커버와 같은 컨셉의 뮤직비디오로 큰 인기를 끌어 미국에서만 총 11896회가 방송됐고, 17년 만에 빌보드 사상 가장 많이 나온 노래로 기록됐다. 지난 12월엔 라셀 브랜드만 영국농구과 결혼식을 올려 캐스콤 씀아지는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케이티 페리가 2010년 MAXIMI 선정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 100인(MAXIM'S HOT 100)" 리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보다 더 행복한 한해를 보낸 여인이 있을까.

KATY PERRY IS HOT

2010년 MAXIMI 선정된 가장 색다른 여인이 바 로 당선이다. 1위로 선정된 이후 평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척 힘들게 살았다. 매일 매일 예뻐야 했으니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다니 MAXIMI는 정말 잘한 집이다.

1등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전 정말 세계적 차원의 순위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색사함의 기준으로 이 순위를 따르게 될 거다. 세계 각지의 미디어에서 나랑 인터뷰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색다른 여성 1위'에 대한 질문을 한다. 심지어 MAXIMI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도 말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수단의 어느 도시에도 갔다고 치자. 거기서도 아마 "당신! 바로 그 남바원 색사녀로군요!" 라고 할 거다. 그럼 나는 "MAXIMI 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나를 그렇게 부를지나 정말 황송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지.

2011년엔 여자 당신의 뒤를 이어 1위를 차지할 것 같나?

조 샐다나(아바티)의 나바죽 여인 네이티고. 그녀는 아주 시크하고 cool하다. 그리고 카밀라 벨(푸사)의 카리비 그녀는 2새기의 리즈 테일러다.

어떤 여자가 색사하다고 생각하?

자! 표현 방식과 자기들만의 분위기에 해서 몸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여자. 마리와 성격이 좋아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여자. 난 그런 게 진짜 색사하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핫한 여자일수록 성격이 지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건 멋지지 않다.

그럼 남자들이 여자에게 색사함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말단 좀 잘 써야 할 것 같다. 안 쓴는 남자도 많잖아? 일부 여자들은 다려온 남자에 아주 질색한다. TV 안에 파릴라 없어 식사는 것도 삼가고, 뭔가 문화적인 교양도 쌓고, 사는 게 돈이 많거나 적응은 상관없다. 남자는 자신을 유행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한다.

가장 최근에 술에 푹이 되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춘 적이 언제인가? 마치 당신 노래 '라스트 프라이트에 나이트'(T.G.I.F.)'처럼 말이다.

코디 쇼 (스테이디 나이트 라이브)에 출연한 날

밤, 진짜 재미있게 놀았다. 출연진들이 피티를 했는데 새벽 5시까지 이어졌다. 새벽 5시의 솔지리란 대략 이런 모습이었다. "와, 정말 재미있다. 어라,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내 옆에 있네? 그녀가 나에게 머리핀 한줌을 주는 군. 난 정말 그녀가 좋아."

당신 노래 '피라크(Peacock)'은 가히 충격적이다. "너의 거시기(cock**), 거시기, 거시기를 보고 싶어", "어서 니 아래에 숨긴 걸 보여줘"라는 가사는 도대체... "Cock은 남성의 거시기를 뜻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가 공작새(Peacock)다. 날지도 못하는 게 약간 장미가 있는 것 같다. 율음스러운 게 고양이 같다. 암컷보다 수컷이 아름답고, 또... 뭐 아무튼(웃음).

하해 당신 정말 웃긴 여자다. 말이 되는 소릴 해!
보통 음반을 만들 때는 덜 아한, 일명 클린 버전도 만든다. 사람들이 "케이티 피, 피라크는 너무 아해요. 편곡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혼자 생각했다. '흠, 기간, 제목을 둘로 쪼개면 덜 아할까? 피(Peacock) 영어로 소변과 발음은 같다... ㄱ(Cock)... 어떻게 하든 X되는 거잖아!'

댄들(디즈니 문화 속 공주가 없는 것처럼 허리가 무척 작아지고) 아래는 풍성한 드레스와 전신을 조이는 라텍스 치마 중, 입기 더 편한 옷은?

댄들은 위에 코르셋이 있다. 가만 통과하면 너머진 그리 힘들지 않다. 난 웃을 걸 입고 노는 걸 좋아한다. 일찍이나. 난 재미있는 거라면 물론 안 가련다. 라텍스 치마는 독특하고 재미있고 또 귀엽고...

그리고 음식을 흘려도 괜찮겠지?

맞다! 행거를 흘려도 그냥 속 두면 그만이다. 맘은 진짜 많이 난다. 전신을 고무로 감싼 것 같다.

유행 개롱발 영화 (스머프)에서, 모든 남자들의 어린 시절 로망 스머프를 연기했다. 스머프 좋아했어?

어릴 때 집에서 (스머프)를 못 보게 했다. 부모님 보 두 뉘사림이라서 무척 보수적인 가정이었다. 부모님은 (스머프)에 마법과 주술이 너무 많이 나오서 보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런 생각 안 했었어? 스머프는 스머프 마을의 유일한 알갱이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번식할까?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설명해주진 않았

다. 아마 거기엔 스머프를 창조하지 않았을까? 음, 미니 마우스도 마찬가지다. 임신한 걸 본 적이 없다. 개들에게 임신의 과정은 아마 불필요한 것이겠지.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가수 레디디 가나나 케사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둘다 좋아한다. 케사는 일고자면 지 무척 오래했다. '아이 키스드 어 걸' 뮤직비디오에도 등장한다.

잠깐, 그럼 케사와 키스를 했던 얘기?

아니(웃음). 아무튼 그녀는 정말 멋진 뮤지션이며 최고의 팝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앞으로 사람들에 대해 물어줄 게 더 많은 것 같다.

구로에서 당신 인물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 중 가장 황당한 것은 무엇이었나?

자난 크리스마스에 남편 러셀이 나에게 "전자 애완동물 농장"을 사주겠다는 가사를 봤다. 진짜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다. 도대체 전자 애완동물 농장이라는 건 뭔지? 6개월 전엔 내가 농부가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

'퀵리포나야 걸스' 뮤직비디오 속 당신은 스프레이 캔에서 크림을 발사한다. 당신의 그, 그곳에 달린...

그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캔은 가슴에 달렸었다. 생크림 스프레이 캔은 나와 스타일리스트의 아이디어이다. 1번 전 콘서트 투어 중에 내가 막 대사팀들이 줄줄이 동그렇게 달린 상의 디자인을 스케치한 적이 있다. 거기서 착안해서, 생크림을 총알처럼 쏘면서 공들이 모양 질들을 처치하는 내 용으로 발전시켰다.

당신의 매력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소수 살, 스물한 살이 넘기면서 몸에 곡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봐도 이 리인은 자랑할 만하다.

연예인에게 출한 직업이?

전엔 저스틴 비버를 많이 언급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겠다. "내가 반한 연예인은 바로 나의 남편(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사에 토크 갖기 진 않았(웃음)





“내가 생각해도 이 라인은
자랑할 만하다.”



MAXIM PARTY



클럽 파티 침투하기

HAPPY SEXY-MASS!

LAST X-MAS

BY 김민재

PHOTOGRAPHS BY 김민재, KIMMINJAE

COOPERATIONS CLUB ANSWER, GOA, GOA Limited

고요하고 거룩한 밤 따위는 MAXIM 사전에 없다.
지난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추웠는지 다들 기억나? 뽀따귀를 마구 후려치는 칼바람에 시린 얼굴 따위는 아웃 오브 더 윈드.
덕분에 술료들에게는 '추운 날씨엔 나가봐야 개고생'이라며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신을 애써 위로할 만한 관참은 핑퐁거리
가 생겼지만, 아, 미안하다. 그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또 들려주어서.



ASOBI Connection

근육질 몸매를 탑재한 고고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섹시한 여성 퍼포머, 기괴하고도 따윈 강한 립싱크 퍼포먼스로 갈라바움을 일으키는 '드랙린'으로 구성된 퍼포먼스 팀. 이들의 퍼포먼스를 처음 봤다면 심장이 놀라 벌렁거릴지도 모르니 주의할 것.

X-MAS PARTY

안 그래도 없는 약속에 날새까지 추위 소 울음소리를 내며 방구석을 굴러다닐 뻔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지 않나. 한 겨울엔 동남아로 여행을 가야 제맛이듯 추운 날새엔 뜨거운 클럽이 제격이다. 가장 핫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던 곳은 MBC (무한도전)에서 솔로 파티를 열기도 한 바로 거기. 청담동의 럭셔리한 클럽 엔서 (ANSWER)다!
코트와 패딩 점퍼로 온몸을 둘러싼 사람들은 더 이상 없었다. 바깥세상은 지독한 겨울일지 몰라도 클럽 안 미녀들의 착장은 한여름을 방불케 했다. 이불테런 핫팬츠, 민소매 티셔츠, 좀 더 나열해볼까? 미니스커트, 속삭이 흰치 비치는 시스루룩, 그들 땅사 스타킹... 하얏하얏. 여기가 바로 천국일세.



J&B DOLLS 스키치위스키
프리미엄 J&B를 대표하는
여성 5인조 퍼포먼스 팀.
8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을 뚫고 선발단위를 싹쓸
도, 외모도(물매도) 출중
하다. 그녀들의 첫만 모
습이 더 궁금하다면 2010
년 MAXIM 12월호를 뒤져
볼 것.



HOT PERFORMANCE

이날 크리스마스 파티를 뜨겁게, 더 뜨겁게 달구었던 첫 번째 게스트는 클럽 퍼포먼스 그룹 '이스비'였다. 활벗은 수컷들과 섹시한 그녀의 하드코어 퍼포먼스에 클럽버들은 탄성을 내질렀고, 이어서 일렉트로닉 DJ '이스트로 보이조'의 폭풍같이 몰아치는 비트에 정신이 아득해졌으며, 금기어는 마지막 게스트인 'J&B Dolls'의 치명적인 퍼포먼스에 정신통을 놓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행렬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새벽 6시를 넘기도록 끝날 줄 몰랐다. 뜨거웠던 그날의 파티가 더 궁금하다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로 직행할 것.



MAXIM
www.maxim.com



ASTRO VOICE

손성호, 정재현으로 이루어진 일렉 듀오.
각종 페스티벌에서 멋진 디제잉을 선보
여 화려하며 음악인들에게 음악성을 인
정받은 실력파다. 이들의 퍼포먼스에 끝
없는 관심이 절로 출몰 한다는 유명한 일
화가 있다. 믿거나 말거나.

SUPER MOE GIRL

사랑스러운 애니 속 그녀들!

스토리의 기승전결 따위 중요치 않다. 우리에게만 ●●●팡만 있으면 된다귀! BY 김상현 PHOTOGRAPHS BY 김태식 MODEL TASHA

TASHA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 쿠로네코

성훈의 웨이샤 / 마리아



바케모노가타리 / 하네카와 츠바사

고식 / 빅토리카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이름: 쿠로네코

역할: 주인공 여동생의 오타쿠 라이벌(?) 하지만 그녀가 곤란한 상황에 닥치면 두 팔 걷고 도와 주는 해결사.

매력 포인트: 고딕+로리 스타일의 독특한 의상 과묵하다가 때때로 폭발하는 과격한 언행(?)이 묘하게 증독성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깜찍한 고양이 코스프레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아연 쿠로네코짱 날 가져요~♪

모에도: ★★★

바케모노가타리

이름: 하네카와 츠바사

역할: 주인공의 통근대기 친구. 평소에는 알찐하나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사람의 정기를 빼앗는 괴이한 그리고 색사한 고양이로 대변시킨다.

매력 포인트: 청순하고 색사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모습. 낮에는 정숙하고, 밤에는 정열적인 여성이 남자의 혼을 쏙 빼놓는다 지? 그게 바로 하네카와네!

모에도: ★★★★★

모에도? 어쨌든 캐릭터에 대한 사랑이나 공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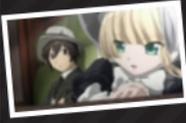
고식

이름: 빅토리카

역할: 명량정 코난만큼 작고, 그만큼 똑똑한 여자 탐정.

매력 포인트: 무표정한 예쁜 인형이 가끔 애처로운 표정을 발사해 주시니 어찌 흔들리지 아닐까? 로리움을 지극하는 의복 스타일도 매력 포인트 중 하나!

모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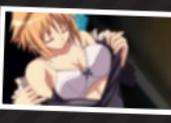
성훈의 웨이샤

이름: 마리아

역할: 주인공에게 정기적으로 우유 배달.

매력 포인트: 가슴 큰 예쁜 수녀님은 수컷에게는 늘 동경의 대상이다. 그리고 우유도 우유를 좋아한다(대응?)!

모에도: ★★★



추천: 일본에서 오덕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 지 궁금하다면!

비추천: 여동생과의 19금 지겨워 상상했다면!

추천: 일본식 만능을 좋아한다면!

비추천: 중앙영 에-메이센(주인공이 비릿한 미친늑처럼 혼지말라는 에-메이센이 질색이라면!

추천: (복대와 형신로) 스타일의 적화를 좋아한다면!

비추천: 로리컨에 질색하는 사람이라면!

추천: 당신이 피피 마-이러면!

비추천: 거유보다 빈유를 사랑한다면!



천원돌파 그렌라간 / 오키

팬티&스타킹 그리고
기타벨트 / 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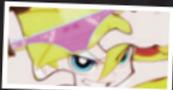
MM / 유우노 아라사코

럭키스타 / 하이라기 초카사

팬티&스타킹 그리고 기타벨트

이름: 팬티
역할: 고스트 제가를 할당 받은 천사(?)
매력 포인트: 매화 중간에 등장하는 늘씬한 8등신 변신체 급발의 색시 미녀가남자를 밝히나렌지 나에게도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마련이지

모에도: ★★



추천 시범시원한 9급 팬트와 페라다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비추천 배터항 나는 앙키 스타일의 그림이 싫은 당신이라면

MM

이름: 유우노 아라사코
역할: 남자 주인공에게 몸과 마음을 줄까 말까 고민하며 주인공 공의 애간장을 녹인다.
매력 포인트: 상처 입은 미스녀에게서 느껴지는 애처로움

모에도: ★★★



추천 SM을 밝게(?) 그런 애-메이션이 궁금하면
비추천 SM 같은 반대와는 상충하기도 싫다면

럭키스타

이름: 하이라기 초카사
역할: 쌍둥이 미스녀 중 인으로 그저 해맑게 웃는다.
매력 포인트: 미스녀의 백치치름 거부할 남자 못나 되겠나?

모에도: ★★★



추천 당신이 오덕이라면
비추천 당신이 오덕이 아니라면

Lucky★Star

천원돌파 그렌라간

이름: 오키
역할: 주인공의 의형 카미와 러브러브를 하는 미스녀 스나이퍼
매력 포인트: 안젤라나 줄리처럼 활뿜고 총질하는 색시한 미네는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마련이지

모에도: ★★★



추천 당신이 열혈로브 마녀-이라면
비추천 고래고래 고향치는 애니-메이션 이 지갑다면

天原突撃
天原突撃

COSPLAY GIRL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타샤(Tasha)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오고은이다. 만나서 반갑다.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상당한데 비평가 궁금하다.

아직 길이 멀다(웃음). 작품에 대한 예정의 차이가 켈리트로 이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 코스어는 어떤 편이다. 보통 코스어의 은퇴 시기는 언제쯤인가?

중·고등학교 시절 호기심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가 입사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내 또래인 20대 후반 코스어도 많아지면 좋겠다.

코스프레 의상을 모두 수작업으로 만든다고 들었다. 한 벌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수주를 맡길 때도, 직접 만들 때도 있다. 팀 코스프레 의상 제작은 통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팀 회의를 거쳐 원단과 부자재 선정에 신중을 기한다.

남자 코스어도 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캐릭터를 코스프레하나?

코스프레 무대에는 남자 코스어가 꽤 많다. 만화의 스토리를 극처럼 연출해 한 편의 무대를 만드는 데, 사람들이 훨씬 날아든다. 기회가 되면 관광하도록 깜짝 놀랄 거다.

코믹월드에서 코스프레 할 때 가장 짜증나는 일은?

초면에 바로 반말로 '야'라고 부르는 진상도 있었다. 어딜 가나 이런 진상들이 문제다.

솔직히 말해 달라. 여자 코스어는 남자 오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 남성성이 오덕이다. 그런데 여자에게 도통 관심이 없다. 같은 팀원들과 스개팀도 주선했는데 아직 2D 세상의 그녀들이 더 좋다(대려한술). 본인 몫을 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개인 취향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을 생각이다.

코스프레로 당선이 이루고픈 목표는 무엇인가?

타샤 개인보다 스파이럴캐츠 팀의 인지도를 올리고 싶다. 일전에 스파이럴캐츠 팀의 사진을 본 해외 유저가 "한국이 좋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라는 글을 남긴 걸 보고 뿌듯했다. 우리나라에도 코스프레 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웃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코스프레란?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평생을 함께 할 인연을 만나게 해줬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활력이다.



그녀가 궁금해?!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MAXIM 동아리 길라잡이

캠퍼스
섹스 라이프를
환히 밝혀줄 동아리
BEST
18

중년이 사교 모임에 나가는 이유는? 직장인이 동호회를 드는 이유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다. 대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하는 이유는? 역시 섹스를 하기 위해서다. BY 유승민 ILLUSTRATION 장지현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의 대학 생활이 열렸다. 자네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왕성하게 짝짓기를 벌이는 대학생이 될 것인가. 딱딱이를 치는 대학생이 될 것인가. 그대의 섹스 라이프를 환히 밝혀줄 동아리 선택 가이드를 준비했다. 스크랩해라! 신입생이 된 조카에게 주면 당시는 멋진 삼촌!



농구부

농구 동아리에는 남자밖에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농구 동아리는 여고와 조인된거야 주 잘 성사된다. 농구 동아리가 일단 키는 클 거라는 선입견이 보증수표처럼 붙기 때문이다. 덩크슛은 밤새 넣으면 된다.

경고: 본 기사는 특정 동아리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저 쿨한 캠퍼스 퍼킹 라이프를 위해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동아리의 실제 상황은 학교, 동네, 국가, 행정 또는 차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회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학생회를 맡 거면 기왕에 운동권 학생회인 거다. 모든 면에서 진보를 꿈꾸는 운동권이 성생활도 무척 진보적인 건 이미 입증된 바다. 투쟁



여행 동아리

아주 좋다. 여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소 1박 이상을 예정하는 것. 실립 자체가 아주 불순한. 훌륭한 동아리다.



극회, 연극부

문란한 성생활의 지존은 역시 연극 동아리다. 한협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아래, 연극은 예전보다 많이 노골적이고 아해했다. 요즘은 대학생 수준의 연극에서도 키스신과 베드신을 흔하게 다 주고 있다. 사나리오는 변하다. 모든 건 좋은 연가를 위해서이니



대학신문사

학내 언론사나 신문사는 끊임없이 밤샘 마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함께 밤을 많이 지새우고 집에 잘 안 들어가다 보면 사고는 나게 마련이다.



천문부

천문이라니 고리타분해 보인다고? 천만에. 매캐한 도심에선 별 따위 보이지 않는다. 천문을 관측하려면 기본적으로 저 멀리 공기 맑은 시골로 훌쩍 떠나야 한다. 게다가 동아리 특성상 모든 활동은 밤에만 가능하다. 이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동아리가 또 어디 있던 말인가? 깊은 밤, 천체망원경을 눈을 받고 있는 그녀. 이보다 무방비할 수는 없다.



협합 동아리

협합을 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몸시 개방적이다. 여기서 협합 스타일모인사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협합 스타일로 포옹하든 보면 다음 단계로 진전도 빨라지겠지? 윗키워요~



미술 동아리

미술은 식상하다. 하지만 미술은 예나 지금이나 여자를 고사하는 데 최고의 무기 중 하나다. 여자 고사하는 데 필요한 미술만 얼른 배워서 나오자.



스노보드 동아리

봄, 여름, 가을 동안 다른 동아리에서 열심히 하느라 수고했다. 한철 장사로는 스노보드 동아리에 견줄 데가 없다. 스카장으로 여행 온 들뜬 알카트를 공격하기 아주 쉽다. 스카장에서 머물며 낚이는 스노보드를 밤에는 보드보드를 타자. 다음 봄이 올 때까지!

BAD CHOICE

좋지 않은 동아리

수영부: 눈요기를 위해 섰불리 수영 동아리에 가입하지 마자. 날림이다. 더 불행한 건 당신과 비슷한 인도로 가입한 녀석들이 독생대라는 것이다.
태권도부: 동내 태권도장보다 검정띠 띠기 쉽다. 그게 다다.
전통무예: 태권이나 수백도 같은 전통 무예가 아무리 좋아도 씨스 라이프와 바골 정도가 아니라면 여기에 청춘을 바치지는 말 것. 기 수련의 길은 부유가의 이상한 선배들이 당신을 가두려고 있다. 물론 모두 낡자.
축구부: 축구는 농구보다 인기 종류이지만 배스계에서는 영연한 이이다.

이런 동아리. 딱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데에 가입하면 친구, 우정, 건강, 주량, 체력, 취미 생활처럼 쓸데없는 것들만 잔뜩 생겨난다. 꿈꿨던 당신의 공부는 맨트 속에서 졸업 이후를 기약할 거다.

여자들은 동아리 추구의 완벽집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종교 동아리: 대학은 의외로 사이비 종교들이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한라리씩 뒀리를 틀고 있는 곳이다. 뭐 종교 동아리에서 훌륭한 교미 생활을 신 사할 수도 있겠으나 가능하면 종교 집단 쪽은 주위에 학교 밖으로 배차하고, 학교에선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배드민턴: 현업에서 은퇴하고 더 이상 팔기가 되지 않을 때에 가연에 나가는 놀이이다.
동양학: 어느 캠퍼스를 가든 풍물패의

장구 소리가 빠지지 않는다. 그 어느 동아리보다도 열정으로 풀을 뽕친 이들은 쉬지 않고 평리리를 친다. 계속 졸업할 때까지.
스포츠댄스: 대부분의 스포츠댄스 동아리에선 극심한 남초 현상 탓에 남자 들끼리 남녀 역할을 나누어 진화 탱고를 추고 있다.
취업 동아리: 취업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취업하지 않은 자애로 질레 주지 않는다.
코스프레 동아리: 왜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으려 하는가.





밴드

합창 동아리 못지 않게 개방적인 곳이 바로 야구다. 멋진 보컬, 드럼이나 베이스를 연주하는 자신의 실루엣은 암컷에게 3배쯤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다. 중요한 건 밴드는 방음이 되는 연습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대학교 안에서 소리를 맘껏 지르며 섹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밴드 연습실뿐이다.



영화 감상부

영화에 대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아주 아한 영화도 보게 된다.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섹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거다. 그녀의 판타지를 남감없이 개차해줘라. 섹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남녀는 그렇지 않은 남녀보다 섹스를 할 확률이 20배 이상 높다.



수지침

그녀와 손잡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다고?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수지침 동아리에 가입하라. 여기에선 모든 것이 손잡기에서 시작한다. 수지침은 배워두면 동아리 밖에서도 작업용으로 매우 유용하다. 그녀의 힘을 제압한 후..



봉사 동아리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여자가 들어온다. 게임 끝.



테니스부

우선 의상이 아주 바람직하다.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며 뒤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가능하다. 자네도 그녀도 테니스 상급자라면 한판 대결을 벌여라. 테니스는 남자가 함께 맘을 풀리며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 중 하나다. 박빙의 승부 끝에 그녀에게 저줘라. 아드레날린 분비 최고조에 달한 그녀와 뒤물이 맥주를 한잔 기울이며 칭찬을 퍼부어라. 그녀의 눈에 자네가 맞닿는 수컷으로 보이는 순간 오 늘 나는 허구나미타테!



사친부

사진을 잘 찍는다는 건 축복이다. 렌즈를 방자한 당신의 눈길 앞에서 온갖 교태의 몸짓을 보여주는 그녀를 감상할 수 있으니 말이다. 여자는 누구나 예쁘게 찍히기를 원한다. 좀 더 좋은(?) 여자들은 예쁜 걸 넘어 섹시하게 찍히길 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발견해 큐피탄디에 담아내는 남자와 관계를 가질 확률은 매우 높다.



영어 동아리

영어에는 묘한 힘이 있다. 우리말로로는 뒤살이 들고 느끼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대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서툰듯이 읊어내는 힘이 있다. 그분이 아니다. 여자는 우리말로 대화할 때보다 영어로 대화할 때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개성적인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녀와 영어로만 대화할 것을 약속하라. 어휘실력 향상이 목적인 것 같지만 그녀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맥쫓음을 기울이다 보면 의외의 수확이 생길 거다.



럭비부

사치니니 같은 짓거리들을 선호하는 여자들이 있는 반면, 럭비 선수 스타일을 선호하는 여자들이 있다. 특히 섹스에 환장한 알컷 일수록 후자 쪽에 많이 요즈네 있다. 럭비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에 대한 성적 환상을 5배 정도는 업시켜줄걸?



응원단

문란하기까진 처연 응원단을 빼놓을 수가 없다. 외모만 해도 쪽쪽뿔뿔 나뭇 가지가 빠져지 않을 우수한 인종들이 모인다. 전교생의 이목을 사로잡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은 대가기가 들어온다. 게다가 여기에 들어오는 여자들은 아주 정열적인 성향의 소유자다. 응원단의 그녀들은 체력이 좋으니 몸보신은 꾸준히 신경 쓰도록

FOR LADY

여성 독자를 위한 가이드

여자 독자는 대학 생활 동안 풍족한 섹스 라이프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여자들은 참 좋겠다.

아구, 농구, 축구 동아리에서 내는 신입생 오리엔팅 광고를 보면 항상 여자 매니저를 구한다는 문구가 있다. 대부분의 여자생들은 이 광고를 보고 콧방귀를 뀌며 재빨리간다.

비단 등축금 내고 들어온 대학교에서 자기만 하고 싶은 동아리를 들어오도 자갈 땅에 떨어 내는 남자들 농구하는 데 스포어보드를 액셀이나 하라나! 맞는 예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듯한 이 운동부 여자 매니저 자리가 경쟁이 없는 거야 없다. 왜일까?

대부분은 왜 내가 거기서 남자들 뒤쳐다바리를 해? 하며 자-쳐지만 좀 더 매니저 좋아하는 여대생들은 가끔 히 이 자리를 선택해서 스스로 흥얼거

이 된다. 이제 그 운동부의 핵심멤버인 남자들은 모두 이 여자 매니저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스포츠 동아리 여자 매니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전염을 날리곤 한다. 단순하고 평범한 남자라는 통틀은 운동장기가 될 때 벤치에서 여자기 보고 있으면 더 치열하고 과격해진다. 저마다 평가판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여자가 흥얼거 매니저라던 더 심해진다. 차머너다가 있을 리 없는 동아리 스포츠 초에 그녀와 존재는 광경이다. 그녀가 잡고 있는 스포어보드의 손자를 울리기 위해 머리통이 깨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경기는 점점 격해진다. 수컷의 본능이다. 남자들은 운동부의 흥얼거

매니저에 대한 환상을 각자 해-누끼 가지고 있다. 매력적이고, 폭발하며, 보이시하면서도 섹시한, 원시모에 한 신적인 것 같은 매니저라는 여간 그 판타지가 전부 당사에게 쏠린다. 게다가 흥얼거 매니저는 심지어 다리에 벌로 안 한다. 환한 일야매 남자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 코트의 여신 그라운드와 마스코트로 무뎠음은 불이다.

어떤가? MAXIM의 환영한 여성 독자들이여 진짜 취미는 정시 정어두고 영향이 되어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치고만는 수컷들을 굴러 줄기는 갖는 것 나쁘지 않다. 여자생들은 상상도 못 할 끈끈한 캠퍼스 라이프를 펼쳐서





BETTER
ORIG

행보다 나은



R THAN
SINAL

WORDS BY AUGUST (IMAGES BY Dreamstime.com)

아우 전투기

"굴이 화수(淮水)를 건너기엔 탱자가 된다"는 말을 들어봤나?

살아 있는 것이든 사람이 만든 물건이든 환경이 바뀌면 그에 맞게 변화한다는 의미지만

보통 어떤 물건이 홈그라운드를 떠나 품질이 다운그레이드된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그런데 굴이 강을 건너 탱자가 아니라 실한 오렌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무기에서는 말이!

Ta-183



워든지 최신 버전이 최고

최근에 나온 제품일수록 성능이 좋은 건 당연한 이치. 존재하는 녀석으로부터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무기는 백이면 백 오리지널보다 나중에 만든 녀석이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 상대의 무기가 뛰어나다면 카피해서 우선 탱자급 무기를 만들어서라도 사용한다. 주구장창 개발하다 보면 노획우가 쌓여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오렌지급 무기가 탄생하기도 한다. 적들이 가진 무기보다 뛰어난 걸 만들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하고 절박한 논리의 결과다. 지금 소개할 제트전투기들 역시 굴이 오렌지로 업그레이드된 비람직한(?) 경우다.

Messerschmitt P.1101

속이 실한 굴 같았던 독일의 로켓&제트기 기술

1945년 압도적인 연합군의 위력 앞에 제국 멸망이 현실화되자 잘 빠진 무기를 개발한 엔지니어들은 먹고살 길을 찾지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자의든, 타의든 간에 미국이나 소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독일이 독보적인 기술을 차지한 로켓과 제트기 관련 엔지니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총력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독일은 패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패전국 독일의 기술진은 자연스럽게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에 넘어갔고, 이는 최신 무기 개발의 중추가 되었다.

Mig-P86

쌍둥이인간! 님은꼴 미국 F-86과 소련 MiG-15

독일 엔지니어가 미국이나 소련으로 넘어갔다고 백지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할 리는 없었다. 독일에서 연구하다 중단된 프로젝트가 재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로켓이나 제트전투기에서 미국과 소련을 대표한 무기는 많이 달랐다. 기본적인 구조뿐 아니라 결구까지 비슷했는데, 실제로 미국 F-86 전투기와 소련 MiG-15 전투기는 형제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외양이나 성능이 엇비슷했다.



네이버와 조선일보에서 어거스트의 군사 세계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인 대한민국 평균 40대다. 밀리터리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의 블로그(blog.chosun.com/xqon)로 달려가라. 그곳에 답이 있다.

물 건넌 독일 군사 기술이 적들 손에서 업그레이드!

냉전 초기 양 진영을 대표한 최선예 전투기 F-86과 MG-15는 패전으로 중단된 메서슈미트 P.110 프로젝트와 포커울프가 삼혈을 기울인 Ta-183 프로젝트의 이류적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후퇴의 주역직선 날개를 두고 그대로 찢힌 비행기 날개. 동시에 삽입한 공기흡입구 및 엔진 노즐은 제세대 제트기의 기본 형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시작된 냉전으로 미국과 소련의 세계를 양분하면서 독일의 쿨로켓&제트기 기술이 당시 적들에게 건너가 오렌지보다 배어난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된 셈이다.



중립국에서 탄생한 오렌지급 전투기 J-29

한국전쟁이 끝난 후 휴전 협정이 체결되자 인도나 브라질 같은 제3국으로 망명한 전쟁 포로처럼, 패전 직후 중립 지역 국가로 망명한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있었다. 이들은 재주가 뛰어나 망명국에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독일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이어나갔다. 덕분에 당시 항공 산업의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제트기와 맞먹는 녀석들이 생산됐다. 대표적인 것이 중립국이던 스웨덴의 J-29 Tunnan 전투기였다. 이 녀석의 오리지널 베이스로 추측되는 Ta-183과 판박이가 아닌가 할 정도로 똑같은데, 독일인 글이 발트 해를 건너가 스웨덴의 오렌지가 된 경우다.



라틴산 오렌지급 전투기 FMA IAe-33 Pulqui II의 등장 오렌지급 전투기 J-29

아르헨티나는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압력으로 끝으로는 중립을 유지했지만 전쟁 기간 내 내 친독 성향을 보인 국가다. 처벌을 두려워한 나치 친위대(SS)나 게슈타포(비밀경찰)의 상당수가 아르헨티나로 망명했는데, 일부 엔지니어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그중에는 포커울프의 유명한 엔지니어이자 불세출의 전투기 Fw-190를 제작한 쿠르트 탱크(Kurt Tank, 1898~1983)도 있었다. 그는 1947년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원으로 코르도바에 옛 포커울프 직원들을 규합해 중단으로 중단된 제트전투기 연구를 재개했다. 탱크는 연구가 중단된 Ta-183을 베이스로 MG-15에 채택된 폴스 로이스 Neke I 엔진을 얹은 최신 제트전투기틀 만들었다. 비록 실전 데뷔 기록은 없지만 성능은 F-86이나 MG-15와 맞먹을 정도여서 아르헨티나는 미국, 소련 등과 더불어 초기 제트전투기 개발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 전투기가 바로 FMA IAe-33 Pulqui II다. 독일 글이 잘 익은 남미산 오렌지류 변신한 셈이다.



Kurt Tank (with Peron)

STAY

Hot Hat

BY 고정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김희성 ILLUSTRATION BY 장미애

날이 차니 안 그래도 품질 나쁜
머리가 얼어 굳어버릴 기세
따뜻하게 데우면 좀 나아지려나?

선명한 오렌지색이 경쾌하다.
방울 달린 나트 바니 29,000원 번스



① 뒷머리를 살짝 덮는 한팅캡 98,000원 칸글

② 레옹 스토일의 감성색 바니 가격 미정 씨피컴퍼니

③ 9인치와 감성색에 고급을 덧붙인 스타일의 바니 가격 미정 씨피컴퍼니

④ 데님과 오렌지색의 완벽한 궁합 58,000원 브리조베이

⑤ 끈 조절이 가능한 컵 54,000원 그레이스 란초 by 핏츠온

⑥ 귀를 완벽히 덮고 얼굴까지 감쌀 수 있는 남색 모자 64,000원 브로너 by J티패럴

⑦ 시크한 데님 속에 따뜻한 털을 품은 군방모자 모자 52,000원 브리조베이

⑧ 머리 뒷면은 중립요 앞면은 캡 모양을 한 바니색 모자 87,000원 칸글

⑨ 감성색의 핏세 줄무늬에 방울이달린 니트 모자 35,000원 무마

⑩ 시베리아 법랑에서도 따뜻할 것 같은 부모자 69,000원 브로너 by J티패럴

⑪ 머리에 딱 맞는 모자색 니트 바니 88,000원 콜린모나코

⑫ 한눈에 띄는 모자 디자인의 해링본 무늬가 어우러진 한팅캡 42,000원 칠바이질스튜디오 by 핏츠온

I'm BIG

아이가 자랑어요!!!

BY 고품격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고품격 MAKE-UP 로베르(매네지스 02-548-7787)
MODEL 송원석 ASSISTANT 김희성



안감과 걸림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패딩 베스트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사선 지퍼 여담 장식의 경정예 코트 640,000원 시스렘 몸드
대담 셔츠 118,000원 커스텀벨로우
발목 부위가 풍금유급한 주름을 디자인한 여성용 배가버시 100,000원대 카이아크만
발목 뒤에 달린 메달 장식이 경쾌한 느낌을 주는 워커 가격 미정 키사 올드

COOPERATIONS,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카스텔링(영문: 스디)으로 불리거나, 이스타(스타일: 56-7764) 스토어(영문: 키시) 운영(스타일: 348-9943) 90(이)아르노, 켈빈클라인 진, 켈빈클라인 언더웨어(5045-7720) 파르디(타이즈: 3407-7701) 웨이, 본시(타이즈: 504-0880) 카스토(타이즈: 504-0880) 테스티에리(www.testiere.com)



연한 체크무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더블 브레스트의 코트 가격 미정 본지블로어
다용세 스토라이드 니트 69,800원 카이이크란
벨간세 체크무늬 잠옷 98,000원 켈빈클라인 언더웨어
같은 화색 양말 3,900원 테스티에리

좌)

최저 낙 워머 175,000원 시스템 울트
머플러가 달려 있는 니트와 코트 590,000원 시스템 울트
색색의 사탕 프린팅 반소매 티셔츠 49,000원 푸마
호피 무늬 니트 바지 100,000원 카이아크만

우)

모자가 달린 더플코트 가격 미정 스톤아일랜드
헤글 프린팅의 노란색과 파란색 니트
235,000원 시스템 울트
오렌지색 반소매 티셔츠 가격 미정 캘빈클라인 썬
노란색과 검정색 꽃무늬 드로어즈
48,000원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오렌지색 양말 3,900원 테스트에리





노란색 바닐라 오자가 달린 모직 인양의 코트 498,000원 커스텀벨로우
선홍색 니트 148,000원 콜업모나코
대님 셔츠 100,000원대 본지블로어
패치를 덧댄 청바지 100,000원대 카이마크만
라이플 운동화 349,000원 에스피엑스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청장과 캐주얼에 어울리는 크로스백
898,000원 오르비엔코
접이식 보디 프레임의 자전거 1,890,000원 무마

덴마크의 바이오메카와 합작품으로
잠금 장치를 없애고 출지면 프레임이
흔들려 타기 어렵게 설계됐다.





패딩 소재 목도리 99,800원 카이이크만
화석 체크무늬 코트 가격 미정 본지플로어
남색 니트 158,000원 게스
러간색 울방울 무늬의 하늘색 셔츠 148,000원 프레드 페리
낙타색 맨츠 가격 미정 본지플로어
남색 양말 3,900원 테스트에리
두 가지 색감의 조합이 새겨진 밧을 연출하는
스트레이트 팁 구두 200,000원 데 소다 울므

SUIT



성공을 알리는 V!
슈트를 입을 때 V조만
잘 갖춰도 받은 성공

BY 조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신나는 평일

창의력을 요구하는 일터에선 화이트 셔츠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블루 셔츠 89,000원 타랜저티 무늬 없는 단색 타이는 풍격을 높인다. 블루 셔츠와 보색 관계인 오렌지 타이를 매치하면 우울한 날에도 흥이 절로 난다. 타이 30,000원 더서츠스튜디오

하얀색 얼굴



빛이 없는 하얀색 얼굴엔 활기를 넣어주자. 핑크 셔츠 39,000원 예스티코
고전적인 레저맨탈 타이도 경쾌한 색이라면 밝은 느낌을 준다. 타이 39,000원 예스티코

Tip 면접자나 신입 사원의 이미지를 포켓차트가 갖다내릴 수도 있다. 뒷사람이 볼 땐 그저 같아든 강렬한 농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

노란색 얼굴



이도저도 아닌 얼굴색에는 확실한 패턴으로 시선을 잡는 거다. 칼라와 소매부분에 덧대진 하얀색이 완벽한 차도남의 인상을 준다.
체크 패턴의 클래식 셔츠(소매와 칼라만 흰색인 셔츠) 138,000원 키스탈멜로우
남색과 빨간색 타이는 강렬하고 깔끔한 인상을 준다. 타이 58,000원 타이이모펜

검정색 얼굴



얼굴색이 깨알수룩 흰색과 화색 셔츠는 어울리지 않는다. 낮긴지려운 파스텔 색은 당신에게 소통 내음이 나게 하는 신묘한 효과가 있다. 검은 피투에 어울리는 색은? 보라색
연보라색 셔츠 80,000원대 타랜저티 스트라이프 간격이 넓어 착착한 얼굴이 시원해 보인다. 타이 58,000원 타이이모펜



한국인들이 애용하는 검정색 슈트는 사실 예약이나 정례식 등 극도의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적합하다. 남색은 성공 지향적이며 세련된 분위기를 풍겨 면접이나 비즈니스맨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짙은 남색은 날씬해 보이니까지 한다. 자, 당신의 첫 슈트는 무슨 색? 남색 슈트 재킷 200,000원대 티앤저티

더 신나는 주말

늘 때도 격식 있게 단 사회 지도층이 될 테니까. 화이트 셔츠 108,000원 타이아포맨
 니트는 딱딱한 느낌의 셔츠에 부드러움을 더해준다. 타이 68,000원 본 지플로어
 니트로 만든 사람 모양의 인형은 포켓치프에 넣는 핑거미팅. 6개 1세트 158,000원 커스텀벨로우

하얀색 얼굴



창백한 얼굴엔 따뜻한 느낌의 색을 입어 차가운 인상을 누그러뜨려라.
 노란색 클래식 셔츠 138,000원 타이아포맨
 단정해 보이는 남색에 응글한 버나나 패턴 타이 48,000원 본 지플로어

TIP 슈트보나 커튼 밑 아한 레이스 속옷 등을 살짝 질라 개성있는 포켓치프를 만들자. 얇아 몰래.

노란색 얼굴



누런 얼굴에 핑크색 셔츠를 입으면 핏색이 좋아 보인다. 체크 셔츠 49,000원 디세츠스튜디오
 여러 가지 색의 체크 패턴은 타이리도 겁없게 보이지 않는다. 타이 38,000원 예스티코

TIP 포켓 주머니에 흰만 콧만 법 없다. 더 섬세한 색색의 파스텔은 어떤가. 단, 떨어지는 파스텔 기르는 조심할 것. 지능까지 좀 떨어져 보이니까.

검정색 얼굴



파란색 셔츠에 노란색 줄무늬가 발달한 느낌을 준다. 줄무늬 셔츠에 사선 줄무늬 타이를 매치하면 더욱 센스 있어 보인다. 타이 58,000원 타이아포맨

TIP 재킷에 재입 세련된 포켓치프를 달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 광일 업무 중엔 녀석을 숨겼다. 금요일에 꺼내 도도한 미스 김의 눈길을 끌어보자.

Hot & Stylish

방한 슈즈

아직 추움

BY 고정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김희성 COOPERATIONS 리코스테 바이 플랫폼
(02-3447-7701) 클레이(www.iconsapply.co.kr) 썬젤(02-6009-0257)
닥터마티(02-431-2902) 호킨스, 맨스, 푸에(02-594-0939) 키시유르,
각산(02-3446-9949) 에스피에스, 칸베스, 소다유르(02-546-7764)



- ① 따뜻한 패딩 점퍼보다 더 따뜻한 패딩 부츠 200,000원 리코스테 바이 플랫폼
- ② 시크한 당신에게 어울리는 가죽 신발 195,000원 클레이
- ③ 이번 시즌 아무도 어 신발 하나 없다면 당신은 루저 79,000원 호킨스
- ④ 남들과 다르고 싶어서 미친 당신이라면 마음이 동할 거다. 369,000원 에스피에스
- ⑤ 왜냐와 이렇다가 경박스럽게 부딪치는 한 겨울에도 차가운 애. 뽀뽀 구두를 고집하는 당신 같은 멋진(예전) 이 구두가 친리 298,000원 소다유르
- ⑥ 할리우드 칸자는 이걸로 완성 198,000원 썬젤
- ⑦ 바지 밑단이 신발 발목을 덮으면 요조숙녀, 발 토사에 바지를 넣으면 형명 연두세 요부가 된다. 158,000원 썬젤



- ① 방방한 패딩이 발피력을 드겁게 달군다.
129,000원 푸마
- ② 코듀로이 맨조가 이저씨라면 코듀로이 신
법은 원년 65,000원 캔버스
- ③ 보기만 해도 땀이 나는 울 소재 워커
200,000원 닥터마틴
- ④ 평범한 구두의 밑을 쓰고 있지만 복숭한 밑
안감이 의기정양이다. 종아리까지 올라가나 발
목에서 잠겨 나갈 수도 있다.
- 500,000원 키사울르
- ⑤ 종아리까지 덮는 패딩 부츠는 겨울 내내 든
든한 내 친구 99,000원 울킨스
- ⑥ 스웨이드 재질의 시골길 운동화는 보기만
해도 훈훈하다. 89,000원 빈스
- ⑦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장화가 부담스럽고 금
세 외부 온도에 따라 차가워져 망할까? 이
제품이 해당 가격 미정 트레몰 바이 각샵

Valent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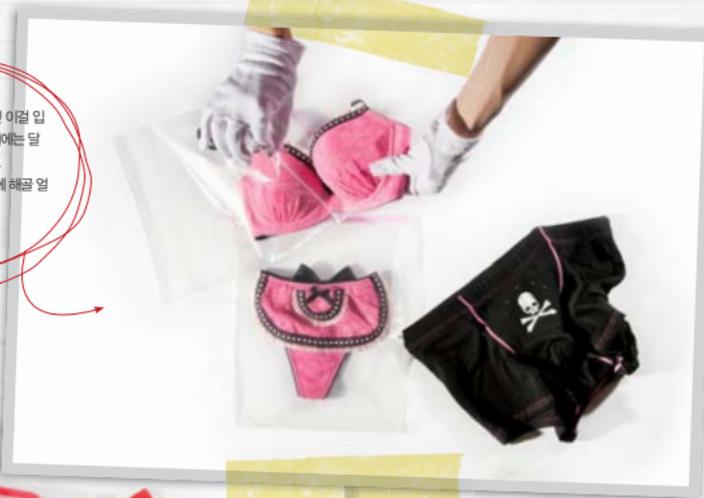
초콜릿은 주지 않아도 돼. 그저 보여주지만 하면 돼. 네 마음이 담긴 속...옷을.

BY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박한영·리
 COOPERATIONS 배디룸(02-2029-2107) #배디룸(1598-6101) 예스(02-320-6600)
 델(02-546-0203) 코디스앤바인 아우터웨어(02-3444-7712)

반전 속옷

- 1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여장을 원하면 이걸 입
 해라. 마냥 귀여워 보이는 레이스 팬티 뒤에는 달
 람 끈 한 줄만이 아슬아슬하게 달려 있다.
- 2 여친이 해골을 꾸욱 누르면 순식간에 해골 얼
 굴이 커질지도 모른다.

여자 브라 19,000원, 여자 팬티 9,000원 배디룸
 남자 팬티 13,500원 코디스앤바인



웰컴 투 신묘년

깜찍한 바니컴에겐 불끈불끈 당근을 쥐어줘야지.
 '바니바니바니바니~ 당근당근~'

여자 브라 24,000원, 여자 팬티 8,000원
 남자 팬티 13,000원 예스



I LOVE
 YOU

Underwear

LET'S GO PARTY

그녀와 함께 광란의 파티를 즐기자. 기보 미 유얼
바너너, 캣 미 테스트 유얼 바너너

여자 브라 18,800원, 여자 팬티 7,800원
남자 팬티 10,800원 답

처음처럼

- 1 그녀의 뽀얀 속살에 안성맞춤. 처, 처음처럼~
- 2 무당벌레가 날개를 활짝 펴는 그 순간.

여자 브라 19,800원, 여자 팬티 9,800원 답
남자 팬티 10,000원 바다답

FUCK VALENTINE! ONLY YOU

올 밸런타인데이에 여체에 장착된 속
옷 따위 4D로 감상할 수 없다면, 스
스로에게 선물하자. 아어쁜 속옷을
지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울 거
야. 아마도?

호미 무늬 망사 팬티
20,800원 코데조캄바인 이너웨어
팔링을 무늬 팬티 10,000원 바다답

스타에게 배우는 소개팅 복장의 나쁜 예 vs. 좋은 예

도대체 왜 그녀가 애프터를 거절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지 않아요?
그중 몇 번은 분명 당신의 스타일 때문이었을 거다.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적어도
오스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다. BY 김희성

니콜라스 후트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움이 최고지 근데 누가 머리 빗지 말고 오셨나? 늘어져 보이는 티셔츠에 엉덩이까지 내린 바지라니. 길어 보이는 저 훈남도 호빗 되는 건 시건문제



나쁜 예



Nicholas Hoult

좋은 예

중후해 보이는 슈트도 타이를 매지 않고 셔츠 단추 몇 개만 풀다면 쉽게 멋쟁이가 될 수 있다. 하나 글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는 절대 하지 말자. 액세서리 개수가 늘어날수록 당신 이미지는 가벼워 보일 것이다. 단 가족 시계는 제외

좋은 예

샤이아 라보프

재킷 대신 카디건을 매치해 활동적이고 경쾌한 느낌을 살렸다. 카디건과 바지의 길맞춤은 당신의 기력치를 더 길어 보이게 한다. 카디건 처럼에는 광택 나는 소재의 구두보다 심플한 운동화가 어울린다. 너. 이는 자석 누나랑 사귀자.



Shia LaBeouf



나쁜 예

포인트 따윈 없는 운동착한 색깔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코디라니. 슈트 재킷에 셔츠를 단정히 입어놓고, 청바지와 운동화라니 상의와 하의를 따로 보면 무난한데, 인공꿈주가 따로 없구나라!

MAXIM 스타일 병원

친절한 MAXIM 패션 에디터가 더욱 친절하게 당신의 스타일을 진단하고 처방해주는 MAXIM 스타일 병원 첫 번째 환자는 친바람에 몸뚱이를 보호해줄 아우터를 사요프, 사회화된 오덕 에디터다.

아우터를 사야 하는데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종류도, 색깔도 너무 다양하다. 귀찮아서 대충 샀다가 후회하는 일은 그만 하고 싶다. 돈이 없어서 좋아하는 옷 산다. 단 한 벌의 겨울 아우터를 사야 한다면 어떤 걸 사는 게 가장 유용할까? 참고로 난 얼 굴이 크다.
(김상현, 피쳐에디터)

NG
당신이 매해 겨울, 매일 입고 다닌 배린은 따뜻하고 편하다. 하나, 착한 착한 배린만 고집하는 동종하고 우중충한 남자라면 타이어 캐퍼터만 빌의릴 게 아니라, 여자는, 당신 인생엔 없는 거다.

NG
바람막이도 딱 떨어지는 것은 당신의 커버와 얼굴도 작아 보이게 만드지만 요즘 중저가들이 코백처럼 입고 다니니 같은 무리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NG
아구 켈퍼, 라이더 재킷, 니트 등 아우터의 종류는 참으로 많지만 옮겨올을 따뜻하고 간지 나게 보낼 땀 한 벌의 아우터로는 딱딱한 겨울 내내 라이더 재킷만 입고 다닌다가, 아구 켈퍼만 입고 다닐 수 없잖아?



GOOD
따뜻하면서도 격식을 차리지 좋은 아이템은 코트다. 등고나 솔근 시 혹은 데일 북장으로도 합격이다. 중요한 건 직접 입어보고 시야 한다는 거다. 귀찮거나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덜컥 사려면 피 하자. 코트 같은 기본 아이템은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오래 쓰는 게 중요하다. 향부로 샀다가는 얼마 못가 도새 코트를 사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큰 얼굴을 커버하기 좋은 각 잡힌 코트를 고르자. 어깨 부분에 잡힌 것은 당신을 돈 냄새 나는 남자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한다.

단일 신사라는 거 광고하고 싶지 않다면 너무 독특한 디자인에 요란한 장식은 피하자. 흰색, 회색, 남색이 가장 무난하고 패션 센스가 조금 있다면 카멜색도 좋다. 아마 당신은 검정색을 사겠지? 그렇다면 어깨 위에 스복이 지러낸 남자의 로센스, 비듬부터 처리하라.

개인 인사

한 번이라도 거쳐 가면 누구나 간지남이 된다는 MAXIM 스타일 병원이 문을 열었다. 스타일에 대한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봐라. 거창한 고민도, 사소한 고민도 대환영이다. 멋진 패션 에디터를 비롯한 스타일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준다. 이 얼굴, 이 몸매에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옷이 잘 어울릴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어깨 사진을 찍어 보내라.
보낼 곳은 alice@maximkorea.net다. 그럼 당신의 고민을 가다려준다.



다니엘 래드클리프

셔츠와 타이 슈트를 비슷한 색으로 통일해 덜 부담스럽다. 격식 있는 소개팅 자리라면 어울릴 듯



당신이 돈이 아주아주 많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한 땀 한 땀 장인이 손수 만들었을 것 같은 노트나는 정장 세트에 분홍 셔츠와 갈맞춤 포켓치프라니. 돈 많은 사모님 고시러 나오세요?



라이언 필립

퇴근길이나 클럽에서 이런 남자가 말을 건디면 에디터는 바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줄 거다. 하지만 소개팅 날이 이런 옷차림으로 나왔다면 밥만 먹고 헤어떨어 할 거다. 소개팅에 오자라! 제정신인가? 온통 검은색 옷이 나오느니 잡아먹을 거다라고 광고하는 것 같다.



같은 캐주얼 차림이라도 모자를 벗고 재킷을 걸치니 일등 소개팅 남으로 변신 완료. 운동화와 깔맞춤한 저센스. 여기에 안 넘어갈 여자는 아마 없을 거다. 혹시 실패한다면 그건 다른 이유겠지. 편안해 보여서 단정함을 쟁긴 최고의 코드

나이 조이기

한 살 더 먹었다고 얼굴에 태내면 혼내!

BY 크림의 PHOTOGRAPH BY ARC STUDIO



WHITE SMILE

아.에.아. ~~~~~ 세오우!! by 김민숙



1 피터토마로스 안티에이지 클렌징 젤

반 년 이상 등직하게 세안제를 지켜줄 듯한 대용량이 복숭아 은은하다. 복잡함과 지성, 여드름성 피부라면 하루에 1~2번 사용하면, 보통이거나 건성, 건조와 피부 타입은 처음 일주일 정도는 2~3번 사용하고 점차 피부가 산에 익숙해지면 사용량을 늘린다. 8시간 건조 피부 안에도 더기가 뺏고 매끈 해질 때는 무리는 없었다. 오히려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톤이 밝아지며 촉촉해졌다. 손에 덮어 거품을 내고 씻은 피부에 보날 마사한 후 씻어내자. 타월로 닦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려 건조시킨 후 화장품을 바른단. 250ml 56,000원

2 카멜 미드나잇 리커버리 컨센트레이트

시울성 오일로 만든 고농축 오일로 저녁에 바르는 제품이지만, 아침에도 크림을 바를 때 1~2방울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녁에 사용할 땀 로션을 바르기 전에 사용하면, 한 번에 2방울만 손등에 떨어뜨려 손가락 끝으로 찍어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킨다. 찬바람에 까칠해진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오일이지만 전혀 번들거림이 없으니 강하지가 많이 많은 남자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할 듯. 30ml 65,000원

3 오리진스 아이 릴리프

달콤한 향기와 달리 제품의 질감은 무거운 편이다. 눈가 잔주름이 눈에 띄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평평하게 남겨주느라 기분이 좋다. 약간 손가락을 사용해 발라야 하는데, 손으로 제품을 떠서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튜브에 담겨 짜서 쓰는 방법이었다면 더 위생적일 것 같다. 15ml 48,000원

4 앤소니 울 퍼포즈 페이스 모이스춰라이저

무한 제품이지만, 제품에 포함된 과일 성분 때문인지 상한 향이 미세하게 난다. 아무런 고농축 제품이라던지 얼굴이 좋아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좋아진만큼 있어서 얼굴고, 목, 목 뒷까지 바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진다 한다. 74ml 43,000원

5 랩시즈 맥스 LS 에이지-레스 웨이스 크림

약간 크립치스 질감이긴다. 젤만 사용하든 없는데도 울거룩한 피부가 균일한 톤을 찾았다. 호수 같은 모공이 세안제처럼 작아지진 않았지만 탄력을 얻은 피부가 만족스럽다. 50ml 98,000원

6 스킨플러스 마스크 공상드레 일티 에이지

세안 후, 눈가를 제외한 얼굴에 바르다 20여 분 후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려고 했는데 좀처럼 안는다. 30분간 1~2분 정도 바르자마자 1시간 더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세안했다. 기존에 사용한 그 어떤 마스크 제품보다 사용 후 남는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좋다. 겨울 내내 얼굴에 핀 하얀 각질이 드디어 사라졌다. 75ml 68,000원

7 게스트맨 세럼 리프트 안티 에이징

변화시키는 데서 사용과 확인해 다르다. 부드럽게 바르고 촉촉하면서도 끈적이지 않아서 좋다. 다만 일주일째 쓰고 있는데 이미의 주름이 지우개로 지워지는 듯한 마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30ml 67,000원

8 비오렘폼 스킨 비보 리버시브 안티에이징 스킨로션

당신이 좋아하는 소리처럼 마구 흔들어야 좋다. 묽은 스킨 타입이니 아니라도 가벼운 타입이고 화장실에 묻혀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생소하다. 세안 후 바로 첫 단계로 바르는 부스터 스킨 처럼 정도가 높아주는 느낌이긴 흡수는 빠른 편. 125ml 59,000원



INTRO

요즘 연예인 루나의 시작이 끝은 다이어트도 성형도 아닌 새하얀 치아를 만드는 일이다. 블랙엔 블랙과 보톡스 시술로 시프한 얼굴을 만든다 하더라도 황금 이빨은 큰 은혜. 마백은 사실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번아야 해서 귀찮은 것쯤 죽여나 싫어하는 에디터 같은 남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한 반응이었다.

2010년 문을 연 동봉 에디터에서는 카치라이트를 위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브라이트 스마일(Bright Smile) 시술을 시작했다. 2시간 정도 시술을 받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많은 독자를 대신해 시술에 도전해보았다. 참고로 시술 실을 처리하고도 시술기를 빼다가 울음을 터트린 적이 있는 에디터로서는 치과 시술을 받는 데 큰 각오가 필요했다.

STEP 1 스케일링

브라이트 스마일을 하기 1주일 전쯤에는 스케일링을 받았다. 치아 사이사이 묵은 치석과 플라크를 제거 하니 행할 정도로 시원한 느낌이다. 입속에 서서히 90~25687가지의 세균과 음식을 찌꺼기가 한순간에 몰살해진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걸림 필드다. 10분이면 끝나는 다른 치과에 비해서 치아 한 개 한 개 꼼꼼히 스케일링 해주었다.

STEP 2 사진 촬영

마백에 사진 촬영이 왜 필요하냐? 치아의 착색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시술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다. 브라이트 스마일 시술은 100% 기계로 하기 때문에 후시치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미리 준비한 표본 치아를 내 치아와 비교하고 사진을 찍는다. 표본 치아에 붙은 A35, B1 등의 숫자로 착색 정도를 비교한다.

STEP 3 잇몸 보호

본격적인 마백 시술을 위해 치아에 특수 약물을 바르기 전 잇몸에 크림을 바른다. 치아에만 약물이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를 때 살짝 따끔거린다. 특수 약물이 잇몸에 닿으면 잇몸도 이렇게 말갛게 되고, 하니 굳이 하얀 잇몸을 원하는 시아교들은 잇몸 보호 과정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STEP 4 마백 시술

시술은 치아에 약물을 바르고 광선을 쬐어주는 방법으로 무척 간단하다. 얼굴에 천을 덮어주지만, 광선 스탠드가 내려오면 무척 눈이 부시다. UFO가 지구를 칩박하는 걸 보는 느낌. 마백과 광선이 반응하면서 치아 위의 착색 색소를 태워서, 돌이 반응해서 치아가 밝아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4번 반복하는데, 총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고풍에는 서서히 익숙해지지만 조금 갑갑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낯설 거를 꿈꾸어서 버려보자.

STEP 5 사후 관리

시술을 받은 2시간 이후엔 카레나 커피, 강한 색깔의 음식을 피하고 담배와 술은 자제한다. 약물을 발라 변색된 치아의 색소를 빼내려는 지리에 다시 강한 색소를 들이박는 꼴이기 때문이다. 시술 일주일 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OUTRO

100% 기계로 진행되는 브라이트 스마일 시술은 하루 만에 끝나고 효과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보통 에디터는 진료 과목에 따른 시술실을 따로 두는 경우와 의사와 7명의 치위생사가 스케일링과 마백 등을 직접 시술한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술이 가능하다. 마백 뿐 아니라 치아 간격을 미리미리 정리하고 싶은 이들은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이정호 대표 원장은?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아주대학교 구강외과 전공
- 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 고급보철학 전공



도봉에디터
시술시 도봉구 방학동
703-77번지 우리들 메디칼빌딩 5층
www.doye.co.kr

MAXIM BUYER'S EDGE



이니스프리, 익스트림 파워 워장 크림

군인 피부도 시원하게 가꿔준다. 피부 보호 성분을 함유한 안심 처방의 3색 워장 크림은 통기성 파우더를 사용해 커버력이 높으면서도 답답하지 않다. 파라벤, 알코올, 동물성 원료, 벤조페논과 인조 향 따윈 없애고, 제주 녹차와 숲 파우더를 첨가했다. 3색 8,000원/ 문의 www.innisfree.co.kr

화장실 목은 냄새 제거제, 에어후레쉬 크리스탈워터

애경에스티가 선보인 홈즈 에어후레쉬 크리스탈워터 화장실·욕실용은 악취를 말끔하게 없애주는 방향소취제다. 흙흙하게 짜던 국내 최초의 슈파메이브 워시지를 사용해 2~3개월의 사용 기간 내내 일정한 소취 효과가 있다. 제품 상단의 캡 높이에 따라 방향과 소취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가격 400ml당 6,500원/ 문의 02-034-1357



머렐, 스몰 백의 상큼한 제안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MERRELL)에서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스몰 백을 선보인다. 클래식하고 캐주얼을 아우르는 디자인의 패시비한 백으로 캠퍼스에서 뿐 아니라 아웃도어 활동 중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3L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 마감재로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의 휴대성을 높였으며, 어깨끈이 부착되어 사이드 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www.merrellkorea.co.kr



타임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컬렉션

타임포스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브랜드 시리즈인 TF3329M01을 출시했다. TF3329M01은 가죽 소재의 팔찌와 시계를 같이 제공하는 스포츠 제품으로, 팔찌에는 스몰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십자가 디자인을 장식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으며 3년, 스테인리스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블랙 PU 스트랩,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107만 명수를 갖추어 기능성을 갖춘 패션아이템으로서 완성도를 높였다. 가격 430,000원



아디다스, 포르쉐 디자인 스포츠 출시

아디다스가 남성을 위한 혁신적인 하미테크 스포츠와 디자인의 미학을 가미하여 탄생시킨 리서치 스포츠 컬렉션 아디다스 포르쉐 디자인 스포츠 캐시미어 윈드 스톱퍼(Cashmere Wind Stopper)를 선보인다. 캐시미어 니트를 사용한 인축성을 높인 데다 심플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스타일과 기능성 2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 가격 450,000원/ 문의 02-3447-7701



르페, 벨런타인데이 속옷 제안

러셀리 브랜드 르페(LEFEE)가 벨런타인데이 속옷 핫브라운 세트를 출시했다. 핫브라운 세트는 은은한 광택이 고급스러운 코코아 색상의 크리스탈 스판 소재를 사용했다. 또 실루엣을 살려주고, 걸음에도 자국이 남지 않아 옷맵시를 한껏 높일 수 있다. 초콜릿과 분무기 있는 속옷을 고풍하며 이번 벨런타인데이를 즐겨 보자. 문의 1544-6101/ www.lefee.co.kr



컬럼비아, 올니테크 소재 '로프저 재킷' 출시

컬럼비아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 소재인 올니테크(Omn-Tech)를 적용해 방수, 투습, 발수 기능이 뛰어난 로프저 재킷(Lotger® Jacket)을 출시했다. 로프저 재킷은 올니테크 2레이어 소재를 사용해 불기운이 서서히 찾아오는 소재, 한겨울의 갈바람과 봄의 훈풍이 번갈아 불어오는 계절에 일기예측 최적의 아웃웨어다. 가격 238,000원/ 문의 02-6860-0218





LACOSTE, 아로나6 출시

아로나6는 S/S 시즌에 걸맞게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살린 라코스테의 새로운 디자인 부츠(Desert Boots) 제품이다. 가죽을 안감 없이 통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안솔의 ADS 기능과 최상급 프라이머 가죽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착용감이 뛰어나다. 가격 159,000원/ 문의 02-3447-7701

platform



마이클 코어스 선글라스

(주)룩비디는 2011년 S/S 시즌을 겨냥하여 프레임이 독특한 마이클 코어스 선글라스를 선보였다. 이번 모델은 전체적으로 기본 보잉 형태를 유지하되, 신선했던 강카이 돌보이는 오픈 프레임에 보여주고 있다. 슬림하고 심플한 마이클 코어스 보잉 스타일은 오픈스페이스에 매력 포인트이며, 얼굴이 넓은 남성에게도 착용감이 좋은 제품이다. 가격 365,000원/ 문의 1589-3016

페리엘리스 아메리카, 빈티지 밀리터리 점퍼 출시

스타일리시한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 페리엘리스 아메리카에서 새롭게 선보인 PEA 야상 점퍼는 딱딱한 밀리터리룩을 탈피했다. 실루엣은 슬림하게 디자인은 4인치 포켓인자로 깔끔하게 정리한 세련된 빈티지 스타일이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스타일링에 베이시한 티셔츠와 데님 팬츠를 스니커즈와 함께 매치하면 자전리스로운 캐주얼룩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292-3361/www.perryamerica.com



신은 뒀 안신은 뒀, Reebok '클래식 라이트'

클래식 라이트는 기존 Reebok의 클래식 제품의 모던함에 알뜰달라한 컨디 셉러 아웃솔을 얹어 더욱 패시비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또한 가벼운 갑피소재와 유연하고 탄력성이 뛰어난 신개념 3D 울트라라이트 소재를 결합하여 136~189g의 초경량 무게를 자랑한다. 가격 79,900원 ~99,900원

재미있는 외장 하드 플로라 크리스티앙 출시

새로워진 프랑스 아티스트 크리스티앙 볼초가 디자인한 외장 하드를 출시한다. 캐릭터들의 귀엽스런 표정과 형질, 현실, 철학, 시사, 볼트 등 직업을 사용한 재료의 입체감을 최대한 살린 코팅 처리는 실제 직업을 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전해준다. 가격 640GB 155,000원/ 문의 02-6370-8081



한국맥도날드 '프리미엄 로스트' 출시



한국맥도날드는 100% 아라비카 원두로 신선했게 내린 드립 커피인 신제품 맥카페 프리미엄 로스트를 새롭게 출시한다. 프리미엄 로스트는 골게 한 잔에 뜨거운 물을 내려 만든 블루드 커피(Brewed Coffee)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숏 사이즈는 1500원, 풀 사이즈는 1800원으로 좋은 품질의 커피를 가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벨킨 기방 컬렉션, 트렌드를 매다



벨킨에서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패션 기방 컬렉션을 출시한다. 벨킨의 가장 컬렉션은 활동도가 높은 대시(Dash) 라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페이스(Pace) 라인, 착용감을 살린 무브(Move) 라인으로 구성된다. 벨킨만의 세련된 스타일과 디테일을 잘 살리는 동시에 방수 소재, 패딩 처리 등으로 소지품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가격 7만~65만 원/ 문의 02-2088-7306

신작 게임의 승리를 내 손 안에

로지텍코리아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로지텍 게이밍 키보드 G510을 출시했다. G510은 게이밍패널(GamePanel) LCD를 갖추어 단색의 LCD를 통해 게임 중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배경 조명을 조정할 수 있어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하며, 제품 구매는 로지텍 이스트-Ole-Store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가격 199,000원/ 문의 02-6370-8022/
www.logitech.co.kr

2011 재탄생 프로 박준

헤어 명품 신흥 빅준뷰티랩이 지난 1월 11일 재탄생했다. 신사와 살림과 함께 새롭게 변신한 빅준뷰티랩은 다양한 문화와 교육 세미나를 펼칠 아트홀과 플라워룸, 헤어쇼, 테이커펀과 스카이라이프, 스마는 물론 여자인의 사랑을 받아온 안면미소침 전문인 호전원(원까지) 한 건물 안에서 해결 가능한 도털 뷰티룸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문의 02-518-9233/ www.parkjun.com



파워풀 컴팩트 카메라 DSC-W570/ W580

1600만 화소의 고해상도 Super HAD CCD와 소니 BIONZ 이미지 프로세서로 완성되는 최고의 화질, 인도전선 해상도, 생생한 표현, 효과적인 노이즈 억제력이 최상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카메라 DSC-W570/ W580가 출시되었다. 스릴 파노라마 기능과 인텔리전트 자동모드 기능을 통해 촬영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두 모델 모두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가격 200,000원/문의 080-777-2000/ www.sony.co.kr



프리미엄 위스키 원저, 이병현과 모델 재계약

위스키 브랜드 원저는 월드스타 이병현과 2010년까지 모델 계약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저의 모델로 첫 발탁된 이병현은 디지털 볼록버스터 인플루언스에서 열연을 펼쳐져 원저의 프리미엄 이미지 향상과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이번 재계약 결정의 배경이다. 이병현은 광고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와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 사이버샷, 세계 최초 1080 풀HD

소니가 DSLR급 화질, 생생한 3D 사운드, 고화질의 풀HD 동영상도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샷 디지털카메라를 선보인다.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최초로 풀HD 촬영이 가능하며 혁신적인 이중 녹화 기술을 도입하여 비디오 촬영 중에도 300만 화소의 스틸 사진을 촬영 할 수 있다. 문의 02-6370-8052

이탈리아 명품 헤어브러시 테크

테크브러시는 1977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천연-나무 브러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서 탄생했다. 최고의 원목을 브러시의 손잡이와 빗살에 적용해 머리카리와 두피에 가장 편안한 촉감을 가져온다. 모든 과정은 이탈리아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빅준뷰티랩 창립 본질 리뉴얼 오픈 행사에서 독창성과 우수성을 선보였다. 문의 02-512-8319/ www.tekitaly.co.kr



던힐, 나노컷 1mg 출시

2011년 1월, 금연을 결심한 독자들에게 미안한 소식이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에서 프리미엄 킹사이프 슈퍼슬림 담배인 던힐 나노컷(DUNHILL Nanocut) 1mg을 출시했다. 모사린을 비스듬하게 커팅하고 알만에 울퉁불퉁하게 작은 도트 무늬를 새긴 크림색 패키지로 맛과 향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제품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했다. 가격 2,500원



레스토랑과 바, La SUITE(라스윗) & PURPLE Z(퍼플지)

벨몬타이네이에 중 이태리 스타일한 한 남동을 방문해보자. 라스윗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가까운 합리적인 프랑스 비스트로이다. 프랑스 정통 코스요리를 즐긴 후 지하에 위치한 퍼플지에서 스타일리시한 하우스 음악을 즐기며 라키팀과 샴페인 등의 주류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2-6053-6699

도브, 겨울용 모발 관리 에센스

겨울에는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와 차가운 바람으로 모발 트러블이 심해진다. 도브 인텐스모이스터-아트 에센스는 머릿결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생기 있고 활력기에는 머릿결을 가꾸고 장기간 발생도 막아준다. 특히 도브만의 하이퍼 액티브 기술을 이용하여 모발 속 깊숙한 곳까지 영양 공급을 해주고 보습에도 도움을 준다. 문의 080-041-7001/ www.dove.co.kr



더욱 강력한 성능, 타임라인X 3820TG

2011년 에디션에서 출시된 타임라인X 3820TG는 더욱 빨라진 멀티태스킹 기능과 터보 부스트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 프로세서 대비 최대 8% 더 빠른 동영상 인코딩을 지원한다. 또한 재발열 및 자연적 구동을 실현하여 별도의 충전 없이 최대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8kg의 초경량 무게로 편의성을 높였다.
가격 1,099,000원/ 문의 02-6272-3018



따뜻한 남자, FRED PERRY 레터드 가디건

2011 S/S 시즌 프레드 페리에서 선보이는 레터드 가디건은 맨 폴리에스테로 혼방 소재로 네크라인과 입 여인, 밑단, 소매단에 컬러 배색을 주었고 왼쪽 소매에 배색 두 줄 스트라이프를 배치하여 디자인 포인트를 줄로서 고급스러운 느낌과 유니크한 매력을 동시에 선사한다.
가격 365,000원/ 문의 02-9447-7701



조니워커,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조니워커 블랙이 100년 만에 새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또한 영국의 전통적인 시시안화가 재워더 스카프가 디자인한 조니워커 블루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애주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블루 라블 이타스트 한정판은 한 병 한 병 수작업으로 제작하며, 단 360명만 국내에 소개한다. 700ml 40,000원/ 문의 02-742-0880

데니즌, 밸런타인데이 에디션 출시

데니즌에서 선보이는 밸런타인데이 에디션 티셔츠는 남녀 커벌 제품으로 그레이와 화이트 바탕에 하트 모티프가 컬러 포인트와 화이트 큐트(White)하면서도 핑(White)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데니즌의 밸런타인데이 커벌 에디션 제품은 전국 데니즌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가격 남성 24,000원, 여성 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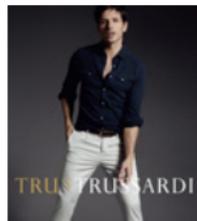
칠기 장인의 기술로 만들어낸 명품 아이웨어

일본 하우스 브랜드 아이웨어인 BU classic에서 2011년 새해 명품 칠기 장인 시리조를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안경 전체에 국화 무늬를 금박으로 새겨 넣은 이 제품은 BU CLASSIC 한국 한정 5주년 기념 한정 모델로 일본의 전통 에츠(Ensu) 칠기 공예를 접목하여 장인 시리조로 탄생하게 되었다. 가격 미정/ 문의 02-777-0241



노트북과 태블릿, 둘 다 잡았다! 아수스 Eee Pad Slider

태블릿과 노트북, 두 기능을 모두 원하는 사용자라면 아수스 Eee 패드 슬라이더가 적합하다. 10.1인치 FS 터치스크린 방식의 Eee 패드 슬라이더는 터치 방식뿐 아니라 슬라이드 되어 볼 수 있는 편리한 쿼터 키보드가 길이 있다. 또한 모바일 프로세서 중 최고의 제품인 엔비디아 테그라2와 모바일 기기 최초로 엔비디아 지포스 GPU를 탑재했다. kr.asus.com



트루 트루사르디의 비즈니스 코디제안

2011년 한정 100주년을 맞는 이태리 패션 하우스 트루 트루사르디(Tru Trussardi)에서 스마트 앤 캐주얼 비즈니스 웨어로 2011 봄 시즌 테마를 담은 스타일을 공개했다. 이번 시즌은 오토바이, 자전거, 여행자를 모티프로 전개되어 다양한 질러본으로 표현되는 특수원단과 금속 디테일을 사용한 트랜치코트와 재킷을 제안한다. 문의 02-3446-7725

진하고 부드러운 립톤 골드 밀크티

120년 전통의 차 전문 브랜드 립톤은 겨울철 나른한 오후에 립톤 골드 밀크티를 제안한다. 향신료 홍차를 넣은 립톤 골드 밀크티는 홍차 밀크티 시장에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온 립톤 밀크티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프리미엄 블렌딩으로 더욱 진화한 홍차와 부드러운 우유의 황금색인 맛의 조화가 매력적이다. 가격 15개입 5,000원/ 문의 080-041-7000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통장 입금(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MAXIM KOREA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란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원'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온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원=1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사은품은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없으나, 검량없이 새 선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은품을 확인하시려면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나은행 599-90102-00904 국민은행 166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남자의 피부는 비즈니스다

그의 비즈니스 아이템, 맨즈 클래식 더블 이펙트 비비크림



MEN'S CLASSIC
화장품 받기



자외선 차단 SPF4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UV A-B 동시 차단은 기본!
SPF40 PA++의 든든함까지



화이트닝
[미백 기능성 화장품]
착색한 피부를 맑고 흰하게!



트러블 방지
미흡토 추출물이 뾰루지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세범 컨트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력
피지 조절 기능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ACTIVE YOUTH OF STYLISH SKIN

행복하고 여유있는 삶과 성공에 대한 열정을 가진 당신에게 제안하는 All about style, 유니섹슈얼의 진정한 그루밍을 Men's Classic이 지원합니다.

MAXIM

KOREA

ICON:

양방언

KATY PERRY

전설의 용장 **듀롱**

MISS MAXIM 최혜연의
VALENTINE GIFT

**BMW X5 &
TOYOTA RAV4**

닌텐도 3DS

〈악마를 보았다〉
김인서

MAXIM 입사시험 II

STYLE

- ① 한 살 더 먹은 남자의 코트
- ② 얼굴색에 딱 맞는 셔츠&타이
- ③ 소개팅에서 먹어주는 스타일
- ④ 차아미백, 하얘지나?

FEBRUARY 2011



www.maximkorea.net

애니 속 이쁜이
BEST 8

전투기 스페셜
MAXIM PARTY

송지선 아나운서
김민아 아나운서
가수 요조
배우 잭 블랙

2011년 2월호
정가 5,400원